

리아호나

연차 대회 말씀

새로 부름 받은 칠십인,
감리 감독단,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 182차 연차 대회의 마지막 모임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삶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복음은 인생의 가장 중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우리 삶에 의미와 목적과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불안정한 시대에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며 축복하고 돕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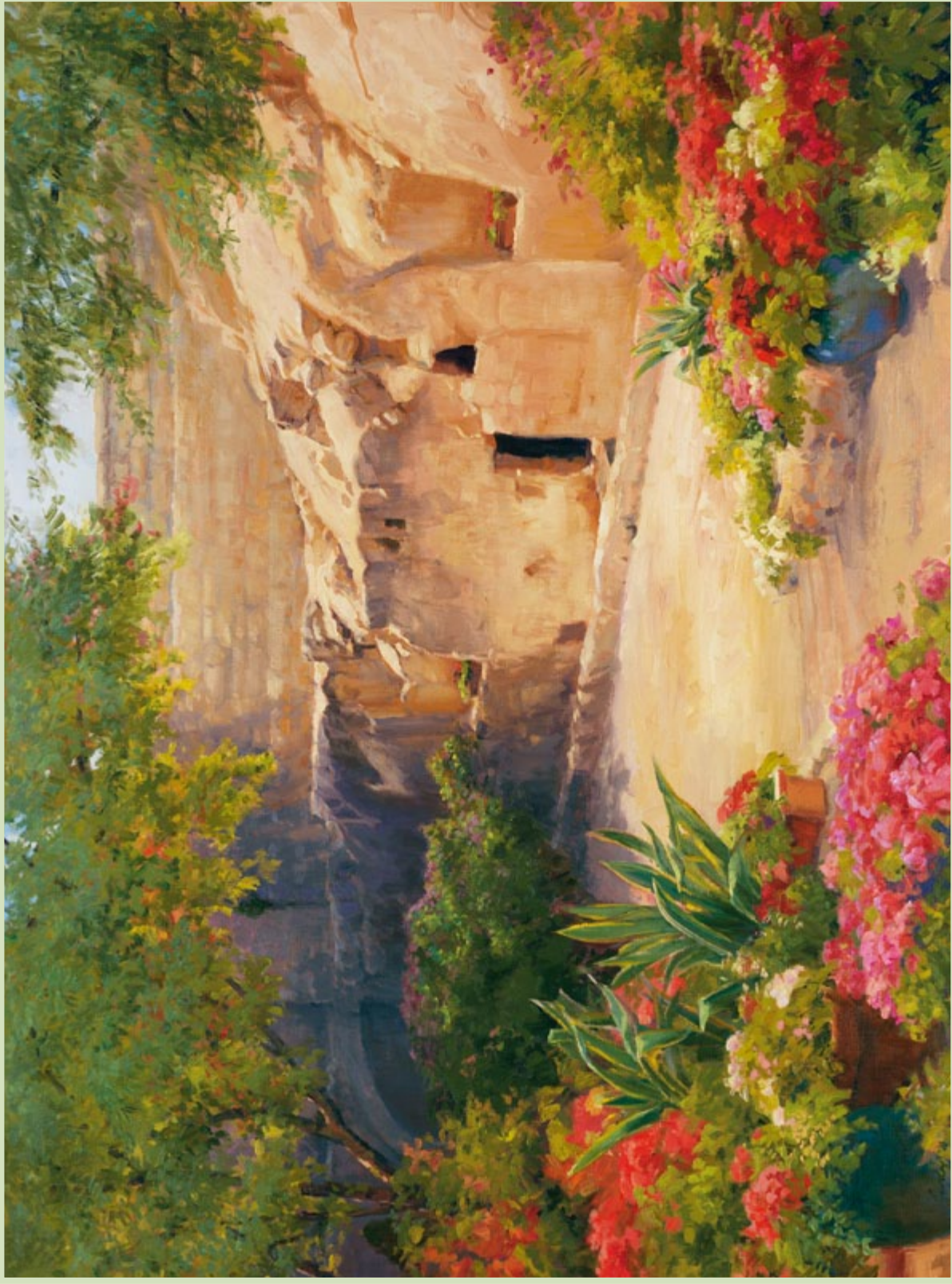
10485 320



ELSEPETH YOUNG, 복사 금지

새벽, 엘스페스 영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마가복음 16:1~2)



정원 무덤, 린다 켈리 크리스텐슨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마태복음 27:59~60)

주님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부활한 첫 번째 분이십니다.

그분의 속죄를 통해 모든 사람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3~4, 20~22 참조)

2 제182차 연차 대회 요약

토요일 오전 모임

- 4 다시 모이게 되어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6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니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 10 자녀가 이해하도록 가르치며
첼럴 에이 에스플린
- 13 주님의 교회를 통해 그분의 복음으로
개종하십시오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
- 16 그분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폴 이 켈리커 장로
- 19 희생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 23 올라야 할 산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토요일 오후 모임

- 27 교회 역원 지지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29 2011년 교회 감사부 보고서
로버트 더블유 캔트웰
- 30 2011년 통계 보고서
브룩 피 헤일즈
- 31 포도원의 품꾼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 34 스스로 돌이키십시오: 성찬, 성전,
희생 봉사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37 신앙, 깨끗함, 성취: 한부모에게
전하는 메시지
데이비드 에스 벡스터 장로
- 39 주님의 영역에 거하십시오!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 41 신앙의 말씀에 따라
쿠엔틴 엘 쿡 장로
- 45 삶에 필요한 계시와 영감을 받는 방법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신권 모임

- 48 하늘의 권능
데이비드 에이 베트나 장로
- 52 실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
리처드 시 에즐리 감독
- 55 아론 신권: 일어나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십시오
에이드리언 오초아

- 58 신권 봉사의 이유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62 성약을 맺은 가족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66 봉사하려는 마음과 합당성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일요일 오전 모임

- 70 공홀히 여기는 자가 공홀히 여김을
받습니다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77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러셀 엠 벨슨 장로
- 80 특별한 교훈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장로
- 83 상호부조회에 대한 선지자들의 비전:
신앙, 가족, 구제
줄리 비 벡
- 86 그리스도의 교리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 90 인생이라는 경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일요일 오후 모임

- 94 구원의 능력
엘 톰 페리 장로
- 97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을 수 있도록
앤 러셀 벨라드 장로
- 101 행동으로 옮기는 비전을 가지십시오
오 빈센트 할레크 장로
- 103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래리 와이 윌슨 장로
- 106 그 일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장로
- 109 성스럽게 간직하십시오
폴 비 파이퍼 장로
- 111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닐 엘 앤터슨 장로
- 115 대회를 마치며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청년 총회

- 117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앤 앤 답
- 120 학문을 구하라: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메리 앤 쿡
- 123 지금은 일어나 빛을 발할 때입니다!
일레인 에스 돌튼
- 126 믿고, 순종하며, 견디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72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역원
- 130 연사들이 전한 말씀: 대회 말씀을 삶에
적용합시다
- 132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일화 색인
- 133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 133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 134 교회 소식



제182차 연차 대회 요약

2012년 3월 31일 토요일 오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디이더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개회 기도: 존 비 덕슨 장로. 폐회 기도: 윌포드 더블유 앤더슨. 음악: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치, 오르간 반주: 앤드류 언스위스와 클레이 크리스천슨: “높은 산 언덕 위”, 찬송가, 2장; “소리 높여 찬양해”, 찬송가, 47장; “마음에 햇빛 있으면”, 찬송가, 159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굳도다 그 기초”, 찬송가, 35장; “사랑의 기도”, *어린이 노래책*, 102장, 칼턴 편곡, 미출판; “이스라엘의 구주”, 찬송가, 27장, 윌버그 편곡, Hinshaw 출판.

2012년 3월 31일 토요일 오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윌리엄 알 워커. 폐회 기도: 브루스 에이 갈슨 장로. 음악: 유타 주 프로보 MTC의 선교사 연합 합창단, 지휘: 더글러스 브렌츨러와 라이언 에겟트, 오르간 반주: 보니 굿리프: “하나님께 영광”, 찬송가, 49장, 마누킨 편곡, Jackman 출판; “어둠에 싸인 밤에”, 찬송가, 79장, 윌버그 편곡, Jackman 출판; “주 섬기라”, 찬송가, 145장;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찬송가, 18장, 윌버그 편곡, Jackman 출판

2012년 3월 31일 토요일 저녁 신권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최윤희 장로. 폐회 기도: 래리 알 로렌스 장로. 음악: 솔트레이크 대학교 종교 교육원 신권 합창단, 지휘: 홀 더블유 톰펠, 크레이그 앨런, 테니스 노드펠트의 지휘, 오르간 반주: 리처드 엘리엇: “고해 같은 인생길”, 찬송가, 67장, 룡허스트 편곡, Jackman 출판; “Carry On”, 영어 찬송가, 255장, 더햄 편곡, Jackman 출판; “너 이스라엘 장로는”, 찬송가, 200장; “사랑해 목자의 마음”, 찬송가, 144장, 비비 편곡, Larice 출판

2012년 4월 1일 일요일 오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브렌트 에이치 닐슨 장로. 폐회 기도: 페르 지 맘 장로. 음악: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클레이 크리스텐슨과 리차드

엘리엇: “오라 주의 자녀들”, 찬송가, 13장; “전지 전능하신 주님께”, 찬송가, 56장, 윌버그 편곡, Oxford 출판; “사랑의 빛 안에 걸어가고”, 찬송가, 192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 찬송가, 36장, “친절한 말들을 서로 하세”, 찬송가, 151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찬송가(1948), 70장, 윌버그 편곡, Oxford 출판

2012년 4월 1일 일요일 오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디이더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개회 기도: 더블유 크레이그 즈위크. 폐회 기도: 자이로 마자가르디. 음악: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린다 마켓츠와 보니 굿리프: “이 즐겁고 기쁜 날”, 찬송가, 38장, 머피 편곡, 미출판; “예수께 오라”, 찬송가, 77장, 머치 편곡, 미출판; “이스라엘 시온 군대”, 찬송가, 156장; “늘 함께 합소서”, 찬송가, 97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2012년 3월 24일 토요일 저녁 청년 총회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일레인 에스 돌튼. 개회 기도: 아비가일 피니거. 폐회 기도: 케이티 엘리자베스 가프. 음악: 유타 주 아메리칸 포크 지역 연합 스테이크 청년 합창단, 지휘: 메릴 웹, 오르간 반주: 보니 굿리프: “오라 주의 자녀들”, 찬송가, 13장, 윌버그 편곡, Jackman 출판; “As Zion's Youth in Latter Days”, 영어 찬송가, 256장, 카슨 편곡, Jackman 출판; “주 사랑 느껴요”, *어린이 노래책*, 42~43쪽; “Beautiful Savior”, *영어 어린이 노래책*, 62~63쪽; 웹 메들리 편곡, 미출판(첼로: 다프네 오 렐리안); “높은 산 언덕 위”, 찬송가, 2장.

대회 말씀 자료

여러 언어로 이용할 수 있는 연차 대회 말씀에 접속하려면 conference.lds.org에 접속하십시오. 그런 후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녹화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대회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배부 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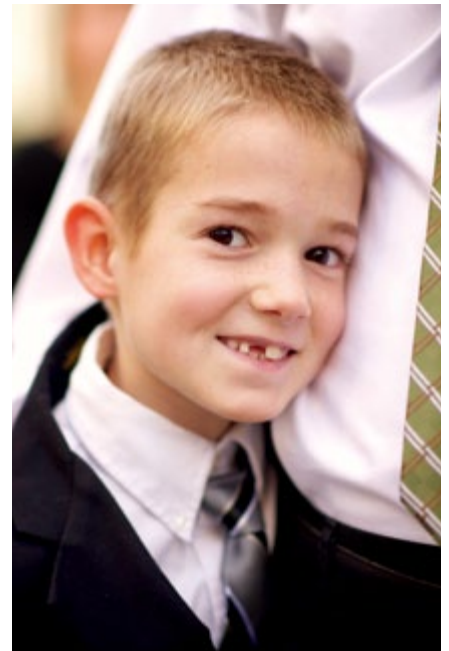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 메시지는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에 가장 잘 맞는 대회 말씀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표지

앞: 사진 촬영, 데릭 이스라엘슨. 뒤: 사진 촬영, 코디 벨

대회 사진

솔트레이크시티 연차 대회 장면: 크레이그 다이먼드, 윌턴 시 앤더슨, 존 루크, 매튜 라이어, 크리스티나 스미스, 레스 닐슨, 웨스턴 콜튼, 사라 젠슨, 데렉 이스라엘슨, 스코트 데이비스, 크리스티 조던, 랜디 폴리어; 알바니아: 레베카 애킨; 아르헨티나: 마리아노 가브리엘 카스탈로; 브라질: 로렌도 포체토와 산드라 로자도스; 영국: 존 크레스; 프랑스: 세바스천 몽거스; 괌: 수전 앤더슨; 과테말라: 조던 프렌시스; 미국, 아이다호: 루크 필립스; 인도: 마가렛 엘리엇; 미국, 미네소타 주: 론다 해리스; 러시아: 안드레이 세메노프



2012년 5월호, 제49권, 제5호
리아호나 10485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잡지임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십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라셀 엠 벨스,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라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폴 비 파이퍼

고문: 케시 알 에드워즈, 크리스토퍼 골든 이세, 퍼지 말콤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이트

편집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라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빌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애덤 시 울슨

공동 편집인: 수잔 배넷, 라이언 카

편집 스태프: 브리타니 비에디,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폴리트, 로리 폴러, 라켄 포터 곤트, 캐리 캐스틴, 리아 맥클라한, 멜리사 매릴, 마이클 알 모리스, 셸리 제이 오데커, 조슈아 제이 피키, 제드 이 페라스, 랜 핀보로우, 폴 벤덴버그, 마리아 에이 위디슨, 멜리사 전덴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누드슨

미술 책임자: 스코트 벤 캠펠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선일 디자이너: 시 캄볼 보트, 콜린 핑클리, 에릭 피 존슨,

스코트 엠 우이

제작 스태프: 콜레트 네베커 오운, 콘니 바슬프 브릿지,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캐슬린 하워드, 드니스 커비, 지니 제이 낄스, 게일 테이트 레퍼티

사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

배부 책임자: 에반 라슨

통 관: 제547호, 제49권, 제5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2년 5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원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church.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church.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1,0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3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iahona.lds.org 보내 주시기나 또는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에 실린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될,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2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May 2012 Vol. 36 No. 5,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연사 색인

닐 엘 앤더슨, 111
델린 에이치 옥스, 19
데이비드 에스 벡스터, 37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48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106
도널드 엘 홀스트롬, 13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86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27, 58, 70
래리 와이 윌슨, 103
러셀 엠 벨스, 77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80
로버트 디 헤일즈, 34
리처드 시 에즐리, 52
리처드 지 스코트, 45
메리 앤 쿡, 120
보이드 케이 패커, 6
오 빈센트 할레크, 101
앤 엠 답, 117
에이드리언 오초아, 55
엘 톨 페리, 94
엠 라셀 벨라드, 97
울리세스 소아레스, 39
일레인 에스 돌튼, 123
제프리 알 홀런드, 31
줄리 비 벡, 83
첼렛 에이 에스플린, 10
쿠엔틴 엘 쿡, 41
토마스 에스 몬슨, 4, 66, 90, 115, 126
폴 비 파이퍼, 109
폴 이 컬리커, 16
헨리 비 아이어링, 23, 62

주제 색인

가르침, 10
가족, 6, 16, 37, 41, 62, 70, 83, 97, 115
감사, 4, 77
개종, 13
결혼, 6, 97
경전, 41
게시, 45
관점, 90
교육, 120
교회 성장, 4
교회 조직, 13
구원, 94
구원의 계획, 13, 77, 80, 90
권세, 48, 86
덕, 123
모범, 16, 39, 55, 117, 123
물문경, 41, 94
복음, 13
봉사, 19, 34, 37, 58, 66, 83
부모의 본분, 6, 37, 103
부활, 90
비전, 101
사랑, 16, 106
사망, 90
상호부조회, 83
선교 사업, 16, 19, 101, 106
선지자, 83, 86
선택의지, 39, 103
성신, 10, 45, 58, 101, 109, 115
성약, 39, 62
성전 사업, 19, 34, 62

성찬, 34
속죄, 19, 31
순종, 39, 126
신권, 48, 52, 55, 58, 62, 66, 103
신성함, 109
신앙, 23, 37, 41, 83, 111, 126
아론 신권, 55
어린이, 6, 10
어머니의 본분, 37, 120
역경, 4, 23, 80, 94, 115
연차 대회, 4
영감, 45, 109
예수 그리스도, 19, 23, 31, 39, 77, 86, 90, 111
용기, 117
용서, 31, 70
우선순위, 97
의료음, 48
의무, 66
인내, 126
자립, 34
자비, 70
장애, 80
제자됨, 101, 111
지식, 120
탐욕, 31, 77
표준, 117, 123
한부모, 37
합당성, 55
활동 촉진, 52, 55, 106
회개, 70
희생, 19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다시 모이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의 필요 사항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대회 말씀을 취하는 동안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연차 대회로 다시 모인 여러분을 환영하며, 여러분에게 제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는 6개월마다 모여서 서로 강화하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신앙을 증진합니다. 우리는 배우려고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실망이나 상실감으로 괴로워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영을 느끼며 깨달음을 얻고 마음이 고양되며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삶에서 바꾸어야 할 점이 있다면 영감 어린 말씀을 들으면서 동기를 부여받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삶에 대한 각오를 새로이 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합당한 아들과 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계속해서 그 악에 대항합니다.

유구한 세계 역사상, 이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지상에 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모두가 한 지붕 아래로 모일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는 텔레비전, 라디오, 케이블, 위성 방송, 인터넷, 심지어는 이동 통신 기기를 통해서도 이 대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언어를 쓰고 여러 나라에 살지만, 하나의 신앙과 하나의 교리와 하나의 목적 아래 하나로 모였습니다.

182년 전, 우리의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세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이 위대한 대회는 계속 뻗어 나가 지금처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축복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명분도,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업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 다가오든 이 위대한 대업은 전진할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남긴 다음과 같은 예언적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록하지 않은 손은 이 사업을 정지시키지 못합니다. 박해가 심해지고 폭도들이 결탁하며, 군대가 소집되고 비난이 들끓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대담하고 고귀하게 앞으로 퍼져 나가 모든 대륙, 모든 나라에 파고들 것이며, 모든 귀 있는 자가 이 진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며,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이 일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¹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지만, 선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일들도 많습니다. 신앙개조 제13조에 나오듯이 “무엇이든지 유익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않[습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복음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서로에게 보이는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와드와 지부,



스테이크와 지방부에서 해 주시는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봉사가 있기에 주님께서는 이곳 지상에서 그분의 수많은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제가 어디에 가든 친절히 반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줄곧 그런 기도를 느꼈습니다. 그에 대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가르침과 영감을 받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를

동안 많은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연사들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하늘의 도움과 인도를 구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전할 말씀에 관해 영감을 받았습니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의 필요 사항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 대회 말씀을 취할 때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우리의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멘.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44쪽.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어린이가 그들을 이끌리니

남편과 아내가 각자 받은 첫 번째 부름은 서로에 대한 것이며, 그 다음이 자녀에 대한 부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 부름에서 절대로 해임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래 전 어느 추운 밤, 일본의 한 기차역에서 누군가가 제 침대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퐁퐁 부은 턱을 더러운 냅마로 싸매고 누더기를 걸친 한 소년이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온통 부스럼이 나 있었고, 손에 든 녹슨 깡통과 숟가락은 그 아이가 부모를 잃은 거지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소년에게 돈을 건네주려고 문을 열려 했는데, 그 사이에 기차는 그만 출발해 버렸습니다.

빈 깡통을 들고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떨던 그 작은 소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기차가 서서히 움직여 승강장에 소년을 남겨 두고 가야만 했을 때 느낀 무력감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페루 안데스의 고원 도시인 쿠스코에서 저는 에이 디어도어 터틀 장로님과 길가를 향해 난 어느 좁고 긴 방에 앉아 성찬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때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터틀 장로님이 말씀을 전할 때, 문가에 여섯 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한 작은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소년이 걸친 옷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누더기 셔츠 한 장뿐이었습니다.

우리 왼편에 있는 작은 탁자 위에는

성찬 빵을 담아 둔 접시가 있었습니다. 빵을 발견한 굶주린 길거리 고아는 벽에 붙어 접시를 향해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아이가 탁자에 거의 다다랐을 때, 통로 쪽에 앉은 한 여성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여성은 엄하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이를 받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신음했습니다.

조금 뒤에 그 아이는 되돌아왔습니다. 아이는 벽을 따라 미끄러져 들어오며, 빵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이가 그 여성에게 들길 만한 자리까지 왔을 때, 저는 양팔을 내밀었고, 아이는 제게로 뛰어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들어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서 저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아이를 터틀 장로님 자리에 앉혔습니다. 폐회 기도가 끝난 후, 그 배고픈 아이는 받거리를 향해 뛰쳐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 저는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님께 그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김볼 회장은 문클해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은 한 나라를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군요.” 김볼 회장은 제게 몇 차례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경험에 갖든 의미는 형제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큼니다.”

지금까지 백여 차례에 걸쳐 라틴 아메리카 국가를 방문하면서 저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그 소년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김볼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압니다.

저는 솔트레이크시티 거리에서도 추위에 떠는 또 다른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때도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성탄절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을 나서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닐곱 명 정도가 왈라지끼 걸며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 모두 추위를 피해 집에 있어야 했는데도 말입니다.

한 소년은 외투가 없었습니다. 소년은 추위를 면하려는 듯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그러다 골목길로 사라졌는데, 아마도 그 소년은 작고 허름한 아파트에서 따뜻하게 덮을 이불도 변변치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밤에 자리에 누워 이불을 덮을 때면 따뜻한 잠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당시에 저는 일본 오사카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전쟁 잔해만 남은 그 도시는 거리마다 온갖 조각들과 부스러기, 폭탄 구덩이로 어지러웠습니다. 나무들도 대부분 폭탄에 거의 다 파괴되었지만, 그래도 몇 그루는 가지와 몸통까지 산산조각이 난 채로 여전히 굳세고 씩씩하게 잔가지에서 잎을 피워 냈습니다.

그때 저는 다 해진 색동 기모노를 입고서 노란 플라타너스 잎을 부지런히 모아 다발을 만드는 한 작은 소녀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을 둘러싼 전쟁의 참상을 알지 못하는 듯 잔해 위를 뛰어다니며 새로 찾는 잎을 다발에 더했습니다. 소녀는 자신만의 세계에서 뭔가 아름다운 것을 찾았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의 세계에서 아름다운 부분은 바로 그 소녀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웬지 모르지만 그 아이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제 신앙은 깊어집니다. 그 아이를 통해 본 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물론은 “어린이들은 ……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기에]!”¹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세기가 바뀌던 시절, 미국 남부 산악 지대에서 선교 사업을 했던 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들은 언덕에서 그 아래 빈터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들은 가르칠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터라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익사한 어린이의 장례식이 막 시작되려던 참이었습니다. 부모는 아들을 위해 ‘추모사’를 해 줄 성직자를 모셨습니다. 그 순회 목사가 비통해 하는 부모를 보며 설교를 할 때, 선교사들은 그 뒤에 물러서 있었습니다. 그때 만일 그 부모가 성직자에게서 위안받기를 기대했다면 분명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성직자는 아이가 침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부모는 이런저런 일로 침례를 차일피일 미뤘는데, 이제는 너무 늦어 버린 것입니다. 성직자는 부모에게 아이가 지옥에 갔다고 매우 통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모두 부모의 책임이며, 그들 때문에 아이가 영원히 고통받게 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무덤을 덮은 후, 장로들이 비통해하는 그 부모에게 다가갔습니다. 선교사들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희는 두 분께 전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슬픔에 잠긴 부모는 귀를 기울였고, 두 장로는 현대의 계시를 읽어 주며 산 자와 죽은 자의 대속을 위한 열쇠들이 회복되었다는 간증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성직자에게서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빛과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많은 것을 전했어야 합니다. 바로 충만한 복음 지식 말입니다.

장로들은 위안하는 자이자 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 승인받은 성직자로서 그 부모에게 간 것입니다.

제가 다음 경전 구절에서 들어드릴 이 “자식들”이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모두를 나타냅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이요 …… [자식들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²

새 생명을 갖는 일은 결혼한 부부가 받은 큰 책임입니다. 합당하고 책임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은 필멸의 삶에 주어진 과제입니다. 어떠한 남자나 여자도 혼자서는 자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녀는 양친,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어떠한 방식이나 과정도 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전,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대학생 때 남자친구와 심각한 잘못을 범했다고 저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의 주도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머지않아 그들은 졸업을 했고, 결혼하여 자녀도 여럿 낳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가족, 아름다운 자녀들 사이에서 한 아이의 빈자리를 볼 때면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그 부부가 속죄를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그러한 경험과 고통이 지워질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삶은 원래 쉽거나 순탄하도록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회개, 그리고 용서에서 비롯되는 꺼지지 않는 희망은 언제나 수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젊은 부부는 제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방금 의사에게서 불임 진단을 받고 오는 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부는 많이 상심한 듯했습니다. 그때 제가 당신들은 사실 상당히 운이 좋은 것이라는 말을 하자 그 부부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부모가 될 수



있으면서도 거부하며 이기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부부들보다는 그들의 상황이 훨씬 더 낫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자녀를 원하고, 그 소망은 지상 생활과 다음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자녀를 원하는 소망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중국에는, 자녀를 원하지만 갖지 못하는 여러분은 자녀를 가질 수 있으면서도 거부하는 사람들에 비해 훨씬 나은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채로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를 낳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홀로 자녀를 키워야 하는 아버지나 어머니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일시적입니다. 의로운 소망과 갈망은 영원한 계획 안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필멸의 삶 너머에서 이뤄지더라도 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³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 복음 원리와 율법으로 보호받으며, 영원한 신권 성약으로 안전하게 인봉되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 받은 첫 번째 부름은 서로에 대한 것이며, 그 다음이 자녀에 대한 부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 부름에서 절대로 해임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깨닫게 되는 위대한 발견 중 하나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니라 자녀에게서 더 많이 배우게 된다는 점입니다. 부모들은 이사가야 예언한 진리, 즉 “어린이에게 끌리며”라는 말씀에 담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한 어린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⁵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⁶

우리는 물문경에서 신대륙을 방문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백성들을 치유하고 축복하신 후에 어린이를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물론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데려와 그를 둘러 땅에 내려놓는지라, 예수께서는 그 한가운데 서셨고, 무리는 그들을 모두 데려올 때까지 길을 비켜 주었더라.”⁷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어린이들 한가운데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기도를 드리신 후에 구주께서는 우셨으며,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다시 우[셨습니다.]”⁸

저는 구주께서 어린이들에게 느끼신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가르치려 하신 그분의 모범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저는 자녀가 열한 명인 가정에서 열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알기에 제 부모님은 교회에서 눈에 띄지 않는 부름에 봉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모라는 부름에 충실히 봉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거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일 없이 가정을 의로움으로 이끄셨습니다. 아버지의 강력한 모범은 어머니의 부드러운 권고가 더해져 한층 빛났습니다. 복음은 패커 집안 내 모든 사람들의 삶에 강한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다음 세대에도, 또 그 다음, 그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만큼만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잘 하였고다”라는 말씀을 듣기에 앞서, 제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먼저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활동이 저조하다고도 할 수 있는 부친 아래에서 자랐는데도 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지, 나아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까지 부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수없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십이사도 중에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저 혼자만이 아닙니다.

마침내, 저는 제가 부름 받은 것이 바로 그런 환경 때문이었을지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왜 우리가 지도자로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신권 지도자는 교회 가족이 서로 친밀해지도록 세심하게 돌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산다는 것에는 각종 출석 기록이나 도표로는 측정할 수 없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건물, 예산, 프로그램, 절차 등과 관련된 각종 업무로 바쁩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뜻을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패커 회장님, 이러저러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대개 말을 그만 하게 하고 “아니요.”라고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나올 말이 가족에게 시간과 재정 면에서 부담을 줄 새로운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일 것이란 생각 때문입니다.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신성하며, 우리는 그 시간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원 여러분에게 자신의 가족에게 헌신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내와 저는 결혼하면서 함께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자녀와 함께 그 아이의 출생과 성장에 따르는 책임도 함께 받아들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저희 자녀들도 이제는 각자 가족을 이뤘습니다.

저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중 두 아이는 의사에게서 “살 가망이 없을 것 같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는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를 위해 기꺼이 생명이라도 바치겠다는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해 느끼시는 마음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고귀합니까!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패커 자매와 저는 가족이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그것을 증거합니다. 계명에 순종하고 복음대로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보호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큰 가족을 만들어 가는 저희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 증손녀 모두가 자신에게 태어날 소중한 어린 자녀를 향해 그와 같이 헌신하는 마음을 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여러분, 또다시 갓난 아이를 품에 안을 기회가 찾아올 때, 여러분은 삶의 신비와 목적을 들여다보는 내면의 시각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가 지금과 같이 있는지, 왜 가정이 현세와 영원을 두고 가장 기본적인 조직인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되며, 행복의 계획이라 불리는 구속의 계획은 가족을 위한 계획임을 증거합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가족들이 부모와 자녀로서 축복을 받고, 이 사업이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전진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주

1. 모로나이서 8:12.
2. 시편 127:3, 5.
3. 고린도전서 15:19.
4. 이사야 11:6.
5. 마태복음 18:2~4.
6. 마태복음 19:14~15.
7. 제3니파이 17:12.
8. 제3니파이 17:21~22.
9. 제3니파이 17:24.



체럴 에이 에스플린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2보좌

자녀가 이해하도록 가르치며

자녀가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전수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녀가 교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일도록 돕는 일입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삶에서 일어났던 많은 세세한 일들이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갑니다. 그럼에도 각 자녀가 태어나던 순간은 매우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늘이 무척 가깝게 느껴졌는데, 소중한 아기를 품에 안을 때마다 경험한 그 경건하고 경이로운 감동은 지금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여호와와 의 기업을[입니다.]”(시편 127:3) 하나님께서는 각 자녀를 아시고 완전한 사랑을 주십니다.(모로나이서 8:17 참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인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은 참으로 신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뛰어난 영들이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신 자신들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돕는 일에 우리를 동반자로 부르셨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신성한 특권은 주님의 도움 없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가 그분 면전에서 돌아가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전과 그분의 선지자와 성신을 통해 어머니와 아버지들에게 구체적인 가르침과

인도를 주십니다.

후기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부모들에게 자녀가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침례, 성신의 은사에 관한 교리를 이해하도록 가르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단순히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가 “교리를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명하신 점을 주목하십시오.(교리와 성약 68:25, 28 참조; 기율임제 추가)

시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시편 119:34)

자녀가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전수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녀가 교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 교리가 자신의 일부가 되고 삶에서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돕는 일입니다.

니파이는 성신의 역할이 진리를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에 전[하는 것]”(니파이후서 33:1)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부모로서 우리의 역할은 최선을 다해 자녀가 영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들이 느끼는 것을 인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 딸 미셸에게서 전화를

받았던 일이 생각납니다. 딸은 애정 어린 목소리로 “엄마, 방금 애슐리랑 아주 굉장한 경험을 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애슐리는 미셸의 딸로, 당시 다섯 살이었습니다. 미셸은 그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애슐리와 세 살 난 앤드루가 서로 다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아이가 가진 것을 나누지 않으려 해서 다른 아이가 때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셸은 둘 사이를 정리한 다음, 아기를 살펴보러 갔습니다.

잠시 후, 여전히 나누지 않고 독차지하는 앤드루에게 뿔이 난 애슐리가 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미셸은 애슐리에게 가정의 밤에서 서로에게 더 친절하기로 약속했던 것을 일러 주었습니다.

미셸은 애슐리에게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해 보겠느냐고 했지만 여전히 화가 잔뜩 난 애슐리는 “싫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느냐고 묻자 애슐리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셸은 한번 해 보자고 말하며 부드럽게 딸의 손을 잡고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셸은 하나님 아버지께 앤드루가 물건을 나눠 쓰도록 도와주시고 애슐리가 친절해지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해 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동생이 물건을 나눠 쓰도록 도와주신다는 데 솔깃했는지 애슐리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애슐리는 먼저 앤드루가 물건을 나눠 쓰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친절해지도록 도와 달라고 간구하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애슐리는 기도를 끝내고 엄마 어깨에 머리를 파묻었습니다. 미셸은 딸아이를 안고 왜 우는지 물었습니다. 애슐리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셸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네가 왜 우는지 알 것 같아. 마음속에 좋은 느낌이 드니?” 애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그런 마음을 느끼도록 돕는 것이 바로



영이란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시며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방식이란다.” 하고 미셸이 말했습니다.

미셸은 딸에게 그 말을 믿는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도와주시리라고 믿는지 물었습니다. 애슬리는 조그마한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때로 자녀가 교리를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녀가 겪는 상황 속에서 곧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은 미리 계획하지 않은 일상적인 가족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러한 순간은 금세 왔다 사라지므로 우리는 자녀가 의문이나 걱정을 안고 찾아올 때, 형제자매나 친구와 문제가 있을 때, 화를 다스려야 할 때, 실수할 때, 혹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와 같은 가르칠 기회를 의식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복음 교육을 위한 참고**

지도서[1999], 140~141쪽; 결혼 및 가족 관계 교사 교재[2000], 61쪽 참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영의 인도를 따른다면, 자녀는 더 효과적으로 배우고 이해할 것입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가족 기도, 가족 경전 공부, 가정의 밤, 기타 가족 활동과 같이 일상적인 일들을 신중하게 계획할 때 생기는 가르칠 기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가르침을 줄 때 영이 함께하는 따스하고 사랑이 깃든 분위기라면 모든 배움과 이해가 극대화됩니다.

한 아버지는 자녀들이 여덟 살이 되기 두 달 전쯤부터 매주 시간을 정하여 아이가 침례를 준비하도록 도왔습니다. 딸은 자신의 차례가 되자 아버지가 자신에게 일지를 주었고, 함께 앉아 복음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에 관한 느낌을 나누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시간 동안 딸에게

어떤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 그림에는 전세와 현세,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 밟아야 할 각 단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구원의 계획에 있는 각 단계를 가르치며 그에 대한 간증을 전했습니다.

훗날 딸은 이 경험을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시간을 보내실 때 제가 느낀 사랑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 제가 침례 받을 당시에 복음에 대한 간증이 생긴 것도 다 그 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29쪽)**

자녀가 이해하도록 가르치려면 단호하고도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교훈과 모범으로, 특히 자녀가 배운 바를 실천하도록 도우며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럴드 비 리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실제로 복음 원리대로 행함으로써 경험하기 전에는 그 원리를 믿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2000], 121쪽)

저는 가족 기도 시간에 가족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처음으로 기도를 배웠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기도를 듣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 처음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사용하는 말들을 배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그분께 인도를 구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식사 전에 저희를 식탁 주위로 모으셨고, 함께 무릎을 꿇고 가족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끼니마다 기도했습니다. 밤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실에 함께 무릎을 꿇고 가족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린이였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많았지만 기도는 그렇게 제 삶의 한 부분이 되어 늘 저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있으며, 기도의 힘에 대한 이해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일의 성공 여부는 그 메시지를 가르치는 것과 이해하는 것, 그런 다음 약속된 행복과 구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방법에 따라 생활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교회에서의 가르침과 배움”[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7년 2월 10일], 리야호나, 2007년 6월호, 57쪽)

복음 교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배움은 평생에 걸친 과정이며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니파이후서 28:30) 이루어집니다. 자녀가 배우고 그 내용을 실천하면서 이해가 깊어질 것이며, 나아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실천하며 훨씬 더 크고 오래 지속되는 이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외적인 위협이나 보상 없이도 태도와 행실에서 교리가 드러날 때 자녀가 교리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복음 교리를 조금씩 이해함에 따라 좀 더 자립하게 되고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해결책의 일부가 되며 가정환경과 가족의 성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합니다.

우리는 모든 가르칠 기회를 포착하고, 영을 초대하며, 모범을 보이고, 자녀가 배운 원리를 실천하도록 도움에 따라 자녀가 이해하도록 가르치게 됩니다.

조그마한 어린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면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
나 비록 어려도
말씀해 주신 복음을
알게 해 줍소서

길을 찾아 가게 저를
도와주소서
주와 함께 살도록
가르쳐 주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장;
기울임체 추가)

우리가 그렇게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
칠십인 회장단

주님의 교회를 통해 그분의 복음으로 개종하십시오

교회가 있는 목적은 우리가 복음대로 살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과 '교회'라는 말을 혼용합니다만, 그 둘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둘은 절묘하게 연결되며, 우리는 그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광스러운 계획입니다.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그 계획을 통해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84:38 참조) 이것은 영생이라고 불리며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교리와 성약 14:7)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서 지극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상에서 하는 경험, 즉 신앙을 키우고(모로나이서 7:26 참조) 회개하며(모사이야서 3:12 참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야곱서 4:11 참조) 시간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또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니파이후서 2:11)이 있어서 이 지상 생활이 심히 어려울 것이기에, 또한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는 구주가 있어야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엘로힘께서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한 분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아브라함서 3:2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였습니다.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신 그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지상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필멸 상태에 따라 고통과 고난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위대한 신 여호와께서는 또한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셨으며 그에 더하여 메시아, 곧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뜻하는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성취하신 일의 절정은 속죄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아래로 …… 내[려가서서]”(교리와 성약 88:6) 우리 각자를 위한 구속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행하시는 동안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에베소서 2:20) 세워졌습니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교리와 성약 128:18)인 이 시기에 주께서는 과거에 있었던 그 교회를 회복하시며 구체적으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는 네 손으로

교회를 세우리니”(교리와 성약 31: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그분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오늘날 지상에서 사도의 권세를 받은 선지자들이 그분을 대표합니다.

이 교회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교회를 진지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교회 조직, 효율성, 그 선한 영향력에 감동을 받습니다. 교회에는 어린이, 청소년, 남성과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8,000여 개에 이르는 아름다운 집회소가 있습니다. 전 세계 136곳에 웅장한 성전이 있으며, 건축이 발표되었거나 진행 중인 곳은 30군데입니다. 젊은이와 나이 드신 분들로 구성된 56,000명 이상의 전임 선교사가 150개국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행하는 교회의 인도주의적 사업은 회원들의 관대함을 여실히 보여 줍니다. 우리의 복지 시스템은 세상의 여타 구호기관에서 볼 수 없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돌보고 그들의 자립을 도모합니다. 이 교회에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기꺼이 서로를 위해 훌륭히 봉사하려는 평신도 지도자와 성도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가족은 훌륭하고 유서 깊은 교회 집회소 중 하나인 호놀룰루 태버네클 경내의 조그마한 별채에서 살았습니다. 교회 시설을 관리하시는 사랑하는 감리 감독단 여러분께 이제서야 사과를 드립니다. 당시 어린 소년이었던 저는 물 웅덩이 바닥부터 웅장한 조명이 들어오던 천장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그 뜰에 있던 커다란 반얀나무 덩굴을 마치 타잔처럼 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우리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모임에 갔습니다. 목요일 오후에는 초등학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상호부조회 모임은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청소년

상호향상모임은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워드 활동이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전이면 성인 남성과 청년들은 신권회에 갔습니다. 정오에는 주일학교에 참석했습니다. 그런 뒤, 저녁에 성찬식을 하러 다시 교회로 갔습니다. 그렇게 여러 모임에 가고 오면서 일요일은 하루 종일, 그리고 주중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 활동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사랑했던 만큼, 저는 소년 시절에 처음으로 그저 모임에 참석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섯 살 때, 그 예배당에서 큰 대회가 열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당시 살던 작은 집 앞으로 난 길을 따라 내려와서 작은 다리를 건너 웅장한 집회소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예배실에서 열 번째 줄 정도에 앉았는데, 교회 회장이신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께서 그 모임의 감리자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생생합니다. 맥케이 회장님은 크림색 양복을 입으셨으며 물결처럼 굽이치는 백발에서 위엄과 당당함이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하와이 전통에 따라 붉은 카네이션 화환을 목에 걸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할 때, 저는 뭔가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중에야 저는 그것이 성령의 영향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회 찬송으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의 편에 선 자 누구냐?
 지금이 나타내 보일 때
 우리는 당당히 요구하리
 주님의 편에 선 자 누구냐?
 ("Who's on the Lord's Side?", 영어 찬송가, 260장)

그때 거의 2천여 명이 함께 부른 그 노래 가사가 마치 저 자신에게 묻는 것처럼 들렸고, 저는 일어서서 "저예요!"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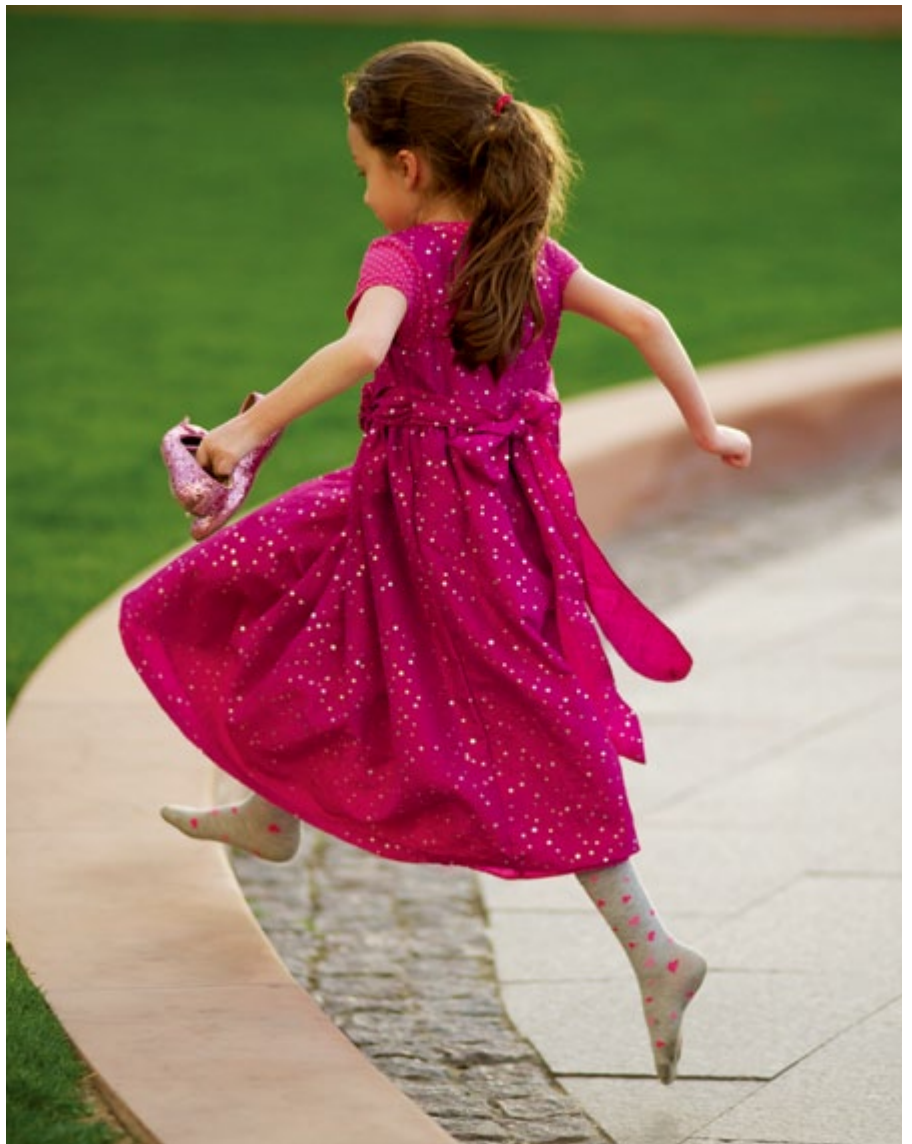
말하고 싶었습니다.

교회에서 활동 회원이 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교회에 활동적이면서도 복음에는 저활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교회에 활동적인 것은 매우 바람직한 목표이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 활동은 우리의 영적 소망에 대한 외적 표시입니다. 모임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책임을 맡아 수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우리가 활동 회원이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드러납니다.

이와는 반대로, 복음에 관한 것은 보통 잘

드러나지 않으며 측정하기도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원의 측면에서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큼니까? 얼마나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복음 의식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띠니까? 우리가 맺은 성약에 우리는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복음과 교회가 모두 필요합니다. 사실, 교회가 있는 목적은 우리가 복음대로 살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청소년 때 교회에서 완전히 활동적이던 사람이 어떻게 성인이 되어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하고 봉사하던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안 나올 수 있을까? 지도자나 다른 회원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어떻게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 아마도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 즉 영원에 관한 것에 완전히 개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우리의 토대로 삼는 세 가지 중요한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1. **절대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십시오.**
 신뢰를 구성하는 세 분에 대한 사랑과 지속적인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해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고 성신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기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숙고하는 것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계속 키워 나가십시오. “대저 사람이 …… 자기에게 외인이며, 자기 마음의 생각과 의도에서 먼 주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모사이야서 5:13)
2. **의식과 성약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아직 받지 못한 필수 의식이 있다면 그 의식을 받도록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그런 다음 매주 참여하는 성찬의 은사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가 맺은 성약에 충실하게 생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거룩한 성찬 의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가 결핍된 나머지, 성결하게 하는 성찬의 힘으로 자신을 정기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복음과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복음에 집중하면, 교회는 우리 삶에 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기]”(교리와 성약 88:118) 위해 준비된 상태로 모임에 온다면, 성령이 우리의 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즐기러 온다면, 종종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스펜서 더블유 킴벌 회장님은 이런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성찬식이 지루하다고 생각되실 때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런 적이 없어요.”(quoted by Gene R. Cook, in Gerry Avant, “Learning Gospel Is Lifetime Pursuit,” *Church News*, Mar. 24, 1990, 10)

주님께서 신대륙 백성에게 오셔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신 후 있었던 일들이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같이 그들, [즉 주님의 제자들이 모든 니파이 백성 가운데 나아가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이 주께로 돌이켜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하였고, 그리하여 예수의 말씀대로 그 세대의 백성들이 복을 받으니라.”(제3니파이 28:23)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교회 회원들이 그분의 복음으로 온전히 개종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지금 영적인 안전을 얻고 영원토록 행복해지는 확실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폴 이 켈리커 장로
칠십인 정원회

그분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늘에서 제정된 이 가족이라는 모형 덕분에 우리는 모든 이에게 공평하고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사랑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신앙과 희망, 거짓 없는 자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교 사업은 마치 18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삶의 축소판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교사들은 배우려는 진지한 열망을 지닌, 영적인 아기와 같은 상태로 임지에 도착하지만, 나중에는 눈 앞에 놓인 모든 과제를 정복할 준비가 된 듯한 성숙한 어른이 되어 귀환합니다. 저는 또한 인내와 지혜, 평온한 확신으로 가득한 헌신적인, 연로한 선교사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함께 봉사하는 젊은 선교사들의 활력에 확고함과 사랑이라는 은사를 더해 줍니다. 젊은 선교사들과 부부 선교사들은 모두 선을 위한 강하고 끈기 있는 군대로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봉사로 마음이 움직인 다른 이에게도 깊은 영향을 줍니다.

최근 저는 훌륭한 두 젊은 선교사가 자신들이 경험하고 노력한 일을 돌아보며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긴 선교사들은 그날 만난 사람 중 좀 더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 더 배우고 싶은 소망을 키우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주님의 영을 느끼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저는 마음속으로 이 청년들이 선교 사업을 마친 뒤 3~4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원한 동반자를 만나고 장로 정원회에서 봉사하거나 청년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그려 보았습니다. 그들은 구도자들을 생각하는 대신 보살피도록 부름 받은 자신의 정원회 일원이나 청년들에 관해 똑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선교 사업 경험은 그들이 여생 동안 사람들을 보살필 때 적용할 모형이 될 것입니다. 의로운 제자들로 이루어진 이 군대가 선교 임지에서 세계 여러 나라로 돌아가면, 이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업에서 중요한 공헌자가 됩니다.

물론경에 나오는 선지자 리하이도 자신이 받은 지시와 시현에 대한 아들들의 대답을 들었을 때 그 선교사들이 했던 똑같은 질문으로 고심했을 것입니다. “이같이 레이먼과 레뮤엘은 연장자들이면서도, 참으로 그들의 부친을 거스려 불평하였나니, 그들이 불평한 것은 그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니파이전서 2:12)

리하이가 두 큰 아들에 대해 느꼈던 좌절감을 우리도 느껴 본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자녀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구도자, 동조하지 않는 수련 장로를 대할 때면 리하이와 같은 감정을 강하게 느끼게 되며, “어떻게 그들이 영을 느끼고 따름으로써 세상의 혼란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울 수 있을까?” 하고 묻게 됩니다. 이런 혼란을 이겨 내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느낄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두 가지 경전 구절이 생각납니다.

니파이의 경험은 배움의 문을 여는 열쇠를 알려 줍니다. “나 니파이는 ……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심히 원하였던지라, 이리므로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보라, 그가 나를 찾아오사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으므로 나는 나의 부친이 하신 말씀을 모두 믿었느니라. 그리하여 나는 나의 형들처럼 부친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느니라.”(니파이전서 2:16)

무언가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자각할 때, 하늘의 음성을 들을 영적 능력이 갖추어집니다. 이런 열망을 자각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은 선교사와 부모, 교사, 지도자, 회원 등 우리 각자의 과제이자 책임입니다. 마음에서 꿈틀대는 열망을 느낄 때, 그것은 다음의 두 번째 경전 구절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그로부터 유익을 얻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초기 지도자들에게 부름이 확대되어 나가던 1831년 6월, 조셉 스미스는 “사탄이 땅에 널리 퍼져 있어 민족들을 속이며 나아[간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혼란의 영향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속임을 받지 않도록 …… 범사에 있어 한 가지 규범을”(교리와 성약 52:14)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규범은 하나님의 목적과 함께하게 해 주는 모형이자 안내, 반복되는 단계, 또는 따라가는 길입니다. 규범을 따르면, 우리는



계속 겸손하게 깨어 있을 수 있으며,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다른 길로 인도하려는 목소리와 성령의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권능 아래 떠는 자는 강하게 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준 여러 계시와 진리를 따라 찬양과 지혜의 열매를 맺으리라.”(교리와 성약 52:17)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의도로 드리는 겸손한 기도는 마음에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필멸 상태로 태어나기 전에 알았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배우고 이해하도록 도와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복음대로 생활하고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이 계획을 기억하도록 돕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규범 안에서 복음대로 생활하면, 다른 사람을 돕는 우리의 능력은 커집니다. 이제 이런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 주는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두 선교사가 메시지를 받아들일 사람을 찾기를 소망하며 어느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리고 다소 체격이 큰 남자가 나와서 불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 문을 다시는 두드리지 말라고 말한 것 같은데요. 우리 집에 다시 온다면 좋지 않을 거라고 이전에 경고했잖아요. 나 좀 혼자 내버려 뒀어요.” 그는 얼른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발길을 돌려 나오는데, 더 경험이 많고 오래 봉사한 장로가 자신보다 어린 선교사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 남자는 선교사들이 자기 말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창문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사들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보인 무례한 행동을 비웃거나 가볍게 생각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두 선교사가 서로에게 표현하는 친절한 모습을 본 남자는 마음이 금세 부드러워졌습니다. 남자는 다시 문을 열고 선교사들에게

메시지를 나누어 주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그분의 영을 느끼도록 그분이 주신 규범대로 살 때 일어납니다. 구주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한복음 13:35)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이 원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데에서 기본이 됩니다.

우리가 이 열망을 깨달으면 약속된 규범을 찾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규범을 찾고자 노력하면 구주와 그분의 선지자, 즉 지도자들이 가르친 그리스도의 교리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이 교리의 한 가지 규범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 날에 나의 시온을 세우려 힘을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성신의 은사와 권능을 얻을 것임이라. 또 그들이 끝까지 견딜진대 마지막 날에 들리울 것이요, 어린 양의



영원한 왕국에서 구원받으리니”(니파이전서 13:37)

성신의 은사와 권능을 누리려면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될 때 얻게 되는 힘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구주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고 가르치며 사랑의 본을 정하셨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께서서는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권고도 아니고 단순한 소망도 아닙니다. 이것은 계명입니다. ……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모든 덕과 모든

선함과 모든 훌륭한 성품과 의를 행하고자 하는 모든 충실함의 뿌리입니다.”(“살아 있는 선지자의 말씀”, 성도의 벗, 1996년 12월호, 8쪽)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적용하며 사랑의 힘을 이해하게 도와주는 가족의 모형이 제정되었습니다. 제 가족이 조직되던 그날, 저는 사랑하는 앤과 성전에 가서 결혼 성약을 맺었습니다. 그날 제가 얼마나 많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라는 모습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녀와 손자, 손녀가 한 명씩 우리 삶에 더해질 때마다 우리의 사랑은 부풀어 그들 각자에게 공평하고 충만하게 나눠 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용력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는 사랑의 느낌은 마치 하늘에서 끌어당기는 인력 같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혼란을 없애고 주님을 찾는 데 우리의 선택의지를 사용한다면, 우리 마음은 우리를 주께로 이끌어 주는 하늘의 힘을 향해 열리게 됩니다. 니파이는 그 충격을 “나의 육체가 소멸되기에 이르게 하셨도다”(니파이후서 4:21)라고 묘사했습니다. 그와 동일한 사랑의 힘 때문에 엘마는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엘마서 5:26; 또한 9절 참조)를 불렀습니다. 그와 같은 감명을 받은 물문은 우리에게 “마음의 힘을 다해 …… 기도하여”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라고 조언했습니다.(모로나이서 7:48)

현대와 고대 경전에는 모두 그분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상기시키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두 팔을 벌리고 계시며, 우리 개개인을 얼싸안으시고, 조용하지만 마음을 꿰뚫는 목소리로 “너를 사랑한다.” 하고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고 확신합니다.

하늘에서 제정된 이 가족의 모형 덕분에 우리는 모든 이에게 공평하고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사랑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됨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한 장소에 관한 통찰력을 주셨으며, 선지자와 사도들을 부르시어 우리가 다시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는 원리와 규범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 소망을 일깨우려고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모형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모범이시며 사랑하는 구속주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희생

주님과 우리 이웃을 섬기겠다는 결심은 봉사하고 희생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가장 적절하게 표현됩니다.

예 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은 “창조에서부터 무한하고 영원한 세월에 이르기까지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 불립니다. 그 희생은 모든 선지자가 전하는 주요 메시지입니다. 속죄 희생은 모세 율법에서 요구하는 동물 희생으로 예시되었습니다. 한 선지자는 동물 희생에 담긴 의미는 바로 “[참으로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 아들의] 크고도 마지막이 되는 희생”(엘머서 34:14)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희생을 치르고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흠 없는 순결한 어린 양, 지극히 선하신 분이 온 세상의 죄라는 극악을 위해 바쳐졌습니다. 엘리자 알 스노우가 남긴 인상적인 노랫말에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귀한 피 흘리시어서
생명 버리시니
죄인 위한 돌아가심
세상 구하셨네²

그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구원의 계획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심으로써 피를 흘리는 희생은 끝났지만, 복음 계획에서 희생의 의미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희생하도록 요구하시는데, 이제 그분이 명하시는 희생은 바로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그분께] 희생으로 드리는”(제3니파이 9:20)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시간과 이기적인 우선순위를 희생하여 그분이 치르신 희생을 작게나마 모방해 보라고 명하십니다. 영감 어린 찬송가를 부를 때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희생은 하늘 축복 가져오나니”³ 저는 구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러한 필멸의 희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나 희생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이 그 동기가 되는 행동 또는 강제로 하는 희생은 배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니파이후서 26:29 참조)

I. 기독교 신앙의 역사는 궁극적인 희생을 포함해 희생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시대 초기에 로마 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이유로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 후 여러 세기 동안 교리적 논쟁으로 기독교계가 분열되면서 일부 교파가 다른 교파의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심지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기독교인의 손에 죽임을 당한 기독교인들은 가장 참혹한 순교자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을 섬기려는 소망에 따라 자발적으로 희생을 바쳤습니다. 그중 일부는 성인이 된 후 주님을 위한 봉사에 온 생애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 고귀한 사람들 중에는 가톨릭 교회의 여러 조직에 속한 이들과 다양한 개신교에서 선교사로 평생 봉사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그들의 모범은 우리에게 도전을 위한 자극과 영감을 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생을 종교적인 봉사에 바칠 여력이 없고, 또 그렇게 요구받지도 않습니다.

II.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대부분에게 희생은 일상생활에서 매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취지에서 본다면, 제가 알기에 후기 성도들보다 더 많은 희생을 하는 단체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 즉 형제 자매 여러분의 희생은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 흔히 하는 세속적 추구와는 참으로 대조됩니다.

첫 번째 예로 물론 개척자들을 꼽고 싶습니다. 생명과 가족 관계, 집과 안락함을 포기한 그들의 위대한 희생은 회복된 복음의 토대입니다. 세라 리치는 남편 찰스가 선교 사업을 위해 집을 떠나던 장면을 묘사하며 이 개척자들을 이끈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기는 진정으로 나와 내 남편에게 힘겨웠다. 이제 이 임무로 우리가 잠시 서로 떠나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기에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이 사업을 돕고자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 두기로 했다.”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힘은 회원들의 비이기적인 봉사와 희생입니다. 성전 중 하나가 헌납되기 전, 어느 목사님이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에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보편적인 상징인 십자가가 없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힝클리 회장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우리 회원들의 삶”⁵으로 상징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과 우리 이웃을 섬기겠다는 결심은 봉사하고 희생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가장 적절하게 표현됩니다.

III.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는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고 봉급을 받는 성직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중을 이끌고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평신도들이 수많은 교회 모임과 프로그램과 활동을 모두 관리해야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이런 방식으로 14,000개 이상의 교회 조직이 인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평신도가 교사나 평신도 지도자로서 봉사하는 것이 우리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회원들이 다른 사람을 훈련하고 보살피기 위해 사용하는 시간의 양은 독보적으로 많습니다. 회중에 속한 각 가족이 매월 가정 복음 교사의 방문을 받고 각 성인 여성이 매월 상호부조회 방문 교사의 방문을 받도록

우리가 들이는 노력이 그 예입니다. 세상의 어느 조직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봉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후기 성도만의 독특한 봉사와 희생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선교사들의 봉사입니다. 현재 5만 명이 넘는 젊은 남녀와 5천 명 이상의 성인 남녀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160개국 이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인도주의적 봉사를 하기 위해 6개월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바칩니다. 그들의 봉사에는 늘 희생이 수반되는데, 여기에는 주님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 시간과 더불어 그 일을 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데 들인 희생도 포함됩니다.

집에 남아 있는 부모와 가족 역시 선교사로 나간 자녀와 함께할 수 없고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희생을 치릅니다. 예를 들면, 브라질에 사는 한 젊은이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자매를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하던 중에 선교사 부름장을 받았습니다. 한 총관리

역원은 이 자녀들이 가족 회의를 하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가르치신 것을 기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였고 열여섯 살이 된 남동생이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대신 맡기로 했습니다.⁶ 우리 중 대부분이 선교사로 봉사하거나 선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희생을 하는 예를 많이 압니다. 세상의 어느 조직이 이와 같은 자발적인 봉사와 희생을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젊은이들과 연로한 회원들이 학업이나 은퇴 생활을 뒤로하고 그런 희생을 하도록 어떻게 설득합니까?” 저는 많은 분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구주께서 저를 위해 하신 일, 곧 저의 죄를 위해 고통당하신 그분의 은혜와, 제가 다시 살도록 사망을 극복하신 것을 알기에 저는 그분의 일을 하도록 요청을 받고 작은 희생을 치르는 것을 특권으로 여깁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봉사하라고 어떻게 설득하느냐고요? 선지자가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저]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⁷

선교사 봉사에서 기인하는 또 다른 희생은 선교사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교회 회원이 되는 분들의 희생입니다. 많은 개종자에게 이러한 희생은 매우 커서, 친구나 가족 관계를 잃기도 합니다.

파트시아, 과테말라



여러 해 전 연차 대회에서 미국 유학 중에 회복된 복음을 알게 된 어느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가 본국으로 돌아가려 할 때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기독교인이 되어 귀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젊은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 가족은 실망하겠죠. 아마 저를 쫓아내고, 저를 죽은 자식으로 여길지 모릅니다. 저의 미래와 경력에 있어서도 모든 기회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기꺼이 치르시겠습니까?”

그러자 젊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복음이 참되지 않습니까?” 그 젊은이는 그렇다는 답을 듣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⁸ 이것이 우리의 많은 새로운 회원들이 지닌 희생 정신입니다.

봉사와 희생의 또 다른 예를 성전에서 봉사하는 충실한 회원의 삶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전 봉사는 후기 성도에게만 있는 독특한 것이지만 그 희생의 의미는 모든 기독교인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기 성도에게는 수도원 봉사와 같은 전통이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종교 활동에 삶을 바치는 분들의 희생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열린 연차 대회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성전 봉사와 관련한 희생의 모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태평양에 있는 외딴 섬에 사는 한 충실한 후기 성도 아버지는 아내와 열 자녀를 뉴질랜드 성전에 데려가 영원한 결혼을 하고 인봉을 받기 위한 경비를 마련하려고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서 6년간 고된 일을 했습니다. 몬슨 회장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받는 영원한 축복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으며, 어떠한 대가도 감내할 수 있고, 어떠한 고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합니다.”⁹

저는 후기 성도 여러분이 보여 주신

기독교인다운 사랑과 봉사와 희생의 놀라운 모범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시간과 자원을 크게 희생하면서까지 교회 부름을 수행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자비를 들여 선교 사업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데 전문적인 기술을 기쁘게 활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개인적인 노력과 교회 복지 및 인도주의 기부를 통해 가난한 이들을 돌보시는 것을 봅니다.¹⁰ 이 모든 것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 확인되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활동 회원은 “보통 미국인보다 훨씬 더 많이 봉사하고 기부하며, 미국의 [상위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종교인들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봉사하고 돈을 기부한다.”¹¹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그러한 모범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주의 다음 가르침을 떠올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태복음 16:24~25)

IV.

아마도 비이기적인 봉사와 희생 중 가장 친숙하고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가정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데 헌신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전념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영원토록 중요한 이 봉사에 수반되는 희생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익숙한 것들입니다.

또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포함하여 자녀를 입양하거나 위탁받아 아이를 돌보며 그들이 기존 환경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희망과 기회를 심어 주기 위해 노력하는 이타적인 후기 성도들을



봅니다. 선천적 결함, 정신적·신체적 질병, 노령에 따른 불편을 겪는 가족이나 이웃을 돌보는 여러분을 봅니다. 주님 역시 여러분을 보고 계시며 “여러분이 서로 또 자녀를 위하여 희생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¹²것임을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선언하셨습니다.

저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구주를 본받아 비이기적으로 봉사하고 희생하는 후기 성도들이 다른 어느 단체 사람들보다도 더 영원한 가치를 고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후기 성도들은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희생하는 것을 영원을 위한 수업과 자격을 갖추는 한 방법으로 봅니다. 이 진리는 *Lectures on Faith*(신앙에 관한 강의)에 밝혀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종교는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데 필요한 신앙을 갖게 하는 충분한 힘이 없습니다. …… 하나님은 그러한 희생, 오직 그것만을 통해 인류가 영생을 누리도록 규정하셨습니다.”¹³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이 구원의 계획 중심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그 계획을 통해 우리에게 마련된 운명을 준비하기 위하여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심을 압니다. 우리는 그분의 속죄 희생으로 불멸에 대한 확신과

영생에 이를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요, 구주요,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저의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주

1. Bruce R. McConkie, *The Promised Messiah: The First Coming of Christ*(1981), 218.
2. “하나님 지혜와 사랑”, 찬송가, 107장.
3.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찬송가, 18장.
4. Sarah Rich, in Richard E. Turley Jr. and Brittany A. Chapman, eds., *Women of Faith in the Latter Days: Volume 1, 1775-1820* (2011), 283.
5. 고든 비 힝클리, “우리 신앙의 상징”, *리아호나*, 2005년 4월호, 3쪽.
6. 해롤드 지 힐렘 장로, “봉사를 통한 희생”,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41~42쪽 참조.
7. 고든 비 힝클리, “기적을 낳는 신앙”,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84쪽.
8. 고든 비 힝클리, “그것은 참되니까요? 그렇잖습니까?”, *리아호나*, 1993년 10월호, 3, 4쪽; 또한 닐 엘 앤더슨, “이것이 참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무엇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74쪽 참조.
9. 토마스 에스 몬슨, “거룩한 성전은 세상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92쪽.
10. 예를 들면, Naomi Schaefer Riley, “What the Mormons Know about Welfare,” *Wall Street Journal*, Feb. 18, 2012, A11 참조.
11. Ram Cnaan and others, “Called to Serve: The Prosocial Behavior of Active Latter-day Saints”(초고), 16.
12. 에즈라 테프트 벤슨, “교회의 독신 성인 형제들에게”, *성도의 빛*, 1988년 7월호, 56쪽.
13. *Lectures on Faith*(1985), 69.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올라야 할 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다면, 인생의 가장 평탄한 시기
못지않게 가장 힘든 시기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연차 대회 모임에서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님이 하나님께 ‘올라야 할 산’을 주시도록 간구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러 위대한 도전 과제와 거대한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 흥미진진한 전망을 즐거워하며,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산을 제게 주소서.’ 이러한 도전 과제를 제게 주소서라고 간청하고 싶습니다.”¹

김볼 회장이 겪어 오신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저도 조금은 알았기에 그분이 그렇게 간구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마음이 몽클했습니다. 저도 더욱 김볼 회장을 닮아서 용감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 소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저는 제 용기를 시험해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날 밤 저는 가슴이 터질 듯이 충만한 신앙으로 침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기도는 하루이틀 만에 응답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시련에 부딪친 저는 놀랐고, 마음이 겸손해졌습니다. 저는 그 경험에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드린 제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다는 명확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둘째, 그날 밤 저는 어떠한 희생도 보상하고도 남을 큰 축복이 역경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왜 그토록 굳건하게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으며, 지금도 그것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오래전에 제게 닥친 역경은 그 후에 저와 제가 사랑하는 이들이 겪은 일에 비하면 아주 작아 보입니다. 제가 잘 알던 하나님의 위대하고 충실한 종이 그랬듯, 여러분 중에도 고통스러운 절규가 절로 나올 만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정서적인 시련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김볼 회장을 돌보던 간호사는 그분이 침대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평생 선하게 살려 애썼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하고 절규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감옥에서 호소하는 소리에 주께서 어떻게 답하셨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덩이에나 살인자들의 손에 던져지고 사형이 내게 선고될지라도, 내가 깊은 물에 던져질지라도, 몰아치는 큰 파도가 너에 대하여 음모를 꾸밀지라도, 맹렬한 바람이 네 원수가 될지라도, 여러 하늘이 흑암을 몰아오고 모든 원소가 힘을 합쳐 길을 가로막을지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옥의 바로 그 턱이 입을 크게 벌려 너를 삼키려 할지라도, 내 아들이야, 이 모든 일이 내게 경험이 되고 네 유익이 될 줄 알라.

인자는 그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갔었느니라. 네가 그보다 크냐?

그러므로, 너의 길을 계속 가라. 그리하면 신권은 너와 함께 머물러 있으리라. 무릇 그들의 한계는 정하여져 있어 지나갈 수 없느니라. 너의 날은 알려져 있고 너의 해는 더 짧게 헤아림을 받지 아니할 것인즉, 그러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 말라. 이는 하나님이 영원무궁토록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²

시련은 왜 오는 것인지, 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관해서는, 우리를 위해 상상할 수도 없는 혹독한 시련을 겪으신 주께서 친히 하신 그 말씀만큼 분명한 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그분을 믿는 신앙으로 회개해야 한다고 권고하신 다음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회개하기를 명하노니 -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 입의 막대기로, 또 나의 진노로, 또 나의 분노로 너를 쳐서 네 고난이 극심할까 하노라 - 얼마나 극심한지 너는 알지 못하며, 얼마나 격렬한지 너는 알지 못하니, 참으로,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너는 알지 못하느니라.

이는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은 나처럼 고난을 겪어야만 하니,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여 -내가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려서려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는 마셨고 사람의 자녀들을 위한 나의 준비를 마쳤느니라.”³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 길은, “길르앗에는



유향⁴이 존재한다는 것과, “내가 너를 …… 버리지 아니하[겠다]”⁵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라는 신앙을 여러분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외롭고 힘겹게 느껴지는 시련을 겪는 우리와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가르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⁶

그렇지만 몬슨 회장님은 현실에서 그러한 약속이 성취되려면, 실제로 신앙의 기초를 다지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는 현명한 가르침도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병상에 누운 사람이 끝까지 견뎌야 하는 싸움을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고 그러한 신앙의 기초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신앙의 기초가 굳건히 자리잡지 않는다면, 견딜 힘은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초를 어떻게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제가 아는 바를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지극히 낮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큰 역경을 맞아 발버둥치는 가운데 자기 신앙의 기초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 여생에 지금까지 겪어 온 것보다 더 큰 시련이

오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처방도, 사실 제가 일평생 끝까지 견디며 입중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젊은 시절, 저는 주택 건축 시 기초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폭폭 찌는 무더운 여름에 기초판을 만들기 위해 시멘트를 부어 넣을 거푸집을 설치하려고 땅을 파고 고르는 일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건설 장비는 전혀 없었고, 곡괭이와 삽이 전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물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 힘들게 기초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초보 일꾼에게 더욱 인상 깊었던 것은 거푸집 속에 철근을 조심스럽게 넣어 완성된 기초를 강화하기 위한, 지루하고, 시간 낭비인 듯이 보일 법도 한 보강 과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겪는 인생의 폭풍우를 견뎌내려면, 신앙의 기초를 놓기 위해 땅을 정성 들여 파고 고르게 해야 합니다. 신앙의 토대를 쌓는 견고한 기반은 바로 개인의 고결성입니다.

선택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결같이 옳은 결정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굳건한 기반 위에 놓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은사로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옳은 선택은 어린 시절부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른 일을 했는지는 그 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날마다 수백 번이 넘는 그러한 선택을 해 가면서 신앙의 건축물을 세울 토대가 다져집니다. 모든 성약과 의식, 원리가 빠짐없이 갖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부어 넣을 철 골조입니다.

끝까지 견딜 신앙을 쌓는 비결 중 하나는 신앙이 단단히 자리잡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성급하게도 삶에서 너무 이른 시기에 더 높은 산, 즉 더 큰 시험을 달라고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신앙이 단단하게 다져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에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신앙이 쌓이는 것도 아닙니다.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과 사람들을 꾸준히 섬길 때 비로소 진리에 대한 간증은 깨지지 않을 영적인 힘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제, 힘겨운 시련을 겪으며 거듭되는 고난으로 신앙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련 그 자체는 신앙을 강화하고

마침내 흔들리지 않게 해 주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몬경에서 물몬의 아들 모로나이는 그러한 축복이 어떻게 오는지를 말했습니다. 모로나이는 아주 작은 신앙이라도 행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단순하면서 유쾌한 진리를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또 이제 나 모로나이는 이 일에 관하여 얼마간 말하고자 하노라. 내가 세상에 보이고자 하거니와 신앙이란 비록 보이지 아니하나 바라는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논박하지 말지니,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기까지는 너희가 증거를 받지 못함이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우리 조상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도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음이니, 그들이 그를 믿기까지는 그들에게 자기를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즉 누군가가 그를 믿었음이 분명하니, 이는 그가 세상에게는 자기를 보이지 아니하셨음이라.

그러나 사람들의 신앙으로 인하여 그는 세상에 자기를 보이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며, 길을 예비하시라 그로써 다른 자들이 하늘의 은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라 그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바라게 하셨느니라.

그러즉 너희가 신앙을 갖기만 하면, 너희는 또한 소망을 가지고, 은사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⁷

신앙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신앙, 즉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보호하고 행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모로나이는 그 신앙의 힘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어느 때라도 신앙을 갖기까지는 아무도 기적을 행하지 못하였나니, 이리므로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더라.”⁸

저는 “내 구주 살아 계시다”⁹를 끝없이 되뇌는 단순한 능력으로 상상하기 힘든 상실감을 잘 견뎌 내는 기적을 보인 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의 기억이 희미해지긴 했어도 그 신앙과 그러한 간증의 말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자신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을 용서한 또 한 여성을 보며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성에게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받은 학대를 용서하고 잊어버리기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 여성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면 구주께서도 자신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신앙이 있었기에 그 여성은 누우치지 않는 원수를 용서했고, 몇 달 후에 찾아온 죽음을 화평과 소망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여성은 저에게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신앙을 행사하고 용서를 하셨으니 자매님에게는 멋진 귀향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의 신앙이 끝까지 잘 견딜 만큼 충분히 강한지 의구심을 느끼실 분들에게 또 한 가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가운데에는 주변의 많은 사람보다 활력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구주께서 행하셨을 만한 일을 하겠다고 일찍이 결심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축복을 저는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서 무시하거나 경시했을 수도 있었을 사람을 돕고 보살피기 위해 자기가 받은 풍성한 축복을 활용하여 여러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힘든 시련이 올 때, 그것을 잘 견뎌 낼 신앙 또한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행하고, 구주께서 행하셨을 봉사과 용서를 실천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주께서 사랑하셨을 것처럼 사랑하고 구주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신앙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이 사랑을 행하도록 이끌었고, 이

상파울루, 브라질





사랑을 통해 여러분은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시간은 언제나 있습니다. 구주를 믿는 신앙을 갖고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들어올려 줄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아무리 외롭고 버림받은 듯한 기분이 드는 때가 오더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경이 이 생에서 끝나리라는 약속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련이 잠시 동안만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인생에서 시련을 겪을 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마치 시계가 느려지다가 마침내 거의 멈춰 버린 듯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서 그다지 위안을 얻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인내하는 때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두 이 한 가지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완전한 사랑으로 여러분이 그분들과 함께 가족으로 영원히 살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완전히 깨끗하게 씻긴 사람만이 그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거의 10년간 암과 싸우셨습니다. 온갖 치료와 수술을 받다가 결국은 병상에 누워 꼼짝할 수 없게 되신 것이 제 어머니에게는 시련이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 쉬는 어머니를 보시며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린 딸이 집으로 쉬러 갔구나.”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하신 분 중에는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님도 계셨습니다. 그분의 추도사 가운데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중에는 밀드레드가 시련을 당할 만한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밀드레드가 고통을 받은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밀드레드가 좀 더 다듬어지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머니같이 선한 분이 그만큼이나 많이 다듬어져야 한다면 나는 어떨겠는가?’ 하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다면, 인생의 가장 평탄한 시기 못지않게 가장 힘든 시기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만 하면, 우리 삶을 형성하고 인도해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또 구원의 계획에서 우리가 있을 곳을 계시로 알려 주시는 선지자들이 계시니, 우리는 온전한 소망을 품고 화평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자신이 혼자이거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 왼편과 오른편에 천사들을 두셔서 우리를 받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¹⁰ 그분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의 구속주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이 대회에서 전해진 것들이 참됨을 성신이 확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 주님의 승인된 종들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고자 하고, 나중에 공부하면서 간구한다면 성신은 다시 그 참됨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온 세상에 주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보살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주

1. 스펜서 더블유 김볼, “이 산지를 주소서”, 성도의 빛, 1980년 3월호, 119쪽 참조.
2. 교리와 성약 122:7-9.
3. 교리와 성약 19:15-19.
4. 예레미야 8:22.
5. 여호수아 1:5.
6. 토마스 에스 몬슨, “하나님을 바라보아 살도록 하라”, 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52~54쪽.
7. 이터서 12:6-9.
8. 이터서 12:18.
9. “내 구주 살아 계시다”, 찬송가, 68장.
10. 교리와 성약 84:88 참조.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교회 역원 지지

도마스 스펜서 문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일회장단 제1보좌로, 디이터 프레드릭 우흐트도르프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드 케니스 팩커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보이드 케이 팩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날 엘 앤터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회장단 보좌들과 십이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가 있으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는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차드 제이 메이너즈 장로를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일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서 제럴드 진 코세 장로와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를 해임하며 감사의 뜻을 표시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여러 해 동안 충실하고도 효과적으로 봉사해 주신 에이치 데이비드 버턴 감독님, 리차드 시 에즐리 감독님, 키스 비 맥멀린 감독님을 감리 감독단에서 해임하며 그분들을 명예 총관리 역원으로 지명할 것을 제의합니다.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2012년 5월 1일부로 다음 지역 칠십인을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리차드 케이 아하드지에, 클리매토 시 에이 알메이다, 페르난도 제이 디 아라우조, 마빈 티 브링거호프, 마리오 엘 카를로스, 라파엘 이 카스트로, 데이비드 엘 쿡, 세사 에이 다빌라, 모사이야 에스 텔가도, 루이스 지 두에르, 후안 에이 에체가레이, 스테phen 엘 플러키저, 제이 로저 플루먼, 로버트 시 게이, 미구엘 허달고, 게리스 시 힐, 데이비드 제이 호어, 데이비드 에이치 잉그램, 테즈지 이시이, 카폼바 티 콜라, 글랜던 라이언스, 알 브루스 머렐, 엔니케 제이 몬토야, 다니엘 에이 모레노, 어테시나 제이 올루카니, 가마리엘 오솔노, 패트릭 에이치 프라이스, 마르코스 에이 프리에토, 파올로 알 푸에르타, 카를로스 에프 리바스, 에이 리차토 상야나, 파비엔 엘 시남반, 나타 시 토비아스, 스탠리 완, 페리 엠 웹, 리차드 더블유 윌러, 스코트 디 와이팅

훌륭하게 봉사해 주신 이 형제님들에게 함께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줄리 비 벡





자매님,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자매님, 바바라 톰슨 자매님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에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또한 본부 상호부조회 위원회 위원들을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 자매님들이 보여 주신 놀라운 봉사와 헌신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크레이그 에이 카든, 스탠리 지 엘리스, 래리 에코 호크, 로버트 시 게이, 스코트 디 와이팅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게리 이 스티븐슨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감리 감독으로, 제럴드 코세를 제1보좌로, 딘 마이런 데이비스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다음 새로운 지역 칠십인들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페드로 유 아두루, 데틀레프 에이치 아들러, 엔젤 에이치 알라킨, 알레이 케이 아우나 2세, 더블유 마크 버세트, 로버트 엠 콜, 헤르난도 카마고, 진 알 치데스터, 호아킨 이 코스타, 랄프 엘 듀스넵, 엔젤 에이 두아트, 에드워드 듀브, 모로나이 가오나, 태일러 지 고도이, 프란시스토 디 엔 그란자, 유리이 에이 거쉬친, 리차드 케이 한센, 토드 비 한센, 클리포드 티 허버트슨, 아니퓌옥 우도 인윤, 루이즈 엠 리얼, 알레한드로 로페즈, 엘 진 클라우드 마바야, 알빈 에프 메레디스 3세, 아도나이 에스 오반도, 제러드 알 오캠프, 아데잉카 에이 오제디란, 앤드류 엠 오리올던, 예수 에이 울티즈, 프레드 에이 파커, 시우 홍 폰, 아브라함 이 쿠에로, 로버터 클레어 리엔, 조지 루이스 로마, 조지 살디바, 고든 에이치 스미스, 앨런 스파나우스, 모로나이 비 토간, 스트븐 엘 토론토, 다니엘 이렌야-타위아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린다 키아 버튼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캐롤 맨젤 스티븐을 제1보좌로, 린다 셰필드 리브즈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이외 현재 구성된 모든 총관리 역원, 지역 칠십인,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문슨 회장님, 제가 지켜본 바로는 이 컨퍼런스 센터에서 제의된 모든 제안에 대한 지지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의 지지와 신앙, 헌신,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새로 부름 받으신 총관리 역원과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앞으로 나오셔서 연단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 교회 감사부 보고서

보고자: 로버트 더블유 캔트웰
교회 감사부 관리 책임자

수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일회장단

형 제 여러분, 교리와 성약 120편에 나오는 계시에 규정된 대로 십일조 지출 평의회는 교회의 자금 지출을 승인합니다. 이 평의회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감리 감독단으로 구성됩니다.

이 평의회는 교회 부서와 그 운영 예산 및

교회 단위 조직과 관련하여 배정되는 예산을 승인합니다. 교회 부서는 교회 정책과 절차에 따라, 그리고 승인된 예산 한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합니다.

교회 감사부는 자금 수입과 지출, 교회 자산 보호와 관련해 올바르게 관리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록과 시스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는 교회의 모든 다른 부서와 운영 기구에서 독립되어 있으며, 공인 회계사와 공인 내부 감사자, 공인 정보 시스템 감사자, 그 외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교회 감사부는 감사 자료에 근거해 2011년 동안 있었던 현금 영수와 지출, 그리고 교회 자산이 모든 면에서 적합한 회계 관행과 승인된 예산 범위, 교회 정책과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기록되었음을 밝힙니다.

삼가 제출합니다.
교회 감사부
로버트 더블유 캔트웰
관리 책임자 ■



2011년 통계 보고서

보고자: 브룩 피 헤일즈
제일회장단 비서

제 일회장단은 교회 회원 정보와 관련하여,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교회 성장 및 현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교회 단위 조직

스테이크.....2,946개
선교부.....340개
지방부.....608개
와드 및 지부.....28,784개

교회 회원

전체 회원 수.....14,441,346명
2011년 동안 기록상의 새로운 자녀.....119,917명
2011년 동안 침례 받은 개종자.....281,312명

선교사

전임 선교사.....55,410명
교회 봉사 선교사.....22,299명

성전

2011년 동안 헌납된 성전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과테말라 케트살테낭고).....2개
2011년 동안 재헌납된 성전 (조지아 애틀랜타).....1개
운영 중인 성전.....136개

작년 4월 연차 대회 이후로 작고한 교회의 이전 본부 역원과 인사들

전 칠십인 정원회 일원인 매리온 디 행크스 장로, 잭 에이치 고슬린드 이세 장로, 몬테 제이 브로우 장로, 로널드 이 폴먼 장로, 키스 더블유 윌콕스 장로. 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보좌인 조이 에프 에번즈 자매, 치에코 앤 오카자키 자매. 전

칠십인 정원회 일원인 필립 티 존탁 장로의 부인 노마 볼로이 존탁 자매. 전 칠십인 정원회 일원인 로이드 피 조지 장로의 미망인 리올라 조지 자매. 또한 전 칠십인 정원회 일원인 리노 알바레스 장로의 부인 아르헤리아 빌라누에바 데 알바레스 자매. 태버내클 합창단 전 단장인 웬델 엠 스무트 이세 형제. ■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포도원의 품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사를 받아들이라는 성령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십시오.

제 일회장단이 방금 발표한 부름과 해임에 대해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함께 충실하게 봉사하셨던 분들을 언제까지나 기억하고 사랑할 것이며, 새로 부름 받으신 분들 또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주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 “품꾼을 얻어 …… [일을 시키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 비유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집주인은 아침 여섯 시에 첫 번째 무리를 고용한 뒤 추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더 급박해지자 각각 아침 아홉 시, 정오, 오후 세 시에 돌아와 더 많은 일꾼을 고용했습니다. 경전에 따르면, 주인은 마지막으로 “제십일 시”(대략 오후 다섯 시)에 다시 와서 마지막으로 일꾼을 고용했습니다. 한 시간 후에 모든 일꾼은 품삯을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놀랍게도, 일꾼들은 각각 일한 시간이 다른데도 모두 같은 임금을 받았습니 다. 그러자 그 즉시, 처음에 고용됐던 일꾼들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을 종일 더위를 견디며 수고한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¹ 이들 일꾼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 비유를 읽으면서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문에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목할 것은 아무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고용된 일꾼은 그날 하루에 받을 임금이 얼마인지 듣고 동의했으며 약속된 금액을 받았습니 다. 더구나, 제 추측입니다만, 그들은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무척 감사했습니다. 구주께서 계셨을 당시, 보통 남자들과 그 가족은 그날 벌어서 그날을 사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일이나 농사, 낚시나 물건을 내다 파는 등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필시 먹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선택된 그 일꾼들은 그날 아침에는 전체 일꾼들 중에 가장 운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동정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먹고 입혀야 할 가족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일자리를 찾는 행운이란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차례 청정기가 방문했지만, 그때마다 다른 사람이 선택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거의 끝나갈 때, 놀랍게도 집 주인이 다섯 번째로 왔고, 십일 시에 품꾼들을 고용한다는 멋진 제안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얻지 못해 낙담하던 일꾼들은 단지 공정한 대우를 받을 것이란 말만 듣고, 뭐라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에, 얼마를 받게 될지도 모르는 채 일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받으려 모였을 때, 다른 품꾼과 똑같은 금액을 받고는 깜짝 놀랐습니 다. 어안이 병병하면서도 감사함에 몸 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평생 일하면서 이렇게 사려 깊고 후한 대우는 분명 받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고용된 일꾼은 바로 그 점이 못마땅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비유에 나오는 집 주인이 그들에게 해준 말을 (제가 약간만 바꾸어 말하겠습니다.)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하루치 임금이 얼마인지 듣고 동의했으며, 그것은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신은 일자리가 생겨 기뻐했으며, 나는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당신은 정해진 임금을 다 받았습니 다.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받은 축복을 즐기십시오. 다른 이들에 대해선, 분명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 뒤, 깊은 통찰이 묻어나는 질문을 던지는데, 그 당시나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당신은 내가 친절을 베푸는 것을 시기합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예상치 못한 축복을 받거나 특별히 인정을 받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에겐 큰 축복이나 행운이 찾아올 때, 언짢아 하지 말고, 더더욱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가 더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가장 부유하고, 재능이 많고, 아름다운지, 혹은 가장 축복을 받는지를 겨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경쟁해야 할 것은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경쟁이며, 분명 시기심은 죄 중에서도 매우 보편적인 죄악 중 하나입니다.



더구나, 시기심은 한 번 시작되면 계속되기 마련입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당연히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시기심은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생기는 좋은 일에서까지 괴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주변 사람이 행복해질 때마다 마음이 우울해진다면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공의로우면서도 자비로우셔서 경전에 나온 바와 같이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그분의 모든 소유를”²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더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포도원에서 배울 첫 번째 교훈은 탐내고, 입을 삐죽이거나 다른 이의 불행을 바라는 것은 절대 여러분을 높여 주지 못하며 다른 이를 깎아 내리는 것 역시 자신을 돋보이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절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절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이 비유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교훈은 만일 일꾼 중에 그날 있었던 문제에 마음이 상하여 하루가 끝날 때 임금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슬픈 과오입니다. 경전 구절에는 주인 앞에 동전을 내던지고 화를 내며 가버린 사람이 있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비유에서 하루가 끝날 무렵에 주어진 사려 깊고 후한 임금에 비하면 아홉 시나 정오, 또는 세 시에 일어났던 일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발전시키는 방법은 그것을 지키고, 노력하고, 끝이 있음을 믿으며, 마지막에 주어지는 후한 보상을 생각하면서 그 전에 겪는 괴로움을, 그것이 실제적이든 가공의

것이든,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것이든, 이웃에 대한 것이든, 심지어 이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에 대한 것이든 과거 문제나 불만에 얽매인 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이웃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장엄한 가치는 비록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알아보는 못하더라도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전 아홉 시에 있었던 일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몇 시부터 일을 했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저녁 여섯 시가 되면 여러분에게 보상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억 속에 강하게 들러붙는 어떤 과거사에 매달려 참으로 고귀한 정서적, 영적 힘을 소진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 피아노 독주회에서 실수로 냈던 불협화음, 배우자가 20년 전에 했던 어떤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받고서 앞으로 20년 동안 그 일에 죄책감을 느끼게 해 주겠다고 결심했던 일, 또는 단순히 필멸의 인간이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허덕이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보여 주는 교회 역사 속 사건 등과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런 불만과 노여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된 것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서 ‘끝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상 생활의 끝에서 포도원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며 모든 불의를 바로잡으시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 비유가 말하려는 것은 사실 품꾼이나 임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비유가 양과 염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듯이 말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선하심, 오래 참으심과 용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대함과 동정,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제가 수년 전에 들은 어떤 이야기에 신빙성을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가장



좋아하시는 순간은 자비를 베풀 때, 그것도 자비를 기대하지 않거나 종종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하실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 잘 나타나는 용서의 메시지가 오늘 여기 모인 수많은 청중 중 누구를 향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되더라도, 너무 많은 기회를 이미 놓쳐 버렸다고 생각되더라도, 아무리 많은 잘못을 저질렀거나 가진 재능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혹은 가정과 가족과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는 곳에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이 무한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빛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떨어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아직 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분이든, 한때 이곳에 계시다가 떠난 분이든, 여러분이 했던 일 중에 되돌릴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문제란 없습니다. 현세와 영원을 두고 여러분이 성취하지 못할 소망과 꿈이란 없습니다. 비록 자신이 제십일 시가 다 되도록 마지막까지 남겨진 품꾼과 같이 느껴질지라도, 포도원의 주인인 주님께서 손짓하며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와서]”³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의 식탁에 와서 그 향연을 “돈 없이, 값 없이”⁴ 즐기십시오.

특별히 저는 리하이의 말을 인용하여 남편과 아버지, 그리고 신권 소유자와, 곧 신권을 받게 될 분들에게 축기합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티끌에서 일어나 …… 대장부가 되[어라.]”⁵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쟁터에] 모두 오라”⁶는 부름에 응하지 않는 이들은 종종 남성들입니다. 더 기꺼이 응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이들은 여성과 어린이들인 것 같습니다. 형제 여러분, 일어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여 여러분이 그 부름에 응하기를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에게 밝은 미래를 주시고자 축량할 수 없는 값을 치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어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복음을 일찍 찾고 받아들여서 오랫동안 복음이 주는 축복을 받으신 분들과 한 번에 조금씩 여러 단계를 거쳐 이 복음에 속하게 된 분들, 그리고 회원이든 아직 회원이 아니든 복음 가운데 속하기를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그분의 은혜가 주는 기적을 간증합니다. 그분의 관심사는 여러분이 마지막에 지니게 될 신앙이지, 그 신앙을 하루 중 언제, 몇 시경에 얻었느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약을 맺었다면, 지키십시오. 아직 성약을 맺지 않았다면, 성약을 맺으십시오. 성약을 맺었으나 이를 어겼다면,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십시오. 포도원의 주인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사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일을 돕는 일꾼으로서의 기쁨을 누리라는 성령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이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20:1~15 참조.
2. 누가복음 12:44.
3. 히브리서 4:16.
4. 이사야 55:1.
5. 니파이후서 1:14, 21.
6. “싸움 끝나는 날까지”, 찬송가 179장.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스스로 돌이키십시오: 성찬, 성전, 희생 봉사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약에 따라 생활할 때 개심하게 되고 영적으로 자립하게 됩니다.

주는 제자들에게 부유한 아버지를 떠나 타국에 가서 유산을 탕진한 한 아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기근이 생기자 그 젊은이는 돼지를 먹이는 미친한 일을 했습니다. 그 아들은 너무 배가 고프 나머지 동물에게 먹이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 했습니다.

집에서 멀리 떠나 자신이 원하던 곳에 있었으나 궁핍해진 이 젊은이는 삶에서 영원한 의미를 띠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구주의 말씀대로라면 그는 “스스로 돌이키게”¹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했고,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며, 아버지의 집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던 축복을 다시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에 암흑의 그늘이 드리우고, 힘겹고, 슬픔에 잠기거나 죄를 지을 때에도 우리는 성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신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며,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성스러운 축복을 우리가 열망하고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에 스스로 돌이켜 구주의 사랑이라는 빛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 축복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기쁨과 행복을 포함한 이러한 축복을 바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선지자 엘마는 “설혹 너희가 믿기를 바라는 것이상은 할 수 없을지라도, 이 바람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게”²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영적인 소망이 커질수록 영적으로 자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이 구주를 따르고 그분의 복음대로 살려는 소망을 키우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회개하고 합당해지며 끝까지 견디려는 소망을 어떻게 굳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과 청년 성인이 그렇게 소망하여 개심하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참된] 성도가”³ 되도록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약에 따라 생활할 때, 즉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고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기에 합당한 상태를 유지하며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 희생할 때, 우리는 개심하게 되고 영적으로 자립하게 됩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취하기 위해 우리는 침례 때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매주 성찬이 영적으로

정화하는 경험이 되게 하려면, 성찬식에 참석하기 전에 자신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매일 하던 일과 오락거리 등을 뒤로하고 세상적인 생각과 근심에서 벗어남으로써 자신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하면, 머릿속과 가슴에 성신이 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속죄에 대해 깊이 생각할 준비가 됩니다. 구주께서 고통받고 돌아가신 사실 자체만 떠올리기보다는 구주의 속죄에 관해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구주의 희생으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진실한 변화를 일으킬 소망과 힘과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찬 찬송을 부르고, 성찬 기도에 참여하며, 그분의 삶과 피의 상징물을 취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죄와 결점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전 주 동안 맺고 지켰던 약속에 대해 생각하고, 다음 한 주 동안 구주를 따르겠다는 구체적인 결심을 합니다.

부모님과 지도자 여러분, 청소년이 속죄가 그들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며 깨닫도록 특별한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비할 데 없는 성찬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스스로 경전을 상고하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십시오.

아버지와 신권 지도자, 정원회 회장단은 아론 신권 소유자가 진지하게 준비하여 성스러운 성찬 임무를 수행하도록 도울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주 내내 복음 표준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준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합당하고 경건하게 성찬을 준비하고 축복하며 전달할 때 그들은 실제로 마지막 만찬에서 있었던 구주의 모범⁴을 따르는 것이며 그분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찬이 스스로 돌이키고 마음의 “큰 변화”⁵를 경험하는 기회, 즉 우리가 누구인지를, 무엇을 가장 소망하는지를

기억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계명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인도할 성신과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가 “떡과 [물] 취하기 위하여 자주 함께 모[여]”⁶ 우리의 영혼에 성찬을 취하도록 명 받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⁷

성찬을 취하는 것에 더하여, 성전 추천서를 받기 위해 합당해지려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려는 우리의 소망은 커집니다. 늘 꾸준히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합당해집니다. 이러한 순종은 어린 시절에 형성되기 시작하며, 준비 기간인 아론 신권과 청년 시기에는 경험을 통해 강화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사와 월계반 청년가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고 인봉을

받으려는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성전 추천서 소지자에게 요구되는 표준은 무엇입니까?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 자로다”⁸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기에 합당해지면 성전 성약을 지키려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러한 힘을 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신, 속죄의 실재성,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회복의 진실성에 관해 간증을 얻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지지하고, 가족에게 친절히 대하며, 주님의 참된 교회의 증인이 되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며, 성약을 존중하고, 부모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며, 유덕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충실한 후기 성도가 되라는 말로 들릴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는 데 요구되는 표준이 우리가 다다르지 못할 만큼 높은 것은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바로 복음에 따라 충실하게 생활하고 선지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엔다우먼트를 받은 성전 추천서 소지자로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며, 서로 사랑하고, 생각과 행동에서





순결해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구주의 속죄를 통해, 그리고 충실함이라는 이러한 기본적인 모범을 따르므로써 삶의 고난을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⁹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신성한 권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은 성전 의식을 통해서만 받게 되는 권능입니다. 성전 의식을 받기 위해 치르는 희생은 모든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복음을 배우고 그에 따라 살려는 소망이 커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우리는 서로에게 봉사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구주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¹⁰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대 청소년들에게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축복하려는, 즉 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려는 큰 소망이 있다는 점에 감명을 받습니다. 청소년들은 또한 봉사할 때 느끼는 기쁨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현재 자신의 행동이 미래의 봉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되는지를 청소년이 판단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청소년이 자립하도록 도움으로써 그들이 평생 봉사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을 도울, “피할 수 없는 의무”¹¹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영적인 자립 이외에도 현세적인 자립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등 과정 후의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고, 일하는

것을 배우며, 수입 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포함합니다. 부채를 피하고 지금 저축을 함으로써 미래에 교회에서 전임 봉사를 할 준비를 합니다. 현세적 및 영적 자립의 목적은 나 자신이 더 높은 곳에 이룸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들어 올려주려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적든 많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일로 미래에 어떤 봉사를 하고, 누릴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한 시인이 일깨워 준 바와 같이 “구전되거나 기록된 말 중 가장 슬픈 말은 바로 ‘그랬더라면!’”¹²입니다. 우리가 한 일 또는 하지 않았던 일로 후회하며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주께서 말씀하신 젊은이, 바로 우리가 탕자라 부르는 그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직도 거리가 먼 [곳에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 입을 맞추[었습니다.]”¹³ 아들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 아버지는 옷과 반지를 준비하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¹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에서 충실하게 견딘다면 그 어떤 축복도 보류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에 대한 제 가슴속 사랑을 담아, 우리 모두 영적인 소망을 따르고 스스로 돌이키도록

권유합니다. 겨울 속에 비친 자신과 이야기하며 이렇게 물어봅시다. “성약에 따라 사는 나의 현 위치는 어디인가?” 우리가 “나는 매우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고,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고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축복하기 위해 희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무척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죄할 “독생자를 주셨[다.]”¹⁵는 저의 특별한 간증을 전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길에서 아주 멀리 벗어나 있더라도 우리를 아시며, 기다리십니다. 소망에 따라 행동하고 스스로 돌이킨다면, 우리는 “그의 사랑의 팔에 영원토록 둘러싸[여]”¹⁶ 본향에서 환영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누가복음 15:17.
2. 엘마서 32:27.
3. 모사이야서 3:19.
4. 마태복음 26:17~28; 누가복음 22:1~20 참조.
5. 엘마서 5:12; 또한 모사이야서 5:2; 엘마서 5:13~14 참조.
6. 모로나이서 6:6.
7. 모로나이서 4:3; 교리와 성약 20:77 참조.
8. 시편 24:3~4.
9. 교리와 성약 95:8.
10. 누가복음 22:32.
11. 교리와 성약 123:11.
12. John Greenleaf Whittier, “Maud Muller,” *The Complete Poetical Works of Whittier*(1894), 48.
13. 누가복음 15:20
14. 누가복음 15:22~24 참조
15. 요한복음 3:16
16. 니파이후서 1:15.



데이비드 에스 백스터 장로
칠십인 정원회

신앙, 깨끗함, 성취: 한부모에게 전하는 메시지

여러분은 과거는 어찌할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을 알기에 자녀를 의로움과 진리 안에서 양육하려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는 교회에 계신 한부모들을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홀로된 어머니들이십니다. 강인한 여성인 여러분은 삶에서 다양한 환경을 헤쳐 나가며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십니다. 어쩌면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이혼하셨을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한부모로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지금은 인생 방향을 바꾸어 복음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교제를 위해 정결과 제자의 길을 던져 버리지 않으신 분들은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맞바꾸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나도 큼니다.

여러분은 이따금 “왜 하필 나지?” 하는 질문을 하시겠지만 우리는 인생에서 겪는 고난을 통해 신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은 혹독한 시련을 통해 형성됩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인간의 선택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생깁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정황을 알지 못하기”¹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일이 생긴 배경이나 이유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은 참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삶의 고난에 직면하며 두 사람이 할 일을 혼자 힘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니이면서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정 살림을 꾸리고, 가족을 돌보고, 때로는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해 애쓰며, 기적적으로 방편을 찾아 교회에서 훌륭하게 봉사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합니다. 자녀와 함께, 그리고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고 기도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지만 온갖 노력을 다해도 충분하지 못할까 봐 매일 밤 걱정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은 아닌지 망설여지지만, 저도 그러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 대부분 동안 가난한 환경에서 홀로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돈은 신중하게 지출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속의 외로움과 싸우셔야 했으며 때로는 부양과

배우자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도 어머니에게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결단력과 스코틀랜드인의 기개가 넘쳤습니다.

감사하게도 어머니의 인생 후반은 더 많은 축복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배우자를 사별한 새로운 개종자와 재혼하셨습니다. 두 분은 영국 런던 성전에서 인봉 받으셨고 그곳에서 짧은 기간 의식 봉사자로 봉사하셨습니다. 거의 25년간, 필멸의 삶이 다할 때까지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충만한 삶을 함께 사셨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서도 이와 같은 의지력을 여러 해 동안 보여 주고 있는 선한 자매님들이 전 세계에 많이 계십니다.

이것은 분명 여러분이 처음부터 소망했거나 계획한 것, 또는 간구했거나 기대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는 장애물이나 우회로, 굴곡, 전환점 등이 있었을 텐데 그것은 주로 시험을 받고 자신을 증명하는 장소인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면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은 과거는 어찌할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을 알기에, 자녀를 의로움과 진리 안에서 양육하려 노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길에서 노력에 상응하는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결과가 분명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에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성장해서 여러분을 복 받은 사람이라 부르며 그들이 성취한 것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분에게 공을 돌릴 것입니다.

자신을 교회 회원 중 하위 부류로 여기며 다른 사람보다 주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에 이류 시민이란 없습니다.

모임에 참석해서 걸로 보기에 완벽하고 행복한 가족을 보거나, 누군가가 이상적인



가족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으신다면, 가족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자녀의 행복을 위한 그분의 계획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가르치는 교회에 속한 것에 감사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세계적 재난과 도덕적 붕괴 속에서도 우리에게 세상에 가장 좋은 희망을 심어 주는 교리와 권세, 의식, 성약이 있습니다. 이 희망에는 여러분 자녀와 그들이 꾸릴 가족이 미래에 누릴 행복도 포함됩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2006년 9월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당시 7세에서 16세 사이의 자녀 일곱을 둔, 이혼한 어머니가 전한 경험을 들려 주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길 건너에 사는 이웃에게 뭔가를 갖다 주러 갔었습니다. 자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렸을 때, 저는 불이 켜진 우리 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몇 분 전 제가 문밖으로 걸어 나왔을 때 아이들이 했던 말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저녁에 뭘 먹을 거예요?’ ‘저를 도서관에 태워 주실 수 있어요?’ ‘오늘 밤 포스터 종이 몇 장을 준비해야 돼요.’ 지치고 피곤했던 저는 그 집을 바라보며 각

방에 켜진 등불을 보았습니다. 제가 와서 자신들의 필요 사항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자녀들을 모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제 짐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을 향해 눈물을 글썽이며 제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밤 그 모든 일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집으로 가서 저 혼자 아이들을

코르도바, 아르헨티나



모두 돌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 가서 딱 하룻밤만 같이 머물 수 없을까요? ……’

제가 대답을 실제로 듣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란다, 얘야. 지금은 내게로 올 수 없단다. …… 하지만 내가 네게로 갈 수는 있지.’”²

자매님들, 여러분이 가족을 돌보고 선과 평안, 기회가 있는, 사랑이 깃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때로 혼자라고 느끼더라도 사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인내와 신앙으로 전진해 나갈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낙담해 있기보다 위를 바라볼 때 삶을 바라보는 견해와 시각이 바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 올리기 위해 살 때 자신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즉 생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진리를 이미 많은 분이 터득하셨을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해도 여러분의 태도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더 큰 포용력과 이해심, 그리고

없는 것을 동경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것에 대해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련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계좌가 텅 빈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위안을 줄 때, 그렇게 하는 자신의 계좌가 오히려 풍성해지고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잔이 참으로 “넘치[게]”(시편 23:5) 됩니다.

여러분과 자녀들이 의롭게 생활하면 인젠가는 완전하고 영원한 가족에 속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회원과 지도자 여러분, 판단이나 비난을 하지 않고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을까요? 그러한 가족에 속한 젊은이들을 선도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선한 사람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범을 보여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 그들이 따르기에 적합한 모범이 되어 주고 계십니까?

물론 아버지 혼자서 이런 일을 하는 한부모 가족도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또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를 포함합니다. 제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부모 여러분, 인간이 겪는 가장 어려운 일에 직면해서도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여러분에게 미소 지을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을 밝게 비추고 영원한 약속이라는 희망으로 여러분을 채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신앙과 소망을 품으십시오. 곳곳에 현재를 숙고하고 확신으로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1. Neal A. Maxwell, *Notwithstanding My Weakness*(1981), 68.

2. 고든 비 힐클리, “그분의 사랑의 팔에”,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117쪽.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주님의 영역에 거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이 행동을 취하면 주님의 영역에 서게 될까, 아니면 적의 영역에 서게 될까?”라고 매일 질문해야 합니다.

도 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선택을 가능할 수 있는 간단한 공식 하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외우기 쉽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하면 의로워질 수 없으며 의를 행하면 잘못될 수도 없다.’”(“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라”, *리아호나*, 2004년 4월호, 121쪽) 몬슨 회장님의 공식은 간단하면서도 명확합니다. 그 공식은 리하이가 받았던 리아호나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신앙을 행사하고 주님의 계명에 부지런히 순종한다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쉽게 찾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매일 하는 선택들 사이에서 결정해야 할 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식적으로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영을 위하여 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권고를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7~9)

영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하늘 부모님과 같은 성스러운 수준에 올라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경전에서는 육신을 육에 속한 사람의 육체적 또는 속된 상태로 나타내고 있으며 이 때문에 사람들은 성신에게서 오는 영감을 구하기보다는 격정, 갈망, 욕구, 육신의 충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세상에 만연한 악의 세력과 결탁한 영향력으로 지속하고 무분별한 행동을 취하게 되어 그것이 우리의 성품을 일부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쁜 영향력을 피하기 위해 주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계속 영을 위하여 심는 것에 관해 가르치신, 다음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즉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위대한 일의 기초를 놓고 있음이라. 그리고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교리와 성약 64:33)

우리의 영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우리에게서] 버[려야] 합니다.”(에베소서 4:31) 그리고 “시험의 날에 지혜[롭고] …… 모든 부정함을 벗어 버[려야]”(골로새서 9:28) 합니다.

경전을 공부해 보면, 주님이 주신 약속은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 실현 여부가 결정되므로, 그러한 약속에는 의로운 생활을 하라는 권유가 함께 붙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약속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웁니다. 또한 그 약속은 더욱더 육체를 위하여 심도록 부추기고 도덕적, 윤리적 가치가 사라져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 겪는 삶의 도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우고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는 선택이 육체가 아닌 영을 위하여 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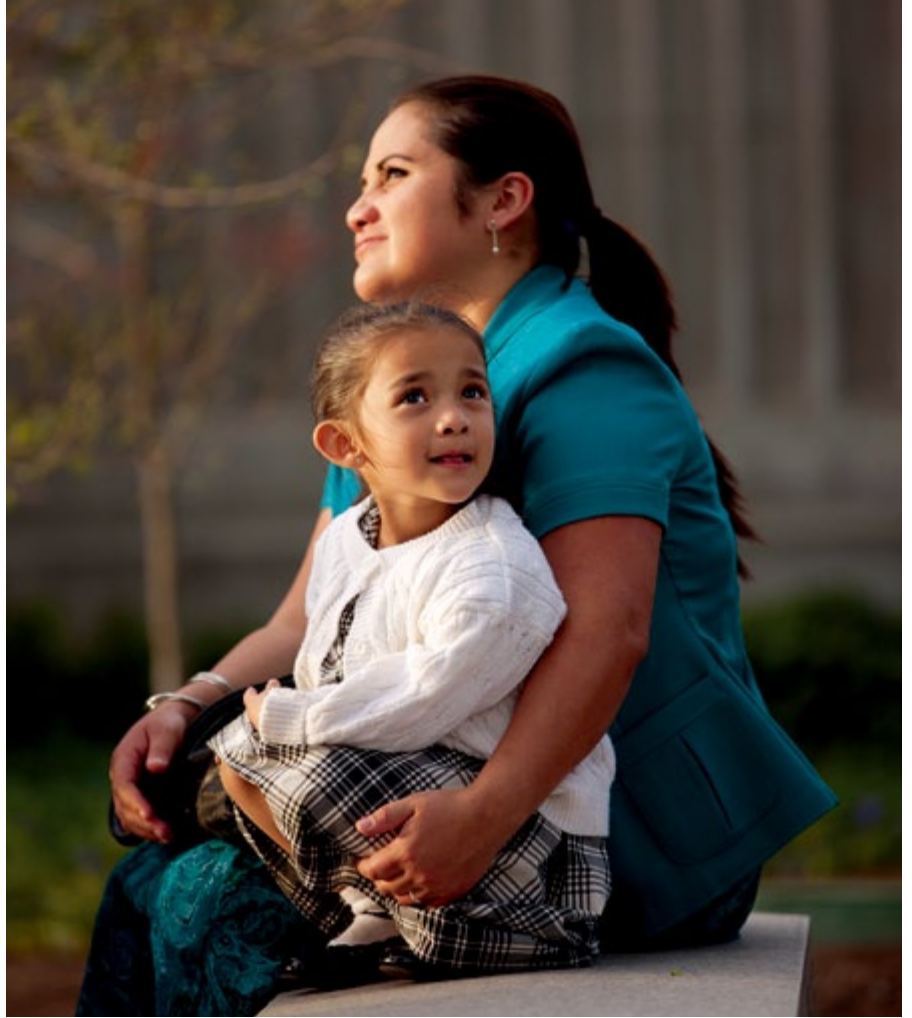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님은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권고를 되풀이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역과 악마의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 짓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에서 주님 쪽 선 안에 머문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어 옳지 않은 일을 행하려는 욕망을 품지 않을 것이지만, 그 선을 1센티미터라도 넘어 악마 쪽 선 안으로 넘어간다면 유혹하는 자의 영향력 아래 놓일 것입니다. 악마가 성공하면 주님의 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올바르게 사고하거나 사리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2011], 191쪽)

따라서 우리는 “내가 이 행동을 취하면 주님의 영역에 서게 될까, 아니면 적의 영역에 서게 될까?”라고 매일 질문해야 합니다.

선지자 몰몬은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런즉 무릇 선한 일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악한 것은 악마에게서 오나니, 이는 악마가 하나님의 원수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며, 또 죄를 범하도록 또 끊임없이 악을 행하도록 꾀며 유혹함이라.

그러나 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은



끊임없이 선을 행하도록 이끌며 권유하나니”(모로나이서 7:12~13)

성신의 동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주님의 영역에 속하도록 이끄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므로, 우리의 태도가 선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지만 태도가 올바르지 않다면, 우리는 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악을 행하도록 꾀어 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서 주님의 영역에 머물려고 하는 결단력과 부지런함을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리스도께 오라는 권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저는 몇 주 전에 남아프리카에 있는 한 와드에서 어린 제사 두 명과 그들의 감독님, 스테이크 회장님과 함께 제사 정원회의 저활동 회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두 제사가 저활동 청남에게 교회로 돌아오도록 권유하며 보여

준 용기와 겸손은 인상 깊었습니다. 그들이 저활동 청남에게 말을 하는 동안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구주의 빛이 발하는 것을 보았으며 동시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그 빛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두 제사는 “약한 자를 도우라.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라.”(교리와 성약 81:5)는 의무를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 준 태도는 주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었으며, 주님의 손안에 든 도구가 되어 다른 이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 20편 37절에서, 영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통해 주님의 영역에 설 수 있는지를 가르치십니다.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와서, 자기의 모든 죄를 진실로 회개하였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고자 하며, 끝까지 그를 섬기려는 결심을 가졌음을 교회 앞에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고 침례로써 그분의 교회에 받아들여졌음을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의 행위로 나타내야 합니다. 기꺼이 이러한 성약을 성취하려 한다면, 우리는 승영에 이른 존재로 하나님 면전에서 살 수 있게 준비될 것입니다. 이 성약들을 기억한다면, 가족에게 보이는 행동에서, 사회생활을 하며 다른 사람과 하는 교류에서, 특히 구주와 자신의 관계에서 분명히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행동 규범을 세우셨고, 우리는 이를 통해 성스러운 성약을 성취할 수 있는 태도를 키울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그분의 신성한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영향력은 무엇이든 삶에서 몰아내셨는데, 특히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는 동안 사탄이나 그 추종자에게서 유혹을 받으실 때 더욱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으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지니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셨으며, 모든 면에서 아버지께서 요청하신 일을 끝까지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뜻을 버리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모든 탐구명에서 피를 흘리시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영적 고난을 겪는 순간에서조차도 그분은 아버지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가복음 14:3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우리의 성약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대적의 불화살”(니파이전서 15:24)에 맞서 구주의 모범을 따라 자신을 굳건히 지키며, 영을 위하여 심고 주님의 영역에 거하는 것입니다. 몬슨 회장의 공식을 모두 기억합시다. “사람이 잘못을 하면 의로워질 수 없으며 의를 행하면 잘못될 수도 없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신앙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가 그분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자녀가 성스러운 신앙의 품 안에 머물기를 바라십니다.

교회 총관리 역원은 세계 곳곳에서 회원들을 만나면서 후기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을 직접 봅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하는 모든 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보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총관리 역원들은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여론 주도층과 언론인이 교회와 회원들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점점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모아 보면 결론적으로 교회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¹

교회에 대해 글을 쓰는 많은 사람이 교회 회원과 우리 교리에 대해 알아보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예의를 지키며 객관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우리는 그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스러운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압니다. 영국 연방 내 유대교 최고 지도자인 로드 색스는 지난 12월, 로마 바티칸에 있는 그레고리안 대학교에서 천주교 지도자들에게 연설을 할 때 일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세속적인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종교에 관한 말이라면 귀를 닫아 버리는 과학적 무신론이 활개칩니다.”²라고 말했습니다.

물문경 앞부분에 나오는 생명나무에

관한 리하이의 예언적인 꿈은 하나의 위대한 시현입니다.³ 이 시현은 우리 시대에 신앙인이 처하는 도전에 관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따르려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큰 간격을 분명하게 묘사합니다. 리하이는 신앙을 파괴하는 몇 가지 행위를 설명합니다. 어떤 이는 교만하고, 헛되고, 어리석습니다. 소위 세상의 지혜라는 것에만 관심을 쏟습니다.⁴ 하나님께도 관심을 보이지만 세상적인 어둠과 죄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⁵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맞보았으나 비웃는 사람들 때문에 부끄러워하며 “금단의 길”⁶로 떨어져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끝으로 종교 이야기에 귀를 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그분의 복음을 사랑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특히 가족과 나누려고 노력합니다.⁷ 여러분은 영의 속삭임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권능을 느끼며, 가정에서 경건하게 생활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기독교인답게 생활하려 부지런히 애씁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정말 바쁘다는 것을 압니다. 유급 성직자로 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운영하는 책임은 여러분과



같이 헌신적인 회원들이 집니다. 감독단과 스테이크 회장단, 또 여러 회원이 오랜 시간 동안 헌신하여 봉사하는 모습을 흔히 봅니다. 보조 조직 및 정원회 회장단도 이타적으로 희생하는 모범을 보입니다. 이런 봉사와 희생은 전체 회원들로 번져 기록을 작성하는 서기, 충실한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사, 각 반 교사에게까지 미칩니다. 담대하게 봉사하는 스카우트 단장과 유아반 지도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며,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구주의 가르침에 관심이 적고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회원들이 있다는 점도 저희는 압니다. 그런 회원들이 신앙심을 온전히 찾아서 더 많은 활동과 헌신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가 그분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자녀가 성스러운 신앙의 품 안에 머물기를 바라십니다. 구주의 속죄는 만인을 위한 선물입니다.

리하이가 묘사한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점을 가르치고 이해해야 합니다.⁸ 심판은 우리 몫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심판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⁹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자제하는 용기”¹⁰를 내려며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또한 회장님은 협착하고 좁은 길을 아직 찾지

못한 사람들은 물론이요 복음의 열매를 맛보았으나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구조해 달라는 요청을 모든 충실한 성도들에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쇠막대를 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은 그들의 “영혼을 심히 큰 기쁨으로”¹¹ 가득 채워 줄 것입니다.

리하이의 시현에 온갖 사람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교리적인 핵심 개념은 영원한 가족의 중요성입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가족은 현재와 영원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 조직[입니다].”¹² 리하이는 생명나무의 열매(하나님의 사랑)를 먹었을 때 “가족들도 역시 그 열매를 먹기를”¹³ 간절히 바랐습니다.

자녀를 진리와 의로움 속에서 키우는 것은 우리의 염원입니다. 이것에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원리는 어리석거나 현명하지는 못하지만 죄가 되지 않는 행동을 지나치게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 자녀들이 저희와 함께 지내던 시절에 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교정을 해 주어야 할 청소년들의 실수를 징계와 회개가 필요한 죄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¹⁴ 지혜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녀를 교육해야 합니다. 죄를 범한 경우에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¹⁵ 이런 권고는 우리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종교적 분위기는 가족에게 축복이 됩니다. 모범이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범은 말보다 더 큰 영향을 자녀들에게 미칩니다. 제가 다섯 살쯤 되었을 때, 외삼촌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일본 근해에 떠 있던 전함에서 적의 폭격을 받아 전사했다는 소식이 어머니에게 전해졌습니다.¹⁶ 이 소식은 어머니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척 상심하여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잠시 뒤에 저는 어머니가 괜찮은지 보려고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무릎 꿇고 침대 옆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구주께 기도하고 그분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어머니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큰 평안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보여 주신 모범의 한 예일 뿐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다른 어떤 모범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가족을 가르칠 때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역, 속죄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니파이후서 25장 26절은 우리 신앙의 특징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성구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하노니,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리하이의 시현 저변에 있는 한 가지 원리는 충실한 회원은 쇠막대를 굳게 잡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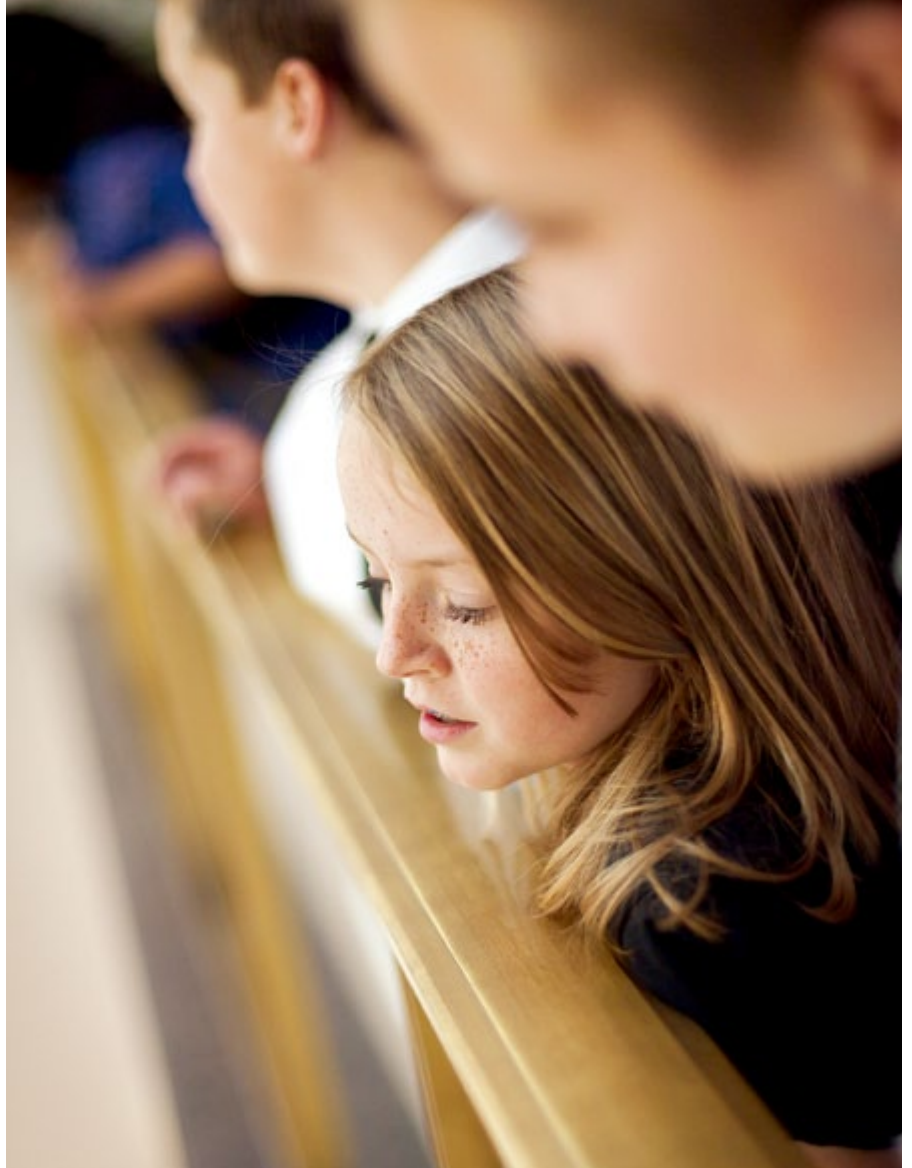
생명나무에 이르는 험착하고 좁은 길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원들은 경전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¹⁷

무엇보다도 몰몬경이 중요합니다.¹⁸ 물론 이 성스러운 책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거나 심지어 비방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농담 소재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봉사하기 전에 한 대학교 교수는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하며, 몰몬경에서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를 제하면 “한낱 소책자에 불과할 것”¹⁹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뒤에 영국 런던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을 때, 이집트 출신으로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수학한 후 런던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저명한 교수이자 셈어 전문가가 몰몬경을 읽고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에게 연락하여 선교사들과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는 몰몬경이 유대인의 학문이자 몰몬경에 묘사된 시기에 사용된 이집트어의 번역물임을 확신한다고 선교사들에게 말했습니다.²⁰

그가 들었던 많은 예 가운데 하나는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라는 접속구로, 이것은 고대 셈어에 사용된 표현을 번역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²¹ 그 교수는 직업상의 이유 때문에 학문적인 접근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영적인 간증도 꼭 있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구와 기도로 영적인 증거를 얻어 침례를 받았습니다. 유머가 있었던 유명 작가가 비웃음의 대상으로 보았던 것을, 한 학자는 몰몬경의 참됨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인식했고, 영이 그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선택의지라는 필수적인 교리에 따라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은 외형적이거나 과학적인 증거가 아닌 신앙에 기초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고 구주가 부활할 수 있었을까, 또는 조셉 스미스가 정확히 어떻게 우리 경전을 번역했을까 등과 같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쏟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영적인 발전에도 득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결국 몰몬경을 읽고 깊이 생각한 다음 진정한 의도를 갖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영의 증거로 경전의 참됨을 확인해 보라는 모로나이의 권고만이 정답입니다.²² 경전에 있는 권고를 생활에 적용하고 복음에 따라 생활할 때, 영의 축복을 받아 기쁨과 행복, 특히 평안 등 여러 느낌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²³

분명한 것은 신앙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귀를 막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 사이의 경계선은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저는 수년 전에 사랑하는 선지자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경전을 읽고 공부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셨을 때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관심하게 될 때, 그리고 신성한 귀가 듣지 않고 신성한 음성이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느낄 때, 제가 하나님에게서 아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자신을 경전에 몰입시킬 때, 그 거리가 좁아지고 영성이 돌아옵니다.”²⁴

저는 우리가 자녀와 함께 정기적으로 몰몬경을 읽고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자녀들과 토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자녀들은 자기들이 관찰한 두 가지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첫째, 가족이 매일 경전을 꾸준히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 딸아이는 십대 자녀들과 함께 이른 아침마다 꾸준히 경전을 읽으려는 노력을 유쾌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딸은 남편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졸린 눈으로 계단 난간을 잡고 내려가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과정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꾸준함이 비결이며, 유머 감각이 도움이 됩니다. 온 식구가 매일마다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꾸준히 하면 일시적인 차질은 다 극복됩니다.

둘째는 막내 아들 부부의 경험입니다. 그들은 어린 자녀들과 경전을 읽고 있습니다. 네 자녀 중 두 아이는 아직 글을 읽지 못합니다. 아들 내외는 다섯 살 된 아이를 위해 다섯 가지 손가락 신호를 만들었고, 아이는 이에 반응하며 가족 경전 읽기에 온전히 참여합니다. 손가락 하나는 물문경에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라는 구절이 나오면 따라서 그 말을 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 구절이 매우 자주 나온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 듭니다. 손가락 두 개는 “이리하여 우리는 ……” 을 의미하고, 손가락 세 개, 네 개, 다섯 개도 그들이 읽는 부분에 나오는 말에 따라 그 부모가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가족 경전 공부와 가정의 밤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니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 필멸의 세상에서 반드시 거치는 시험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신앙의 말씀에 귀를 막는다면 그 사람은 영의 속삭임을 절대 듣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각자는 깨달아야 합니다. 선지자 니파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은 …… 그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또 그가 당신들에게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말하였되, 당신이 감각이 없어 그의 말씀을 감지할 수 없었나이다.”²⁵

우리 교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활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앙을 강조합니다. 주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방향을 알려 주신다는 그분의 확언을 감사드립니다.²⁶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며, 우리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자비로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으로 말미암아 계획의 모든 면에서 성취될 것임을 성신이 우리 마음에 증거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작사한 나오미 더블유 랜덜 자매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앙의 인내 있을 때 …… 주의 영이 인도하며 두려움이 사라지네”²⁷

리하이의 시현에 나온 제자의 길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구주께서 주시는 영생이라는 무한한 은사를 받게 된다는 소망을 우리와 우리 가족이 더 강하게 지니게 합시다. 저는 우리가 신앙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그리고 속죄의 실재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30 참조.
2. Jonathan Sacks, “Has Europe Lost Its Soul?”(2011년 12월 12일에 바티칸 그레고리안 대학교에서 천주교 지도자들에게 한 연설), chiefrabbi.org/ReadArtical.aspx?id=1843
3. 니파이전서 8장 참조.
4. 니파이전서 8:27; 11:35 참조.
5. 니파이전서 8:23; 12:17 참조.
6. 니파이전서 8:28.

상파울루, 브라질



7. 니파이전서 8:30 참조.
8.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구주의 가르침이다. 마태복음 18:12~14 참조.
9. 요한복음 5:22 참조, 또한 마태복음 7:1~2 참조.
10. 토마스 에스 몬슨, “용기를 가지십시오”,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124쪽.
11. 니파이전서 8:12.
12. *자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1.1.1.
13. 니파이전서 8:12.
14. Dallin H. Oaks, “Sins and Mistakes”, *Ensign*, Oct. 1996, 62 참조. 옥스 장로는 1980년 경에 브리검 영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이 개념을 가르쳤다.
15. 교리와 성약 1:25~27 참조.
16. Marva Jeanne Kimball Pedersen, Vaughn Roberts Kimball, a Memorial (Crozier Kimball family, 1995년) 참조. 받은 1941년 가을에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미식축구 쿼터백 선수로 활약했다. 1941년 12월 8일에 진주만 공습이 있을 후 미 해군에 지원했고, 1945년 5월 11일에 일본군이 미국 전함 병거함을 공습할 때 죽어 바다에 묻혔다.)
17. 요한복음 5:39 참조.
18. 에스라 테프트 벤슨, “물문경-우리 종교의 종석”,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4쪽; 또는 *리아호나*, 2011년 10월호, 52쪽 참조
19. Mark Twain, *Roughing It* (1891), 127-28. 새로운 세대는 트웨인의 말을 접하면 마치 그것이 상당히 새로운 발견인 것처럼 받아들인다. 마크 트웨인이 대체로 기독교와 종교를 경멸했다는 사실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20. 니파이전서 1:2
21. 나는 런던에서 장로들이 에바이드 사로핀 박사를 가르칠 때 그를 만났다. 또한 N. Eldon Tanner, Conference Report, Apr. 1962, 53 참조. 고대 셉어와 이집트어 기록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 ”라는 접속구가 문장의 첫 부분에서 반복되어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해 왔다. *Hugh Nibley, Since Cumorah*, 2nd ed. (1988), 150 참조.
22. 모로나이서 10:3~4 참조. 진정한 의도를 지니고 물문경을 알아보려는 비평가는 거의 없었다.
23. 교리와 성약 59:23 참조.
2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유 김블*(2006), 66쪽.
25. 니파이전서 17:45. 또한 에스라 테프트 벤슨, “주님의 영을 구함”, *성도의 빛*, 1988년 9월호, 5쪽 참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흔히 느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민감하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느낌을 통해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26. 교리와 성약 68:6 참조
27. “신앙의 인내 있을 때”, 찬송가, 84장.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삶에 필요한 계시와 영감을 받는 방법

주님은 왜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문기를 바라실까요? 바로 그렇게 해야 계시를 받기 때문입니다.

말 씬을 하기 위해 이 연단에서는 사람을 누구나 전 세계 회원들의 힘과 지지를 느끼게 됩니다. 회장 저편에 있는 사랑하는 동반자에게서도 그런 지지를 받게 되어 기쁩니다. 고마워요, 지니.

성신은 필멸의 여정에 지침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전해 줍니다. 그 정보가 명확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마땅히 계시라고 불릴 만합니다. 그 정보가 속삭임의 형태로 연속해서 오는 경우, 우리는 한 걸음씩 합당한 목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영감이며, 제 말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계시에 대해서는, 스펜서 터블유 김볼 회장님이 당시에 신권을 일부에게만 부여하던 것을 교회 내 모든 합당한 남성에게로 확대하는 문제로 주님께 오랫동안 계속 기도한 후 받으셨던 지시를 한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계시에 관한 또 한 가지 예는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이 받으신 것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가 움직여서 하늘 사자들과 하늘의 존재들 앞에 거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 우리는 친척이나 조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

우리보다 먼저 영의 세계로 가신 분들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분들을 잊을 수도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늘 우리 마음과 기억 속에 머물러 있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들과 맺은 인연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 필멸의 약점으로 둘러싸인 유한한 상태에서도 이럴진대, …… 충실한 삶을 사시다가 세상을 먼저 떠나신 분들이 우리가 그분들을 보는 것보다 더 잘 우리를 보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우리를 아신다는 점을 믿기란 …… 얼마나 더 쉬운 일입니까! …… 우리는 그분들의 면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의 복리를 염려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그분들은 우리를 에워싼 위험을 보고 계십니다. …… 우리를 향한 그분들의 사랑,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바라시는 그분들의 마음이 우리가 스스로를 염려하는 마음보다 분명히 더 클 것입니다.”¹

회장 저편에 계시는,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그분들과의 관계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때 가능해집니다. 죽음으로 생기는 이별은 잠깐이지만

성전에서 맺은 성약은 영원하다는 것을 인식하면, 앞서 떠나 보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꾸준히 순종하면, 그러한 성약을 통해 그 안에 내재된 약속이 영원에 걸쳐 실현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제 삶에 있었던 매우 분명한 계시 하나를 들자면, 바로 지니 왓킨스에게 성전에서 저에게 인봉되어 달라고 청하라는 강한 영의 속삭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배워야 할 큰 교훈 중 하나는 바로 묻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며 문기를 바라실까요? 바로 그렇게 해야 계시를 받기 때문입니다.

매우 힘든 문제에 부딪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위해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저는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성구를 찾아보며 이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성구를 읽다가 그 성구가 무슨 뜻인지 상고하고 영감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주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것을 모두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숙고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종종 교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동시에 더 많은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경전을 통해 배우는 것이 좋은 방법의 전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시를 더 잘 받기 위해서 지켜야 할 원리들이 있습니다. 첫째, 분노나 상처 또는 피해 의식과 같은 감정에 사로잡히면 성신은 물러납니다. 그러한 감정을 몰아내지 않으면, 계시를 받을 기회는 줄어들니다.

또 하나의 원리는 농담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요란하고도 적절치 못한 웃음은 영을 해칩니다. 좋은 유머 감각은 계시에 도움이 되지만, 시끄러운 소리로 웃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유머 감각은 삶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배출구가 됩니다.

계시를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는 과장하거나 요란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고 차분한 이야기가 계시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건강에 좋은 습관은 영적인 소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운동과 적절한 수면, 좋은 식습관은 계시를 받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수명까지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여 적절한 선택을 하면 봉사의 질과 복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활동이 영에 귀 기울이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계시는 잠을 자던 상태에서 깨어나는 상태로 바뀌는,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찰나에 꿈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그 꿈 내용을 기록하려고 애쓰다면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기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밤중에 이루어진 그 대화가 영적이었다면, 대개 그 경험 전체에 대해 성스러운 느낌이 들 것입니다. 주께서는 꿈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무척 존경하는 사람들을 활용하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신뢰하여 그분들의 권고에 귀 기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신을 통해 가르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꿈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 통해 우리를 가르침으로써 그 가르침이 더 쉽게 이해되고 우리 마음에 더 와 닿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목적에 맞을 경우, 그 무엇이든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영의 느낌을 기록하겠다는 결심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영감을 정성 들여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해 주신 것을 성스럽게 여긴다는 뜻을 그분께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의 지시에 관한 기록은 절대 잃어버리거나 타인이 함부로 손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진리대로 살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 수 있고, 필요할 경우 하늘 권능으로 우리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영감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전에는 고난과 의심과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이는 도전을 이기도록 필요한 시기에 주님을 통해 어떻게 능력이 강화되는지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예들을 상고하다 보면 그 일들이 사실이라는 확신이 성령을 통해서 조용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어려움에 닥쳐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급히 필요한 해결책을 찾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높은 곳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느니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말한 대로 줄 수 있도록 권능을 부여 받으리라.”²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말이 다소 의아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해롤드 비 리 회장님이 저에게 설명해 주셨듯이 여러분도 그 말을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는 말로 바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그 권고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³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청결하고 순수한 의도를 지녀야 주님의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의 신뢰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영감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늘의 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해지고 더욱 민감해질 수 있으려면 그 영을 의로운 환경에 심어야 합니다. 오만이나 교만, 자만심은 돌발 같아서 결코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겸손은 비옥한 토양과 같아서 바로 그곳에서 영성이 자라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는 영감의 열매가 열립니다. 겸손하면 하늘의 권능을 받아서 해야 할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칭찬이나 인정을 바라는 사람은 영의 가르침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만하거나 자기 감정대로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은 영의 인도를 강하게 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때는 자신만 생각하는 때보다 더 쉽게 영감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주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도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성공을 위해서였습니다. 모순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 때문에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인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게도 자신의 경험과 능력에 의존하여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기도와 하늘의 영감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자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순종하면, 필요한 때 영감 받은 목표를 성취하도록 하늘의 권능을 받기에 합당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다수가 그렇듯이 올리버 카우드리도 주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미 주신 증거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 또한 우리의 눈을 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시가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네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는 네가 내게 물었음이라, 보라, 네가 물을 때마다 너는 나의 영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너는 네가 지금 있는 곳에 오지 못하였으리라.

보라, 네가 내게 물었고 이에 내가 네 마음을 밝혀 깨닫게 해 주었음을 너는 알고 있나니, 이제 내가 이 일들을 네게 말함은 내가 진리의 영으로 비추임을 받아 깨닫게 된 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성구들을 상고해 보시고, 그분이 이미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응답해 주셨을 증거를 조심스럽게 찾아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는 마음에 깃드는 평안과 고요하고 따스한 느낌, 이 두 가지 요소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원리들을 따르시면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계시를 인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인도를 열심히 따르면 따를수록 여러분의 행복은 이곳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더 커질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발전과 봉사 능력도 더 커질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삶이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선택의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선택하는 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하려 하면 마음에 평안과 행복이 온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릇된 선택을 한 경우에는 회개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완전히 갖춰지면,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실수한 부분에 대한 공의의 요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단순하고도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늘 의로운 삶을 살면 무엇을 해야 할지 항상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큰 노력과 신뢰를 보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하늘의 인도를 받을 조건을 갖추면, 즉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의 행복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것에 역행하는 것을 피하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인도받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스러운 특권이며, 변하지 않는 영원한 원리에 기초합니다. 신앙을 갖고 순종하며 선택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습니다.

개인적인 계시, 그리고 영감으로 이어지는 원리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주

1. Joseph F. Smith, Conference Report, Apr. 1916, 2-3; 또한 *Gospel Doctrine*, 5th ed. (1939), 430-31 참조.
2. 교리와 성약 43:16.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2000), 34쪽 참조.
4. 교리와 성약 6:14~15.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늘의 권능

나이가 적든 많은 신권 소유자가 구원 사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권세와 권능, 즉 그 사업을 행하는 데 필수적인 권한의 위임과 그것을 사용할 영적 능력, 이 두 가지 모두를 지녀야 합니다.

사 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신권 소유자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는 세계 곳곳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래 전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이 교회 회원들에게 하신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각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한 문장이나 문구로 말해 보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The Mission of the Church and Its Members,” *Improvement Era*, Nov. 1956, 781)

이 질문에 대해 맥케이 회장님이 하신 대답은 바로 신권의 “성스러운 권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역사적 계승이나 경전, 또는 신학적 훈련을 통해 그들의 권세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여타 교회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 사자들이 안수함으로써 신권 권세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직접 부여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저는 이 성스러운 신권과 하늘 권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중요한 진리를 배우는 동안 주님의 영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신권 권세와 권능

신권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남성에게 인류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행하도록 위임하신 그분의 권세입니다. (Spencer W. Kimball, “The Example of Abraham,” *Ensign*, June 1975, 3 참조) 신권은 주께서 인간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사용하시는 방편입니다. 고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뚜렷한 특징 중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점입니다. 성스러운 권세가 없는 참된 교회란 있을 수 없습니다.

신권 권세는 평범한 남성에게 주어집니다. 신권 성임에 필요한 자격은 경험, 전문 지식, 또는 교육이 아니라 합당성과 기꺼이 행하려는 마음입니다.

신권 권세를 얻는 방식은 신앙개조 제5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에 의하여 또 권세 있는 자에 의한 안수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야

함을 믿는다.” 그러므로 소년 또는 남성은 신권을 소유한 사람에게서 신권 권세를 받고 특정한 직분에 성임됩니다. 또한 성임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권 열쇠를 지닌 지도자에게서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권 소유자는 이 성스러운 권세를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와 뜻과 목적에 맞게 행사해야 합니다. 이 신권에는 자기중심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신권은 언제나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축복하며, 강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신권은 엄숙한 성약으로 받게 되는데, 이 성약에는 자신이 받은 권세(교리와 성약 68:8 참조)와 직분(교리와 성약 107:99 참조)을 행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를 지닌 우리는 행함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행하는 주체입니다. (니파이후서 2:26 참조) 본질적으로 신권은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인 것입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신권을 받은 후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행동하도록 부추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권을 받을 때에는 지상에서 의의 대업을 진척시키도록 열심히,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의무도 받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받기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의심하는 마음으로 명령을 받고 그것을 게을리 지키는 자, 그는 정죄를 받느니라.” (교리와 성약 58:29) (So Shall Ye Reap [1960], 21)

스펜서 더블유 김블 회장님 또한 신권은 적극성이라는 속성이 있다고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강조하셨습니다. “계명을 어기는 것이 신권 성약을 깨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신권



성약을 깨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약을 깨기 위해서라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된다.”(용서가 낳는 기적[1969], 92~93쪽 참조)

최선을 다해 신권 책임을 이행할 때, 우리는 신권 권능을 축복받게 됩니다. 신권 권능은 우리와 같은 소년과 남성을 통해 작용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을 얻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의로움과 순종, 근면이 요구됩니다. 소년 또는 남성은

안수로써 신권 권세를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불순종하거나 함당하지 않고, 또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신권 권능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신권의 권리는 하늘의 권능과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고,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통제되거나 다루어질 수 없다 함이니라.

신권의 권리가 우리에게 부여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사실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은폐하려 하거나 우리의 교만, 우리의 헛된 야망을 만족시키려 하거나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사람의 자녀들의 영혼을 통제하거나 지배하거나 강압하려 하면, 보라,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심히 슬퍼하니, 주의 영이 물러가면, 그 사람의 신권 곧 권세는 아멘이니라.”(교리와 성약 121:36~37; 기율임체 추가)

형제 여러분, 신권 권세를 받기는 하나 신권 권능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데 필요한 일을 게을리 하는 사람은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나이가 적든 많은 신권 소유자가 구원 사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려면 권세와 권능, 즉 그 사업을 행하는 데 필수적인 권한의 위임과 그것을 사용할 영적 능력, 이 두 가지 모두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교훈

저는 신실한 어머니와 훌륭한 아버지가 계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교회와 하나님 왕국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개척자의 후손이십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니었으며, 천주교 사제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신학교에 다니지 않기로 하였고, 그 대신에 연장과 거푸집 만드는 직업에 종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결혼 생활 중 상당한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모임에 참석하셨습니다. 사실, 와드 회원 대다수는 아버지가 교회 회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를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와드 소프트볼 팀에서 선수이자 코치를 맡으셨고, 스카우트 활동에 도움을 주셨으며, 어머니가 여러 부름과 책임을 수행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신권 권세와 권능에 관해 아버지께 배운 큰 교훈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소년 시절에 매주 아버지께 언제

침례를 받으시겠냐고 여러 번 여쭙었습니다. 제가 조를 때마다 아버지는 다정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이비드, 나는 네 엄마나 너를 위해, 또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에 가입하지는 않을 거야.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할 거란다.”

제가 십대 초반이던 시절, 어느 일요일에 아버지와 저는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일요일 모임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또다시 침례를 언제 받으실 거냐고 여쭙었습니다. 아버지는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침례에 대해 묻지 않는 날이 없구나. 오늘은 내가 질문이 하나 있단다.” 저는 마음이 들떠서 드디어 뭔가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이비드, 너희 교회에서는 고대에 신권이 지상에서 거두어졌고, 하늘 천사들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이를 회복해 주었다고 가르치지, 그렇지?” 그렇다고 대답하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질문은 이런 거란다. 나는 매주 신권회에서 감독님과 다른 신권 지도자들이 형제들에게 가정 복음 교육과 신권 의무를 수행하라고 상기시키거나 부탁하거나 간청하는 말을 듣는단다. 정말로 너희 교회에 회복된 하나님의 신권이 있다면, 어째서 그 수많은 너희 교회 남성들은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면에서 내가 다니는 교회 남성들과 별다른 게 없는 것일까?” 어린 제 머릿속은 갑자기 텅 비어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성스러운 권세가 있다는 우리 교회의 주장이 타당하지를 당신이 참석하던 워드 회원들의 결점만으로 판단한 아버지의 방법이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질문에 담긴 생각, 곧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을 지닌 사람은 여타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신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행동 면에서는 달라야 합니다. 신권을 소유한 분들은 신권 권세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는 합당하고 충실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기구를 메는 너희여 깨끗할지이다.”(교리와 성약 38:42)

저는 신권 권세와 권능에 관해 아버지께 배운 교훈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교회에 속하지는 않으셨지만 선한 분이셨고, 하나님의 신권을

지녔다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저는 오래 전 그 일요일 오후에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계기로 “착한 사람”이 되겠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회복된 복음에 관해 배워 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나쁜 모범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권세를 지닌 자로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훌륭하고 유덕하며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아버지가 침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은 아마 여러분에게도 즐거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적절한 때가 되자 저는 아버지께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었던 멋진 경험 중 하나는 아버지가 신권 권세를 받고, 마침내는 신권 권능을 얻는 모습을 지켜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배운 이 신랄한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단순한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수로 신권 권세를 받는 것은 중요한 시작이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권세는 성임만으로도 부여되지만, 힘써 영혼을 고양시키고, 가르치고 간증하며, 축복하고 권고하며, 구원 사업을 진척시키려 할 때 권능으로 행하려면, 의로워야 합니다.

지구 역사상 이 중대한 시기에 신권을 지닌 여러분과 저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손에 든 효과적인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어서야 합니다. 구주께서 니파이인 사이에서 성역을 시작하실 때 부르신 열두 제자 중 첫 번째인, 힐라맨의 손자 니파이의 모범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게서 배우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이에 그[니파이]가 많은 일을 그들에게 베풀었으니 …… 또 니파이가 권능과 큰 권세로 성역을 베풀니라.”(제3니파이 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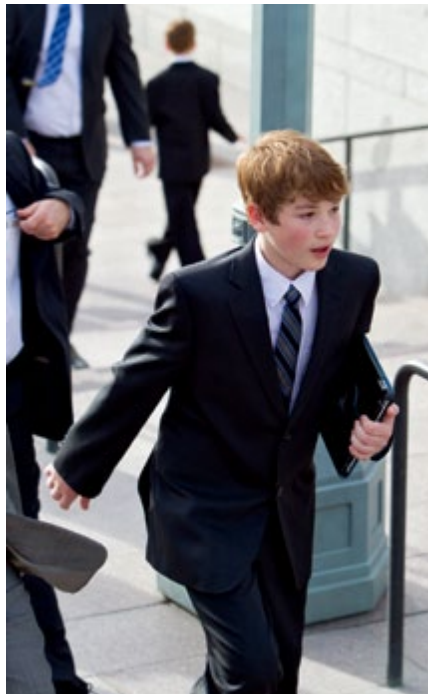
“제 남편이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던 시절에 성전 추천서 접견을 할 때면, 접견을 마치기 전에, 저는 결혼한 자매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가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가장 훌륭히 봉사할 수 있을지를 종종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그 충실한 여성들에게서 들은 대답은 한결같이 교훈적이면서도 걱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자매님들은 불평이나 비난은 좀처럼 하지 않았지만 이따금씩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이 신권 지도자로서 가정에서 해야 할 책임을 이해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저는 경전 공부와 가족 기도, 가정의 밤을 이끌어 가는 게 즐겁고, 물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동등한 협력자가 되어 남편만이 줄 수 있는 강한 신권 지도력을 발휘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감리하고 보호하는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축복사가 되고 신권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를 배우도록 우리 남편을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그 자매님들의 진심 어린 요청을 자주 돌이켜 봅니다. 지금 신권 지도자들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듣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신권 권세뿐 아니라 신권 권능도 함께 지니기를 갈망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복음에 초점을 맞추는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신권 동반자인 충실한 남편과 함께 동등하게 명예를 메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자매들의 간청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실제 모습을 직시하고(교리와 성약 93:24 참조), 바꾸고 개선해야 할 점을 인식하도록 성신이 우리를 도울 것임을 약속합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의의 모범이 되십시오

오늘 밤 저는 우리에게 신권 소유자로서 “의로움의 모범”이 되라고 권고하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가르침을 되풀이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주님의 심부름을 행하므로 우리의 합당성에 입각하여 그분의 도움을 구할 자격이 있다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의로움의 모범”,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65~68쪽 참조) 여러분과 저는 이 경륜의 시대에 하늘 사자인 침례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상에 되돌려준 신권 권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 신권을 받는 모든 남성은 자신의 권세권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마지막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이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표하기에 합당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주님의 성스러운 권세를 행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가 신권 권능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거룩한 신권이 참으로 이 후기에 지상에 회복되었으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또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 교회의 대신권을 감리하는 감리 대제사이며(교리와 성약 107:9, 22, 65~66, 91~92 참조) 이 지상에서 모든 신권 열쇠를 소유하고 그 열쇠를 행사하도록 권한을 받은 유일한 분임을 증거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



리차드 시 에즐리 감독
이번 대회에서 해임된 감리 감독단 제1보좌

실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구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시하신 일입니다.

최 근 몇 달 동안 교회에서는 '실질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점점 더 많이 강조되었는데, 이것은 성약과 구원 의식을 받고 지키며, 엘마가 묘사했듯이, 마음에 크나큰 변화를 경험하는 생활을 하려 하는 모든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말합니다.(엘마서 5:14 참조) 교회에서 실질적 성장을 이루는 가장 중요하고도 뜻 깊은 방법은 침례를 받고서도 복음의 축복과 구원 의식을 받지 못한 채 저활동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구조하는 것입니다. 각 회원이 받은 각종 부름, 예를 들어 가정 복음 교사나 방문 교사, 주일학교 교사, 감독, 아버지, 어머니, 총관리 역원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의미 있는 방법으로 구조 노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족, 비회원, 저활동 회원, 회개가 필요한 사람 등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데려와 구원 의식을 받게 하는 일은 우리가 모두 참여해야 하는 신성한 부름입니다.

스태이크 회장단에서 봉사하던 30여 년 전 어느 여름날 아침, 저희는 헌신적인 한 감독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와드 회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합당한 모든 회원에게 의미 있는 부름을 주기에는 부름이 모자랄 지경이라고 설명하며 와드 분리를 건의했습니다. 와드 분리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저희는 스테이크 회장단으로서 그 와드를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모든 훌륭한 합당한 형제 자매들을 스테이크 선교사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방문한 사람은 인근 대학교에 다니는 한 젊은 여학생이었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눈 뒤 저는 그 자매님에게 선교사로 봉사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간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저는 잠시 말을 잊지 못하다가 "자매님이 교회에 안 나오는 줄 몰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교회에 안 나간 지 벌써 여러 해가 되었어요.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건 회장님도 잘 아시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매님네 와드는 오전 9시에 모임을 시작합니다. 예배당으로 오시기만 하면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자매님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나에게 인사를 해 주는 사람이 있을지, 모임 동안 나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이 혼자 앉게 되는 건 아닐지,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 줄지, 누가 새로운 친구가 되어 줄지도 걱정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제가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만을 여러 해 동안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얼마간 침묵이 흐른 뒤에 그녀는 "지난 석 달간 저는 다시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길을 찾게 해 달라고 기도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장님, 이 부름이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일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자매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는데, 제 눈가가 축축하게 젖어 들었습니다.

그녀는 부름을 받아들였고,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이 그 자매님 자신에게는 물론 그녀의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큰 기쁨을 가져다주었다고 확신합니다.

이와 비슷한 여러 접견을 통해 저는 몇 가지 사실을 배우고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 저는 많은 저활동 회원들에게는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 매일 무릎 꿇고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저는 저활동 회원이 교회로 돌아오기가 그리 쉽거나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들에게는 도움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정증진이 필요합니다.
- 또한 다시 교회로 돌아오려고 마음먹고 그 길을 찾으려 애쓰는 저활동 회원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 부탁하기만 하면 부름을 받아들일 저활동 회원이 많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 저활동 회원을 사랑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딸로 동등하게 대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점도 배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학생 자매님을 제가



재활동 회원으로 생각하고 접견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 하고 여러 해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재활동회는 주님의 사업에서 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구조하는 책임이 모든 회원의 몫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을 선도하는 책임은 아론 신권 및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은 신권 봉사, 즉 모든 사람을 성약으로 인도하여 평화와 행복, 자부심을 가져다주는 일과 직결됩니다.

조램인이 교회에서 떨어져나간 것을 알게 된 엘마 이세가 이 백성을 구조하기 위해 재활동 팀을 조직한 물문경 속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맡은 일을 하러 나갈 때, 엘마는 주님께 다음과 같이 간구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함에 있어 성공을 거두게 해 주시겠나이까.

주여, 보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은 귀하며, 저들 중 많은 자가 우리의 형제들이오니, 그러므로 주여,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사, 우리로 이들 우리의 형제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엘마서 31:34~35; 기울임체 추가)

몇 달 전에 새로운 개종자와 재활동, 재활동화된 회원들과 모임을 했는데, 모임이 끝난 직후에 저와 같은 연배인 한 신사분이 제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거의 평생 재활동 회원으로 지냈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를 떠났지요. 그런데 지금은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성전에서 봉사합니다.”

저는 모든 것이 잘되었다는 말을 해 주고 싶어서 그분에게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신사분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 돌아왔지만, 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게다가 증손자, 증손녀들도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교회 밖에 있어요.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 조상 중에는 교회 초기에 유럽에서 교회에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한 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즐리 자매와 저는 이 조상의 비활동된 후손의 행적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합리적인 추정에 따라 여섯 세대 동안 대략 3,000명 정도의 가족 회원을 잃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두 세대 이후에 일어날 일을 이론적으로 따져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가운데 2만 명에서 3만 명을 잃어버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구조하는 책임은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큼을 기억하라.

이는, 보라, 주 너희 구속주가 육체로 죽음을 겪었음이라. 그런즉 그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자기에게 나아오게 하려고 모든 사람의 고통을 겪었느니라. ……

그리고 만일 너희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너희 온 생애 동안 수고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데려오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누리게 될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교리와 성약 18:10~11, 15; 기움임체 추가)

저는 살아오면서 저활동 회원 몇 사람을 구조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단 한 영혼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도록 도움을 줄 때 저는 단지 그 한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닐곱 세대, 아니 더 많은 세대, 수천 영혼을 그려봅니다. 그러면서 이 성구를 생각합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데려오면, ……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교리와 성약 18:15)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도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마태복음

9:3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꾼이 많아야 합니다. 세계 곳곳에는 유능하고 합당한 신권 소유자들과 헌신적인 교회 회원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역할을 다하는 와드 평의회, 신권 정원회, 상호부조회, 그리고 그 외 다른 보조 조직들이 구조하는 책임을 수행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구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시하신 일입니다.

앞서 저는 엘마와 그 동료들이 조램인 구조를 시작하면서 엘마가 드렸던 기도를 인용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 500명의 미국 병사들과 그들을 도와준 현지 주민이 포로수용소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을 고통과 안전이 걱정되었으므로 약 100명의 미국 병사로 구성된 자원 군대가 포로 구조를 위해 선발되었습니다. 지휘관은 이들 자원 병사들을 모아놓고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은 각자 믿는 종교의 성직자를 만나라. 그리고 무릎 꿇고, 여러분의 목숨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는 한, 그곳 포로 중 한 사람이라도 더는 고초를 겪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오기 바란다.”(Hampton Sides, *Ghost Soldiers: The Forgotten Epic Story of World War II's Most*

Dramatic Mission[2001], 28-29 참조) 이 구출 작전은 성공했고 포로들은 일시적이었지만 육체적으로 고통받던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영원한 결과로 고통받을 사람들을 구출하려 애쓰는 우리는 더 용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더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우리 하나하나를 위해, 즉 비회원과 저활동 회원, 회개가 필요한 사람, 우리 가족의 각 구성원을 위해 주께서 고난 받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 회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새로이 합니다. 저는 우리가 수천, 수십만 아니 수백만 명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복음이 주는 기쁨, 평화, 감미로움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우리가 지닌 신권과 회원들이 있으므로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부름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합니다. 아멘. ■



에이드리언 오초아
본부 청남 회장단 제2보좌

아론 신권: 일어나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십시오

신권은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 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빛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남아프리카에서 카기소 와드 제사 정원회 제1보좌인 타비소와 함께 한 집을 방문했습니다. 제사 정원회를 감리하며, 그 열쇠가 있는 감독님은 타비소와 함께 저활동인 정원회 회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누구를 방문하고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테벨로의 집을 방문하라는 속삭임을 느꼈고, 제게 함께 가자고 권유했습니다.

우리는 사나운 경호전을 무사히 지나 그 집 거실에서 테벨로를 만났습니다. 테벨로는 성격이 차분한 청남으로, 일요일에 다른 일을 하느라 바빠서 출근 교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테벨로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 하더니 이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고는 가족도 함께하도록 불러모았습니다. 감독님은 그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하고는 그들이 성전에서 인봉을 받아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감동했고, 우리는 모두 성신이 강하게 임하여 모든 말과 감정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방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타비소가 했던 말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 옛된 제사는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모두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나 특히 친구의 심금을 울린 사랑에 찬 말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너와 이야기를 할 때면 늘 즐거웠어.” 타비소는 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친절하게 말해주었잖아. 그리고 알겠지만, 내가 없어서 우리 축구팀도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야. 축구는 내가 잘하는데.”

테벨로가 답했습니다. “미안해. 너희한테 다시 돌아갈게.”

타비소가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좋지.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준비하던 거 기억해? 그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테벨로가 답했습니다. “응. 다시 하고 싶어.”

제가 본부 청남 회장단 보좌로서 겪는 일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아마도 전 세계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아론 신권 권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권능으로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청남을 볼 때면 마음이 슬퍼지기도 합니다.

신권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봉사하는 하나님의 권능이자 권세입니다. 정말로 모든 청남, 모든 아론 신권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신권에 천사의 성역을 베푸는 열쇠가 있다는 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친구가 구주께로 인도되는 길을 찾도록 도울 성스러운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주 명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복된 복음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기에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명백한 진실임을 느끼게 될 것임을, 청남들이 알 수 있다면 아주 좋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청남 여러분, 평생 마음속에 간직해주길 바라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중 그 무엇이 하나님의 신권보다 더 위대하겠습니까? 그 어떤 힘이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서 이웃의 삶을 바꾸고 죄와 잘못에서 깨끗하게 해 줌으로써 영원한 행복의 길로 향하도록 돕는 힘보다 더 크겠습니까?

다른 권능처럼 신권은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 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빛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교리와 성약 115:5) 부름받았습니다. 오직 용감한 사람만이 선택된 이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스러운 신권 권능을 행사함에 따라 용기와 확신이 커질 것입니다. 청남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길 때 자신이 최고의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훌륭한 일에 열심히 참여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깨끗하고 합당해짐으로써 신권 권능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이 6개월 전에 이 연단에서 여러분에게 하셨던 요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 선과 악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에 대해 염려하고, 이 전쟁에 스스로 동참하여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는 젊은이들과 연로한 분들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 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 더 강하고 더 헌신적인 목소리를 내도록 요청합니다. 단지 악한 것들[에] …… 반대하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선을 위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싸움 끝나는

날까지”,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44, 47쪽)

아론 신권 소유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에서 악에 대항하여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극적으로 의로움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저속한 말을 듣고서 못 들은 척할 수는 없습니다. 외설적이라고 알고 있는 장면을 혼자 또는 다른 이들과 함께 보고서 못 본 척할 수는 없습니다. 불결한 것을 만지면서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척할 수는 없습니다. 사탄이 건전하고 순수한 것을 파괴하려 할 때 수동적인 자세만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여러분이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을 위해 담대하게 서십시오! 주님의

표준에 어긋나는 것을 듣거나 보게 되면 여러분이 누구인지, 즉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으로 무장된 그분 군대의 용사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거짓의 아비인 적에게 대항할 때 진리보다 좋은 무기는 없습니다. 진리는 여러분이 신권 권능을 행사할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친구들 대부분은 여러분의 용기와 고결성에 존경을 표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분의 권능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분의 존중과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모든 아론 신권 정원회 회장단에게 다시 한 번 자유의 기치를 들어 올려 대대를 조직하고 이끌도록 요청합니다. 신권 권능을 사용하여 주변 사람에게 회개와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권유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명령과 권능을 받았습시다.

2년 전에 칠레 산티아고를 방문했을 때, 저는 종종 선교사들과 함께 다니는 청남인 다니엘 올라테를 만나고서 큰 감명을 받았습시다. 그 청남에게 연락을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다니엘의 허락을 받아 최근에 받은 이메일의 일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막 열여섯 살이 되었고 일요일에 제사 직분에 성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친구에게 침례를 주었는데, 이름은 캐롤리나입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캐롤리나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하여 청녀 개인 발전 표창도 받았습시다. 하지만 캐롤리나의 부모님은 침례 받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알고 신뢰하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캐롤리나는 저에게서 침례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여섯 살이 되는 일요일까지 한 달 정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친구가 침례를 받도록 도와서 기분이 좋았고 그 친구에게

침례를 준 사람이 저여서 행복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능에 부응해 살아가는 전 세계 여러 청년 중 한 명일 뿐입니다. 또 다른 청년으로 온두라스에 사는 루이스 페르난도가 있습니다. 페르난도는 친구가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말 그대로 친구의 삶을 구원했습니다. (“A Change of Heart”, lds.org/youth/video 참조) 브라질에 있는 올라보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진실한 상주 성역자(교리와 성약 84:111 참조) 역할을 하는 올라보는 어머니가 완전한 활동 회원이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Reunited by Faith”, lds.org/youth/video 참조) 여러분은 이 이야기들과 그와 같은 다른 일화들을 교회 청소년 웹 사이트인 youth.lds.org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인터넷, 소셜 미디어, 그 외 다른 기술들은 여러분이 신권 의무를 행사하고 진리와 정결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님이 여러분의 손에 맡기신 도구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설명한 방법대로 아론 신권을 행사한다면 미래에 맡게 될 책임을 위해 준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이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의 전형인 침례 요한처럼 여러분 역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이 오실 길을 공개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침례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한 요한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한다면 주님의 재림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3; 교리와 성약 65:1~3; 84:26~28 참조) 여러분은 자주 여러분에게 내재된 위대한 잠재력에 대해 듣습니다. 자, 바로 지금이 그 잠재력을 실현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활용하며, 그들을 희미한 곳에서 이끌어 내어 빛으로 인도하고, 주님의 길을 준비할 때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의무를 배우고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 책자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첨단 기기에서 벗어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지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을 얻게 되리라는 점을 약속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미치는 커다란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 주목받지 않는 사람을 찾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와 느끼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은 또래의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모범이 되십시오”,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115쪽)

신권 권능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간증드립니다. 저는 신권을 직접 행사하면서 그 증거를 얻었습니다. 아론 신권의 권능을 지닌 이들이 일으킨 기적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충실한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영으로 가득 찬 희망의 말을 전하며 빛과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의 마음을 열 때, 저는 천사의 성역이라는 힘을 목격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자 지도자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대제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는 신권 책임과 관련하여 자신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중요하며, 우리는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권에 대한 열정과 동기와 힘은 바로 '왜' 신권 봉사를 하는가 하는 물음에서 나옵니다.

신권 봉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되고, '왜'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서는 우리 영혼에 영감을 얻습니다.

'무엇'에서는 정보를 얻지만, '왜'에서는 변화됩니다.

할 수 있는 '훌륭한'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한 또 하나의 신권 부름은 그 후로 수년이 지나고 제가 가족을 이루었을 때 왔습니다. 저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다시 돌아왔는데, 당시 저는 막 승진했던 터라 상당히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며 일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기에 조셉 비 워스린 장로님께서 제게

스테인크 회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주셨습니다.

그분과 접견하는 동안 마음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부름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한 시간을 과연 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름에 마음이 겸손해지고 영광이라고 생각했지만,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잠깐에 불과했습니다. 워스린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신앙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내디뎌면 하나님께서 발 앞을 비춰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기쁘게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름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스테이크는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교사이자

지도자인 몇몇 분들에게서 훈련을 받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러셀 엠 넬슨 장로님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저희 지역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들의 가르침은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이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훈련 모임에서 받아 적었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면서 간증을 쌓고 가족을 강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복음 진리와 원리를 우리가 일하는 그 시기와 상황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감 받은 지도자들은 복음이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었고, 그런 후 우리는 팔을 걷어 올리고 일하려 나갔습니다.

곧 저희는 스테이크 회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영감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다면 정작 중요한 일은 놓쳐 버릴 것 같았습니다. 여러 일들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았기에 저희는 가르침 받은 비전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 갔습니다. 할 수 있는 ‘훌륭한’ 일이 많았지만,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훌륭한 일이라 해서 항상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활동이나 계획은 신권 봉사의 이유에 근거하여 그에 따라 영감받은 것이어야 하며, 추세나 기호에 휩쓸려 돌발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들로 우리의 노력이 분산되고 힘이 약화되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중심을 두지 못하고, 우리 자신만의 영적인, 또는 현세적인 관심사에 얽매이게 됩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결혼 생활에 활력을 더하며, 가족을 강화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일들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려면 자기 수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압니다. 무수한 가지와 잎이 달린 과일나무와 같이 우리의 삶은 정기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시간을 사용하여 우리의 진정한 목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¹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일이 중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지런히 경전을 연구하고, 선지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진지하고 헌신적이며 신앙에 찬 기도으로써 그렇게 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인생의 각 국면에 따라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성신을 통해 우리 마음과 가슴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순결하다면, 즉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또한 가족과 이웃의 삶을 축복하고자 소망한다면, 우리는 홀로 견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몬슨 회장님이 자주 일깨워 주시듯,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²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 앞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그분의] 영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천사들은 [여러분]을 둘러 있어

[여러분]을 받쳐 [줄 것입니.]”³

행동할 때 오는 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신권 봉사를 위한 우리의 부지런한 노력과 기꺼이 희생하려는 마음, 의를 행하려는 소망은 하늘로부터 축복을 불러옵니다. 수동적인 사람이 아닌 능동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가르치는 일은 좋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설교는 열기가 없는 불이자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물과 같습니다.

교리를 삶에 적용하고 행할 때, 복음의 성결케 하는 불꽃은 더 타오르고 신권 권능은 우리 영혼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백열 전구를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은 “아이디어는 그것을 사용할 때에만 그 가치를 발한다.”⁴고 말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 교리도 이를 활용할 때 더 가치가 있습니다.

신권에 관한 교리가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어 삶에 적용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조해야 할 결혼 관계나 가족이 있다면, 그것이 자신의 결혼 생활과 가족일지라도, 그저 앉아서 보고만 있지 맙시다. 그보다 신앙, 회개,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담긴 행복의 계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권의 교리를 적용하면 우리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써 신권의 이유를 이해하게 되며, 아름답고 거룩한 영원한 가족을 되찾고 지킬 힘이 생길 것입니다.

연차 대화는 언제나 말씀을 듣고 행할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⁵ 형제 여러분, 오늘과 내일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숙고한 다음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주시고 움직여 주시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간구하십시오. 일상생활과 교회에서 맡은 책임, 여러분이 현재 처한 특정한 문제에 대해 간절하게 인도를 구하십시오. 영의 속삭임에 따르고, 미루지 마십시오. 이 모두를 행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홀로 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계속 인내하십시오

하지만 아무리 선한 의도를 지녔더라도 일이 항상 계획했던 대로 풀리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살면서, 또 신권 봉사를 하면서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넘어져서 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기까지 계속하여 인내하라”⁶라고 권고하신



이유는, 온전하게 되려면 시간과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왜 있는지, 그리고 신권이 왜 있는지를 이해한다면 이 모든 것의 신성한 목적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동기과 힘을 얻을 것입니다. 복음 생활의 기본 원리에 계속 집중한다면 분명한 시각을 얻고 지혜와 인도를 받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위대한 대업에 힘써 나아가지 아니하겠습니까?”⁷ 네,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실수 속에서도 배울 것입니다. 넘어지면 일어설 것입니다. 비틀거리더라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간증합니다. 그분들은 실재하십니다!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을 염려하시며 의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지지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인류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자신이 보았다고 말한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지상에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신권 봉사의 이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삶과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회복된 복음 원리를 활용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 속죄의 무한한 권능은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성품을 정화하고, 정결케 하며, 정련할 것입니다. 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7:18.
2. 토마스 에스 몬슨, “배우고 행하고 되어야 할 사람이 됨,”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62쪽.
3. 교리와 성약 84:88.
4. Thomas Edison, in Elbert Hubbard, *Little Journeys to the Homes of Good Men and Great*, Book 2(1910), 155.
5. 야고보서 1:22.
6. 교리와 성약 67:13.
7. 교리와 성약 128:22.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성약을 맺은 가족

여러분의 가족에게 인봉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지 상에서 하나님의 신권을 지닌 모든 사람이 초대받은 이 모임에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게도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이 모임을 감리하십니다. 그분은 교회 회장으로 가족을 인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신권 의식을 인봉하는 열쇠를 책임지는, 살아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는 온 마음을 다해 이 은사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 저활동 상태에서 돌아온 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그와 아내는 1남 1녀의 어린 두 자녀를 사랑합니다. 여느 부모처럼 그 아버지도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사림이 그 곳에서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리라. 다만 그 사림에는 지금 우리가 향유하지 못하는 영광, 곧 영원한 영광이 수반되리라.”¹라는 성구를 읽으면서 하늘에서 누리게 될 행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와 함께한 그 아버지는 영광의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압니다.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분도 이미 압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진정한 회개, 또한 주님의 따뜻한 용서를 느끼도록 감독님이 친절하게 도와주셨을 때 찾아온 마음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엔다우먼트를 받으러 거룩한 성전에 갔을 때 놀라운 변화는 계속 일어났습니다. 엔다우먼트는 주님께서 이 경륜의 시대에 최초로 세워진 성전에서 권능을 준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은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이 까닭에 내가 너희에게 오하이오로 가라는 명령을 주었나니, 그 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율법을 줄 것이요, 그 곳에서 너희는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받게 되리라.

그리고 …… 그 곳에서부터 …… 이는 내가 큰 일을 간직하여 두었음이니, 대저 이스라엘은 구원 받을 것이요,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리니, 아무 권능도 나의 손을 막지 못하리라.”²

근래에 교회로 돌아온 제 친구와 모든 신권 소유자 앞에는 이스라엘에 속한 이들을 구원하라는 대업이 놓여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 현재나 미래의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족이 그 대상입니다. 제 친구 부부는 가족을 구원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멜기세덱 신권 권능으로 인봉받아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 친구는 제게 인봉을 집행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 부부는 가능한 한

인봉을 빨리 받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연차 대회를 앞두고 시간이 여의치 않아 저는 그 부부와 그들의 감독에게 제 비서와 협의해서 날짜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 친구가 제게 인봉 날짜를 4월 3일로 잡았다고 말했을 때 저는 놀랍고 기뻐했습니다. 그날은 변형된 선지자 엘리야가 1836년에 커틀랜드 성전에 나타나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인봉 권능을 전한 날이었습니다. 이 열쇠는 지금도 이 교회에 있으며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³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와 똑같은 성스러운 권세를 주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⁴

엘리야의 귀환은 신권을 지닌 모든 이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해롤드 비리 장로님은 연차 대회에서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 점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 보십시오. “저도 신권이 있고, 이곳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신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으며, 엘리야를 비롯해 여러 선지자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도 이 신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례를 베풀고, 성신의 은사를 위해 안수하고, 다른 사람을 성임하고, 그 밖에 여러 일을 행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인봉 권능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행한 의식이 유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쇠를 지닌 사람을 통해 하나님 왕국에서 승영을 얻는 데 필수적이며 특정한 장소에서만 받을 수 있는 더 높은 의식과 더 큰 축복을 행할 권세를 받지 않고서 그 의식을 수행할 권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열쇠를 지닌 교회 회장이 의식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이 지상에는 가서 어떤 복음 의식이라도 수행할 권리를 지닌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 회장이 모든 열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고 우리 신권에 인봉 권능을 주었습니다.”⁵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도 인봉 권능을 언급하시며 그 점을 확인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분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기에 4월 3일에 제계 인봉받을 가족도 제가 그랬듯 위안을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열쇠를 받았습시다. 인봉 권능, 곧 땅에서 매거나 인봉하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되는 권능을 받았습시다. 이러한 열쇠는 교회 회장 곧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에게 있습니다. 이 성스러운 인봉 권능은 지금 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권세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소중히 간직하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지상에서 이와 같은 인봉 권능을 위임받은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모든 성전에는 인봉 권능을 받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이 권능을 얻을 수 없습니다.”⁶

엘리야는 신권 권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엘리야의 영, 권능, 부름은 여러분에게 멜기세덱 신권의 충만함과 지상에 있는 하나님 왕국의 계시, 의식, 말씀, 능력과 엔다우먼트의 열쇠를 소유할 권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즉 하늘에 있는 이들에게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모든 의식을 받고, 얻고, 집행할 권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⁷

제 친구와 그 가족은 이렇게 마음이 돌이켜지는 느낌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하는 동안 그런 느낌을 경험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아버지나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친형제자매의 얼굴을 떠올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딸이나 아들을 그려 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떠올린 사람이 영의 세계에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신권 의식으로 묶여 있거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기쁘셨을 것입니다.

인봉받은 가족의 가장이자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인 형제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인봉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미 맺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결혼과 가족에 관한 성약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맺은 성전 성약이 다음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순종하고 희생하여 약속의 성령이 그 성약들을 인봉해야 합니다. 해롤드 비 리 회장님은 펄빈 제이 벨라드 장로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되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성신을 속일 수는 없으며, 약속의 성령이 우리가 받은 축복을 더불어 인봉해 주지 않으면, 그 축복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신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읽고서 우리 머리에 부여된 축복을 최종적으로 인봉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봉은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단단히 이어 주는 힘이 됩니다.”⁸

아내와 함께 유타 로건 성전에서 인봉받을 당시, 제가 그 약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그 의미를 이해하려 애쓰고 있지만, 저희 부부는 50여 년 전에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온 힘을 기울여서 우리 삶과 가정에 성신을 초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을 처음으로 뵈었을 때, 저는 성전에서 인봉을 받은 젊은 가장으로서 마음속으로 아내와 제 어린 식구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초대되어 들어간 곳은 제일회장단 평의회실이었는데, 해럴드 비 리 회장님은 옆에 앉으신 스미스 회장님을 가리키며 “이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습니까?”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절대적인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스미스 회장님은 이제 막 방에 들어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난 그분이 선지자임을

알아.’ 하는 느낌이 들어 그렇게 똑같이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 저는 늘 감사합니다. 저는 태양이 항상 빛나고 있음을 분명히 알듯이 그분이 온 세상을 위한 신권 인봉 권능을 소유한 분임을 알았습니다.

이 경험 덕에 저와 내내는 1972년 4월 6일 연차 대회 모임에서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이 다음과 같은 권고를 주셨을 때 그 말씀에서 큰 권능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가족을 강화하고 지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여러분에게 가장으로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실 것을 당부합니다. 어머니들은 남편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자녀의 빛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⁹

저는 여러분이 신권을 소유한 아버지로서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와 함께하도록 가족을 고양하고 이끌기 위해 할 수 있는 네 가지 일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신권 열쇠가 있으며 그 열쇠를 교회 회장이 갖고 있다는 확실한

간증을 얻고 지키십시오. 이를 위해 매일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가족을 이끌겠다는 결심과 희망에 찬 감정이 커지고, 봉사할 때 더 큰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밝아지고 낙천적인 사람이 되며 아내와 가족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된 생활 속에서 자신의 관심사보다 아내의 관심사를 우선시하려면 신앙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면서 아내와 함께 가족을 부양하고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노라면 때로는 모든 정력과 힘이 소진됩니다.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아내에게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자신의 행복보다 아내의 행복을 우선시한다면, 아내에 대한 사랑이 커질 것임을 약속합니다.

셋째, 온 가족에게 서로 사랑하자고 당부하십시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구원은 가족의 일입니다. ……

무엇보다도 자녀는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이고 꼭 필요한 존재이며 인정받고 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자녀는 이러한 것을 종종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부모가 채워 주어야 할 부분이며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대개 어머니입니다.”¹⁰

그러나 사랑 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원천은 바로 자녀들 사이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꾸준히 노력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친형제자매들이 서로 꾸준히 보살필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에 수긍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물론경에서 의로운 리하이와 아내 새라이아가 겪은 가족간의 불화에 관해 읽을 때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담은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꾸준히 잘 가르쳐서 자녀와 여러 세대에 걸친 후손이 하나님에 대해, 또 서로에 대해 부드러운 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니파이와 여러 선지자들은 한때 한 가족이었으나 자신을 적대시했던 사람들에 관해 기록하고 도우려 애썼습니다. 영이 임하여 수천 명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중요심이 사랑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리하이가 거둔 성공을 재현할 한 가지 방법은 가족 기도나 가정의 밤과 같이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이끄는 것입니다. 자녀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축복이 필요한 식구들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다툼의 원인을 일찍 찾아내고 이타적인 봉사, 특히 자녀들간의 봉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봉사할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서로에 대해, 그리고 부모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가족을 이끄는 네 번째 기회는 훈육이 필요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바로잡고

그들을 영생으로 이끄는 책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성구를 기억하실 테지만, 이 말씀이 해의 왕국에서 있을 사림대로 살도록 자신의 가족을 준비시키는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에게 어떠한 힘으로 임하는지는 보신 적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려진 구절이라 내용은 기억나실 것입니다.

“신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권능이나 영향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 되며, 다만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친절함과 순수한 지식으로만 되어야 하나니, 이러한 것들은 위선이 없이 그리고 간교함이 없이 영혼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 -

성신에 감동되었을 때에는 제 때에 날카롭게 꾸짖을 것이나, 그 후에는 내가 꾸짖은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 그가 너를 자기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하라.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네 성실함이 죽음의 끈보다 더 강한 줄 알게 하라.”¹¹

그 뒤로 시온의 아버지인 우리에게 매우

가치 있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성신은 변하지 않는 네 동반자가 될 것이요, 네 혼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혼이 되며, 네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영원무궁토록 네게로 흘러 오리라.”¹²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높은 표준이지만, 신앙으로 우리의 화를 다스리고 교만을 누른다면, 성신은 우리를 인정할 것이며, 성스러운 약속과 성약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돌려 주신 신권 열쇠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 신앙, 아내와 여러분을 잇는 사랑의 끈, 자녀의 마음을 서로에게, 그리고 그들의 부모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주님의 도움과 영을 초대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바로잡고 훈계하도록 인도하는 사랑을 통해 성공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심을 압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오늘날 지상에 있는 모든 신권 열쇠를 지니고 계시며, 행사하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또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30:2.
2. 교리와 성약 38:32~33.
3. Joseph Fielding Smith, *Sealing Power and Salva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Speeches of the Year*(Jan. 12, 1971), speeches.byu.edu 참조.
4. 마태복음 16:19.
5. Joseph Fielding Smith, Harold B. Lee 인용, Conference Report, Oct. 1944, 75.
6. 보이드 케이 패커, “거룩한 성전”, *리아호나*, 2010년 10월호, 34쪽.
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311쪽.
8. Melvin J. Ballard, Harold B. Lee 인용, Conference Report, Oct. 1970, 111.
9. 조셉 필딩 스미스, “성도들과 온 세상에 드리는 권고의 말씀”, *성도의 벗*, 1972년 12월호, 9쪽.
10. 에즈라 테프트 벤슨, “구원-가족의 일”, *성도의 벗*, 1992년 11월호, 3, 4쪽.
11. 교리와 성약 121:41~44.
12. 교리와 성약 121:46.

티라나, 알바니아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봉사하려는 마음과 합당성

신권을 이해하고 그 권능을 존중하며 적절히 사용하고 신앙을
행사하면, 기적은 어디에서나 일어납니다.

사 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교회 연차 대회 신권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과거에 이 모임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택하신 고결한 지도자
몇 분의 가르침이 생각합니다. 많은 분이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은
아직도 총명한 생각과 심오한 영혼,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영감 어린 인도를
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저녁, 신권에
관한 그분들의 가르침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권은 영원 불변한
원리이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고 영원까지 존재할 것이니,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습니다.”¹

또한 윌포드 우드럽 회장님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배웁니다. “성신권은
하나님께서 지상의 인간과 교통하시고
인간을 다스리시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대화하기 위하여 지상을 방문한
하늘에서 온 사자들은 육신으로 있을
때 신권을 소유하고 영화롭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상에 보내시는 것으로부터 세상을
구속하시는 일까지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이든 다 영원한 신권으로
행하여졌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²

아울러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밝혀 주셨습니다. “신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신 권능으로,
인간은 그 신권을 통해 지상에서 인간
가족의 구원을 위해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 권세는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요, 돌아가신 세대로부터 빌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성역을 베푸는 천사들과
성령을 통해 진능하신 하나님 면전으로부터
직접 주어지는 권세인 것입니다.”³

마지막으로 존 테일러 회장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신권이란 무엇입니까? ……
그것은 땅이나 하늘에서 인정되는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왜냐하면 신권 권능, 작용,
또는 원리에 따라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다스려지고, 그 권능으로 만물이
지탱되고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신권은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인도하고, 만물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진리에 관련이 있는
모든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⁴

지상에 하나님의 신권이 존재하는
이 후기에 이 땅에 사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신권을 소유한다는

사실은 또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신권은
하나의 선물이라기보다는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사람들을 고양시키는 특권이자
이웃의 삶을 축복하는 기회입니다.

그러한 기회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저는 의무라는 이 고결한 말과
함축된 의미를 좋아하고 아깁니다.

저는 열두 살 때 집사로 성임된 이후
지난 72년간 여러 직분으로 여러 집회에서
신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세월은 어김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흐름 속에도 의무는
변함이 없습니다. 의무는 희미해지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파멸적인 다툼이 오고
가지만, 인간의 영혼을 구하는 전쟁은
어김없이 계속됩니다. 나팔 소리처럼 주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와 곳곳에 계신 신권
소유자들에게 들려옵니다. “그런즉 이제
모든 사람은 자기 의무를 배우고 자신이
임명된 그 직분을 부지런히 행하기를
배울지어다.”⁵

의무를 다하라는 부름은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과 모세, 사무엘과 다윗에게
주어졌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분을
계승한 각 사람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의무를
다하라는 부름은 소년인 니파이에게도
왔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니파이에게 형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라반으로부터
늦쇠판을 구해 오라는 명을, 부친인
리하이를 통해 주셨습니다. 니파이의 형들은
명 받은 일이 어렵다며 불평했습니다.
니파이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알아나이다”⁶

그와 같은 부름이 온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레이맨이나
레뮤엘처럼 불평하며 “요구하신 이 일은
어렵습니다.”라고 하시겠습니까?⁷ 아니면,



니파이처럼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외치시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기꺼이 봉사하고 순종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어렵거나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필멸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매우 크고 값진 교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언제나 옳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의무라는 말과, 의무를 행하면 우리와 이웃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유명한 시인이자 작가가 쓴 이 글이 떠오릅니다.

자리에 들자 꿈을 꾸었네
인생은 기쁨이라는 것을
잠을 깨자 알았네
인생은 의무라는 것을
실천을 하니 알았네
의무가 곧 기쁨인 것을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은 이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압니다. 좋은 일을 해 봤기 때문입니다.”⁹

의무를 수행하고 신권을 행사할 때,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책무를 완수했다는 만족감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아론 신권이나 멜기세덱 신권의 특별한 의무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러한 의무를 깊이 생각해 보고, 있는 힘을 다해 완수하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각자 합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준비된 손, 깨끗한 손, 기꺼이 내미는 손을 준비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면, 신권 권능을 잃을 수도 있으며, 신권을 잃으면, 승영에 꼭 필요한 것을 잃는 것입니다. 봉사할 수 있도록 합당해집시다.

교회의 위대한 교사 가운데 한 분인 해롤드 비 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권 소유자가 되다는 것은, 주님의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부름을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처럼 생각해야 합니다.”¹⁰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4년 초반에 신권과 관련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 해병대가 호주와 하와이 중간쯤에 있으며 태평양 마셜 제도에 속한 좌절린 환초를 점령하려 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교회 회원이 아닌, 당시 하와이에 있었던 한 신문사 특파원이 전했습니다. 특파원은 그 일을 겪고 쓴 1944년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통신원들과 함께 해병대 뒤를 이어 2차로 좌절린 환초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전진하던 중에 물에 떠 있는 한 젊은 해병대원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을 물에 처박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심각한 상처를 입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주변 물은

그가 흘린 피로 얽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곧이어 그 부상병 쪽으로 다가가는 또 다른 대원이 보였습니다. 이 두 번째 대원도 부상으로 왼팔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물 위에 떠 있는 병사가 익사하지 않도록 머리를 들어 올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도와 달라고 외쳤습니다. 통신원들은 그가 받치고 있는 병사를 본 뒤에 되받아 소리쳤습니다. “젊은이, 그 병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도 없어.”

특파원은 이렇게 썼습니다. “곧이어 나는 일찍이 보지 못했던 광경을 보았다.” 자신 역시 심각한 상처를 입었으면서도 그 대원은 숨을 거둔 듯 보이는 동료 병사의 몸을 물가로 끌어냈습니다. “[그는] 전우의 머리를 무릎에 올려놓았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가? 두 청년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지만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모두 …… 정결하고, 멋져 보였다. 그런 후, 한 청년이 상대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신권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의료 지원을 구해 올 때까지 살아있을지이다.’” 통신원은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두 해병대원과 나, 이렇게] 우리 세 사람은 이곳 병원에 있다. 의사들은 모른다. …… [어떻게 하여 그들이 살아남았는지] ……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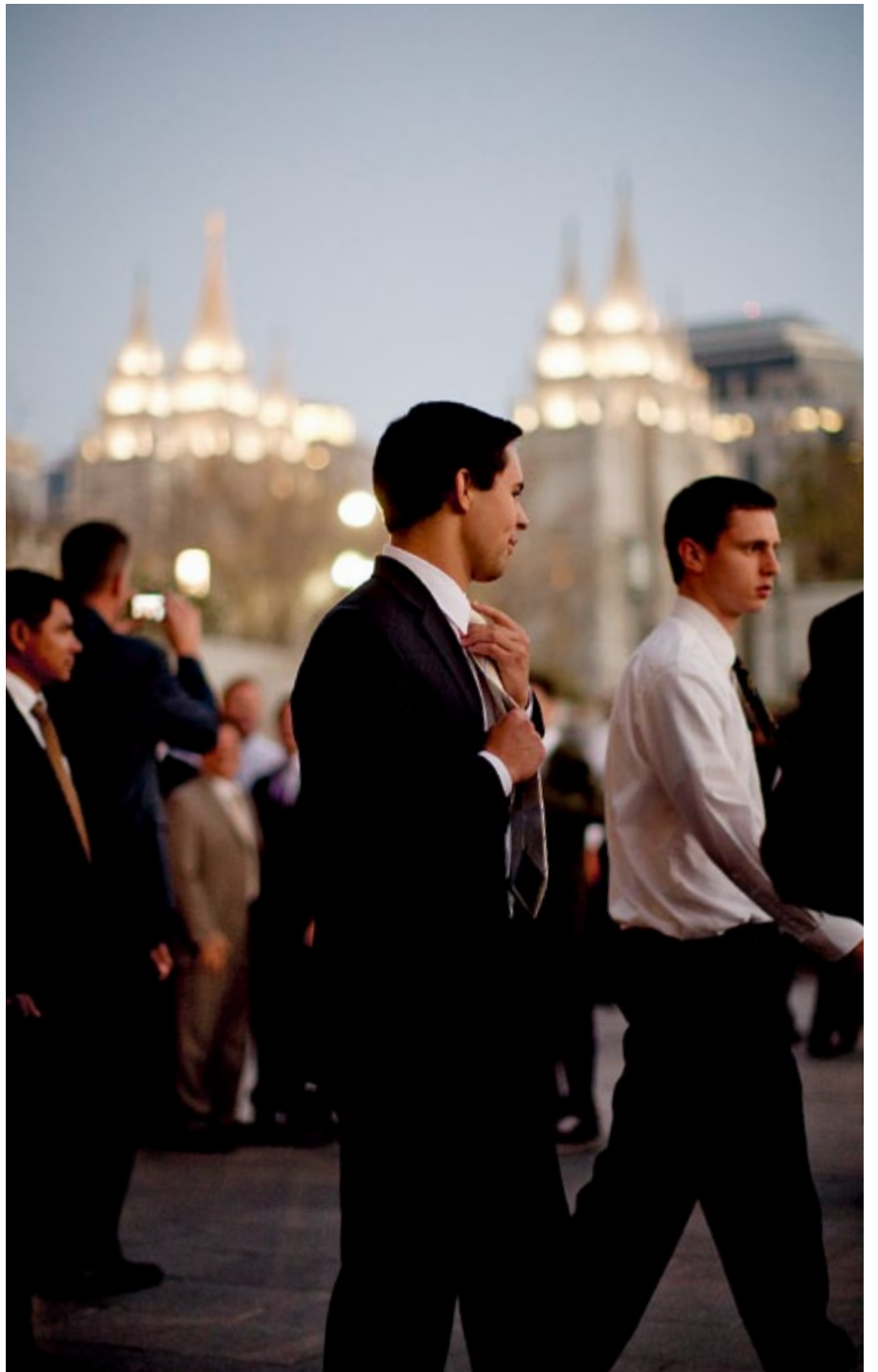
신권을 이해하고 그 권능을 존중하며 적절히 사용하고 신앙을 행사하면, 기적은 어디에서나 일어납니다. 신앙이 의심을 대신하고, 비이기적인 봉사가 이기적인 노력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권능은 그분의 목적을 이룹니다.

신권 소유자로서 맡은 임무를 행하면, 의무를 다하라는 부름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서도 영향력 있는 지도자이셨던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를 깨우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성신권의 권능과 힘으로, 동료들 앞에서 우리 부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꺼이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¹²

앞서 말한 예처럼 그렇게 극적이지는 않지만, 한 영혼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 의무를 다하라는 부름이 1950년에 저에게 왔습니다. 저는 새로 부름 받은 감독이었습니다. 감독으로서 맡은 일이 다양하면서도 많았습니다만, 저는 주어진 모든 일을 온 힘을 다해 해내려 했습니다. 그때 미국은 또 다른 전쟁에



참전 중이었습니다. 수많은 회원이 군 복무 중이었기에 교회 본부에서는 모든 감독에게 당시 교회 잡지인 *Church News*(처치 뉴스)와 *Improvement Era*(임프루브먼트 이라)를 각 병사가 받아볼 수 있게 하라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복무 중인 와드 회원 각각에게 매달 직접 편지를 써 보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와드 출신 병사는 모두 스물세 명이었습니다. 신권 정원회는 합심하여 잡지 구독료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달마다 편지 스물세 통을 쓰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아직도 제 편지 사본과 답장 여러 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금세 눈물이 맺힙니다. 복음대로 살겠다는 한 병사의 다짐, 가족과 함께 신앙을 지키겠다는 어떤 해군 병사의 결심이 담긴 편지를 읽을 때면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와드의 한 자매님에게 그달 보낼 편지 스물세 통이 담긴 봉치를 주었습니다. 그 자매님의 임무는 우편물과 늘 변하는 주소록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편지 봉투를 보고는 싱긋 웃으며 물었습니다. “감독님, 이제 지칠 때도 되지 않으셨어요? 브라이슨 형제에게 또 편지를 쓰셨네요. 답장도 받지 못하고 열일곱 번째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 예, 이번 달에는 소식이 있겠죠.” 나중에 밝혀졌지만, 정말 그달에 소식이 왔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답장은 기념품이자 보배입니다. 그는 외롭게 멀리 떨어진 바닷가에서 복무하며 향수병을 앓았습니다. 브라이슨 형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감독님, 저는 편지를 쓰는 데 소질이 별로 없어요.”(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Church News*(처치 뉴스)와 잡지를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독님 편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저는 아론

신권 제사로 성임되었습니다. 가슴이 벅잡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브라이슨 형제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감독이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격언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의무를 수행하라.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라.”¹³

여러 해가 지난 후, 저는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이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던 솔트레이크 코트우드 스테이크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 병사들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려 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한 잘생긴 젊은이가 앞으로 와서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몬슨 감독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브라이슨 형제님!” 하고 외쳤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교회에선 무슨 일을 하시나요?”

그는 따뜻하고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예, 잘 지냅니다. 저는 장로 정원회 회장단에서 봉사합니다. 제게 보여 주신 관심과 편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편지는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모두 하고 있습니까? 존 테일러 회장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 구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¹⁴ 세상에는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할 발과 꼭 잡아 주어야 할 손, 격려해야 할 정신과 영감을 주어야 할 마음, 그리고 구해야 할 영혼이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권 봉사의 무대에서 여러분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감동 어린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¹⁵

우리의 의무를 배우고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시다.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과 합당성을 갖습니다. 의무를 수행하는 일에서 주님의 발자국을 따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께서 걸으셨던 길을 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이 베들레헴의 아기나 목수의 아들에 그치지 않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사를 훨씬 뛰어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구주이며 구속주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의무를 다하라는 부름이 왔을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¹⁶ 우리 모두 그렇게 하기를, 그분의 거룩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104쪽.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2004), 38쪽.
3. Joseph F. Smith, *Gospel Doctrine*, 5th ed.(1939), 139-40; 강조 추가.
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존 테일러(2001), 119쪽.
5. 교리와 성약 107:99; 강조 추가.
6. 니파이전서 3:7; 또한 1~5절 참조.
7. 니파이전서 3:5 참조.
8. Rabindranath Tagore, William Jay Jacobs, *Mother Teresa: Helping the Poor*(1991), 42.
9. Robert Louis Stevenson, Elbert Hubbard II, comp., *The Note Book of Elbert Hubbard: Mottoes, Epigrams, Short Essays, Passages, Orphic Sayings and Preachments*(1927), 55.
10. *Stand Ye in Holy Places: Selected Sermons and Writings of President Harold B. Lee*(1976), 255.
11. Ernest Eberhard Jr., “Giving Our Young Men the Proper Priesthood Perspective”, *typescript*, July 19, 1971, 4-5, Church History Library.
12. George Albert Smith, Conference Report, Apr. 1942, 14.
13. Henry Wadsworth Longfellow, “The Legend Beautiful”, *The Complete Poetical Works of Longfellow*(1893), 258.
14. 가르침: 존 테일러, 164쪽.
15. 야고보서 1:22.
16. 모세서 4:2.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공홀히 여기는 자가 공홀히 여김을 받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 용서하[게 됩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근심 깊은 한 어머니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는 특별히 자신의 두 자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제로 연차 대회 말씀을 해 달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딸 사이에 불화가 싹텃고 이제는 서로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비탄에 잠겼습니다. 편지에서 그 어머니는 이 주제로 연차 대회 말씀이 전해진다면 딸들이 화해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선한 자매님의 진지하면서도 진심 어린 간청은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받았던 여러 영감 중 하나와 그 내용이 일치하며, 그래서 저는 오늘 근심에 찬 어머니에게뿐만 아니라 교회, 그리고 사실 전 세계 여러 사람들에게 점점 더 큰 근심이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해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연차 대회 말씀이 자녀들의 관계를 치유해 주리라는, 그 사랑 많은 어머니의 신앙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가 연사의 능력보다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백성들의 생각에 더 강력한 효과가

있었[던] ……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¹을 확신하셨다고 자신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자녀들이 영으로 감화되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악화될 때

긴장 관계나 파탄에 이른 관계는 인간 존재만큼 오래된 것입니다. 고대에 살았던 가인은 압과 같은 비탄과 악의로 자신의 마음을 멧들게 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는 영혼이라는 자신의 땅을 질투와 증오로 가꾸었고, 그 감정이 여물게 내버려 두어 끝내는 형제를 살해하여 사탄의 거짓의 아비²가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 초기 시기로부터 질투나 증오하는 감정은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은 다윗에 대적했고, 야곱의 아들들은 형제인 요셉에게, 레이먼과 레뮤엘은 니파이에게, 아멜리카이아는 모로나이에게 대항했습니다.

지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쟁, 분노, 복수라는 파괴적인 감정에 어떻게든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뎀 자신에게서 그런 감정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상처받거나 분노하거나 질투심을 느낄 때 우리는 참으로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때로는 그렇게 분개하는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타인의 행동에 사악한 동기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교리

물론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교리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모두 구주께 의지합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그분 없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우리 죄에 대한 용서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 용서해 주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 받음이니, 더 큰 죄가 그에게 머물러 있음이니라.”³ 그리고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판단하거나 악의를 품을 때, 그 해로운 결과를 분명하게, 그리고 쉽게 봅니다. 물론,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편견이나 불만에 대해 말할 때에는 자신의 노여움은 지당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판단은 신뢰성 있고 적절하다며 합리화하기 일쑤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나쁜 사람이나 나쁜 동기를 보았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런 것처럼 추정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비통함과 관련해서는 예외를 둡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다른 사람을 경멸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직원

2012년 4월

제일회장단



헨리 비 아이어링
제1보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디터 우헨틀도르프
제2보좌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팩커



켄톤 페리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벤넛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헐 쿡



디터드 크리스토퍼슨



닐 앤더슨

칠십인 회장단



로버트 에이 래스밴드



월터 에프 knapp



엠 휘트니



제이 이 쟈슨



도널드 엠 홀스틀롬



브렌트 올 올리버



리차드 제이 메이너스

칠십인 제일 정위원회
(영어 알파벳 순)



마크로스 에이
아이쿠이티스



호세 엠
왈문소



카를로스 에이이
아이도



이인 에스 아킨



머빈 비 아볼트



데이비드 에스
팍스타



세인 엠 브렌



로버트 에이
아이



최영환



크레이그 시
크리스티안스



돈 엠 클라크



갈 비 북



로렌스 이 코브리지



클라우디오 엠
코스타



리처드 왕
커티스 이세



벤자민 레
호요스



존 비 맥슨



케빈 알 톰킨



레이 에프 라주



스탠 지 얼라스



데이비드 에르
에번즈



앤드루 엠
왈러너



에두아르도 가라차



로버트 시 게이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



크리스토클 쿵
이세



게يث 더윅
양



시 스코트 그로우



제임스 제이
해블러



키스 케이 할버그



앨런 케이 켈슨



다니엘 엠 켈슨



볼 브이 켈슨



패트릭 키어넌



톰 이 켈리커



앨런 더윅
코우퍼슈케



마크스 비 나쉬



브렌트 에이치
넬슨



앨런 에프 파커



켄 더윅
피어슨



앤드루 디 퍼킨스



톰 비 파이프



라이언 이 피로



브루스 디 포터



데이비드 펜랜드



마이클 티 윈윈



런 지 로빈스



조셉 더윅
시타티



스티븐 이 스노우



윌리엄 에스 오아레스



마이클 존 유 테



호세 테리 테제이라



요나탄 노 테노리요



후안 에이 우세다



프랜시스코 제이
비나스



더윅
크리스토퍼
와일



윌리엄 엠 워커



에프 마이슨 쉘슨



스콧 디 와이ثال



가리 애프 아마슈타

칠십인 제이 정위원회
(영어 알파벳 순)



윌포드 더윅
앤더슨



고이지 아호아기



켄들 케이 베네트



브루스 에이 쉘슨



제이 데브 코나쉬



키스 알 에드워드



브렛들리 디
포스터



레이 더윅
기븐스



오 브렌트 월러크



레이 엠 로렌스



페르 지 맘



제임스 비
마틴달도



자이모 마차구티



켄트 에프 리차드



그레고리 에이
슈버터



켄트 디 왓슨



레이 와이 쉘슨

감리 감독단



제랄드 코세
제포파



게터 이 스타른스
감리 감독



단 엠 데이비스
제포파

조지 에프
제발로스



블라우디오 디
지터



더윅
크레이그
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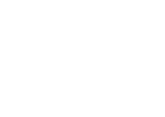
데이비드 엠
제발로스



프랜시스코 제이
비나스



더윅
크리스토퍼
와일



윌리엄 엠 워커



에프 마이슨 쉘슨



스콧 디 와이ثال



가리 애프 아마슈타



제182차 연차 대회의 메시지를 듣고 나누면서
 “커다란 특권 …… 안에서 기뻐하”(앨마서
 61:14)는 선교사 및 회원들. 왼쪽 상단에서 시계
 방향으로 알바니아, 티라나; 영국, 런던; 브라질,
 상파울루;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
 러시아, 모스크바; 괌, 바리개다; 프랑스, 파리.





판단하는 순간,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죄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⁵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죄이며, 구주께서도 경고하신 죄입니다. 구주의 제자들은 “서로 대적할 기회를 찾으며, 마음에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더니, 이 악으로 인해 그들[은] 고난을 겪고 심히 징계를 받았[습니다.]”⁶

구주께서 이 부분에 대해 대단히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개인적인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⁷

한 가지 점을 분명히 해도 되겠습니까? 주님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에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때때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며, 동시에 가장 용서가 필요한 이는 바로 거울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핵심 원리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 주제는 실제로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증오와 험담, 무시, 조소, 악의,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길 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말대로 하십시오.

그만두십시오!

이는 간단한 일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판단이 갖든 생각이나 감정을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에 대한 가슴 벅찬 사랑으로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는 이 개념을 유창하고 열정적으로 설득력 있게 분명히 전달하여 각인시키는 법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경전을 인용하며 교리를 설명하고 심지어는 최근에 본 자동차 범퍼 스티커 내용도 인용할 것입니다. 그 스티커는 외모가 좀 거칠게 보였던 분이 운전하던 차 뒤에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티커 글귀에는 현명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과 다르게 죄를 짓는다 하여 저를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며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자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언젠가 속죄소에 겸손하게 나아가 은혜를 구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한 실수나 지은 죄에 대해 용서받도록 영혼의 모든 힘을 다해 자비를 구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면서, 어떻게 자신도 절실하게 구하는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는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신이 용서 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자기 자신과 남을 용서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려면 태도와 사고방식에, 더 나아가서는 마음에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큰 변화”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에 이루어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는 좋고 고결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게 되며] ……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게 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⁹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과 감정을 다스릴수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이 마음속에 더 부풀어 오를수록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타인을 사랑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따스한 기운으로 열어젖힐 때, 어둡고 차가운 증오와 질투는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그분은 삶과 가르침에서 그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사악한 자, 저속한 자,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해를 입히려 한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일은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더 높은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수세기에 걸쳐 울려 퍼집니다. 또한 그것은 지금 우리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그 말씀은 그분의 제자가 되려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¹⁰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게 됩니다.]”¹¹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우리 눈에서 적의와 분노라는 비늘을 벗겨내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듯이, 즉 결점 많고 불안전해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잠재력과 가치가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제자의 길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음 질문으로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이 사실일지라도, 혹시 다른 사람에 관해 험담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한 일 때문에 그를 배제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처벌을 가하십니까?

몰래 다른 사람을 질투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싶습니까?

이 중 어떤 질문에라도 ‘예.’라고 했다면 앞서 언급한 한 단어로 된 그 말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만두십시오!

비난과 불친절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돌을 모으고 던지는 일은 쉽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선생님이자 모범이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¹²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친절해집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평온하게 대화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채웁시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합시다.]”¹³

구주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¹⁴

부정적인 행실이 아닌, 친절과 용서와 자애가 깃든 행동에 항상 집중하는 데에 이 약속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악에 대해 선으로 답합시다.¹⁵ 복수하기를 피하거나 분노로 압도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¹⁶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에 공활히 여김을 받는 자는 바로 공활히 여긴 자입니다.¹⁷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있던 “서로 사랑하[는]”¹⁸ 사람으로 알려집시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완고함과 비통함, 분노로 이 세상에 고통과 슬픔을



더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는 이미 슬픔과 고통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¹⁹ 사람들은 짜증나게 하고 실망감을 주고 화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 필멸의 삶에서는 언제나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필멸의 삶을 사는 목적 중 일부는 그러한 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늘은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용서받고, 용서합니다.

여러분의 짐을 구주의 발치에 내려놓으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속죄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치유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공홀히 여기는 자가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훌륭하고 완벽하게 사랑하셔서, 친구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엘마서 31:5.
2. 모세서 5:16~32 참조.
3. 교리와 성약 64:9.
4. 마태복음 5:7.
5. 로마서 2:1 참조.
6. 교리와 성약 64:8.
7. 교리와 성약 64:10; 강조 추가.
8. 모사이야서 5:2.
9. 요한1서 5:3~4.
10. 마태복음 5:44; 또한 45~47절 참조.
11. 에베소서 4:32.
12. 요한복음 8:7.
13. 갈라디아서 6:10.
14. 누가복음 6:38.
15. 마태복음 5:39~41 참조.
16. 로마서 12:19~21.
17. 마태복음 5:7 참조.
18. 요한복음 13:35.
19. 로마서 3:23 참조.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더 잘 인식하고 그분께 감사를 표현한다면 훨씬 좋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저희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최근 넬슨 자매와 저는 작은 사설 수족관에 있는 열대어의 아름다움을 감상한 적이 있습니다. 선명한 색채에 모양과 크기도 다양한 물고기들이 앞뒤로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근처에 있던 직원에게 “누가 이 아름다운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줍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물고기들이 감사를 표한 적이 있나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저는 것처럼 자신의 창조주와 참 “생명의 떡”¹을 인식하지 못하는 몇몇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관대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더 잘 인식하고 그분께 감사를 표현한다면 훨씬 좋을 것입니다. 암몬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이는 그가 영원토록 의를 행하심이라.”²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리냐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입니다.³ 그분은 살과 뼈로 된 영화롭고 완전한 몸이 있으십니다.⁴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⁵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육신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각자 몸을 얻게 되었습니다.⁶

우리 육체의 자양물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참으로 하늘이 보내 준 것입니다. 꼭 필요한 공기, 음식, 물은 모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지구는 이생에서 보내는 우리의 짧은 여정을 지원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⁷ 우리는 성장하고 사랑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결혼과 가족은 하나님이 계정하신 것입니다. 가족은 현세와 영원에 걸쳐 가장 중요한 사회 단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으로 가족은 성전에서 인봉되어 그분의 거룩한 면전으로 돌아가 영원히 거하도록 준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인간 영혼의 가장 큰 열망, 즉 사랑하는 가족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갈망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 -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⁸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의 신성한 목적을 밝히셨으며, 우리는 그 목적의 일부입니다.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디.”⁹ 이 행위는

하나님 사랑의 숭고한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¹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¹¹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속하기 위해 오셨습니다.¹² 주님의 속죄로 부활(불멸)이 실현되었습니다.¹³ 속죄 덕에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은 영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¹⁴

주님의 속죄와 부활의 은사, 즉 이 숭고한 부활절의 메시지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육체적 은사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¹⁵ 그분은 육체적인 은사와 영적인 은사로 우리 각자를 축복하셨습니다. 각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를 때,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육체라는 은사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몸과 관련된 놀라운 수많은 특성은 여러분에게 “신성한 성품[신의 속성]”¹⁶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몸의 각 기관은 하나님이 주신 경이로운 은사입니다. 눈에는 자동 초점 조정 렌즈가 있습니다. 신경과 근육은 두 눈을 조정하여 단일 3차원 이미지를 만듭니다. 눈은 본 것을 기록하는 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은 굉장한 펌프입니다.¹⁷ 심장에는 혈류 방향을 조정하는 네 개의 정교한 판막이 있습니다. 판막은 하루에 10만 번, 즉 일 년에 3천 6백만 번 이상 여닫습니다. 판막은 질병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압력을 거의 무한히 견딜 수 있습니다.

신체 방어 체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몸은 고통을 인식합니다. 감염에 대응하여 항체를 생성합니다. 피부는 보호 기능을 합니다. 피부는 너무 뜨겁거나 찬 것 때문에 부상을 입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몸은 노화된 세포를 자체적으로 갱신하고 중요한 구성 요소의 수준을 조절합니다. 몸은 상처, 멍, 부러진 뼈를 치유합니다. 몸의 생식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성스러운 은사입니다.

인간의 성스러운 운명을 달성하기 위해 완벽한 몸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부 정말 훌륭한 영들은 연약하거나 불완전한 몸에 거합니다.

육체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 이유는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인체 작용을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그 위엄과 권능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봅니다.]”¹⁸ 몸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되므로, 모든 치유는 그 축복이 근거하고 있는 율법에 순종한 것에서 기인합니다.¹⁹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이 놀라운 육체적 특성이 우연히, 또는 어딘가에서 일어난 빅뱅의 결과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합니다. ‘인쇄소가 폭발하는데 사전이 출판되는 것이 가능한가?’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전은 절대 뜯겨나간 장을 스스로 복원하거나 새로운 판을 재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몸의 정상 기능, 방어, 치료, 통제, 재생 능력이 무한정 계속된다면, 이곳에서 우리 삶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곳 지구에 발이 묶일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창조주께서는 노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육체적 사망을 초래하는 과정을 마련하셨습니다. 출생과 마찬가지로 사망은 삶의 일부입니다. 경전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이 현세적 사망에서 구제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렇게 함이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깨뜨리겠음이라.”²⁰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관문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쁨입니다.²¹ 결국 각각의 “영과 육신은 다시 …… 완전한 형태로 재결합될 것이요, 사지와 관절은 …… 그 본래의 구조로 회복될”²² 때가 올 것이며, 결코 다시는 분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적 은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은사

몸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인간의 영원한 영을 위한 성막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은 전세부터 존재했으며²³ 몸이 죽은 후에도 계속 살 것입니다.²⁴ 영은 몸에 생기와 인격을 부여합니다.²⁵ 이생에서, 그리고 다음 생에서 영과 몸이 함께 결합하면, 큰 가치를 지닌 살아 있는 영혼이 됩니다.

사람의 영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영의 발전은 결국 영원에 영향을 미칩니다. 겸손히 기도하여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때 우리의 영이 강화됩니다.²⁶

우리가 언젠가 심판 받게 될 속성은 모두 영적인 것입니다.²⁷ 사랑, 정결, 정직,



동정심,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와 같은 것 말입니다.²⁸ 여러분의 몸과 짝을 이루고 그 몸에 거하는 여러분의 영은 영원한 진보에서 중요한 방식으로 이런 속성을 계발하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²⁹ 영적인 진보는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서 받는 엔다우먼트와 인봉 의식을 포함하여 끝까지 견딤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통해 이뤄집니다.³⁰

생존을 위해 몸에 매일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에도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영은 영원한 진리로 양육됩니다. 작년에 우리는 흠정역 성경 번역 40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또한 물문경은 거의 20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 왔으며 전권, 또는 선집이 107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경전들과 다른 값진 경전들 덕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조요 구속주이심을 압니다. 이러한 영적인 은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은사

우리는 아담, 노아, 모세, 아브라함과 같은 많은 경륜의 시대 선지자들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가르쳤음을 압니다. 현 경륜의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1820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1830년에 조직되었습니다. 18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³¹ 복음을 전하라는 성약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축복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에 관해 인식하도록 일깨우는 일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래 전 베냐민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하늘과 땅의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라.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와 모든 권능을 가지셨음을 믿으라. ……

너희는 너희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어야 함을 믿으라. 그리고 그가 너희를 용서하여 주실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라. 그리고 이제, 만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이를 행하도록 하라.”³²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매일 속죄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하고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며 승영의 은사를 누릴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가족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습니다.³³ 이러한 권능과 특권, 그리고 복음의 은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것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이 후기에 회복되었음을 간증합니다. 오늘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의 보좌들과 십이사도를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합니다. 이 모든 것을 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요한복음 6:35, 48; 또한 51절 참조.
2. 엘마서 26:8; 또한 엘마서 7:23 참조.
3. 사도행전 17:27~29 참조.
4. 교리와 성약 130:22 참조.
5. 모세서 6:51; 로마서 8:16; 히브리서 12:9; 예레미야 1:4~5 참조.
6. 창세기 2:7; 고린도전서 15:44; 모세서 3:7 참조.
7. 니파이전서 17:36 참조.
8. 모세서 1:39.
9. 요한복음 3:16.
10. 요한복음 3:17.
11. 그분의 목적은 제3니파이 27장 13~22절에 간결하게 요약되어 있다.
12. 엘마서 11:40 참조.
13. 니파이후서 9:6~7, 20~22 참조.
14. 요한복음 11:25~26.
15. 니파이전서 17:40; 요한1서 4:10 참조.
16. 베드로후서 1:4.
17. 심장은 하루에 약 2,000 갤론(7,570 리터)을 뿜어 낸다.
18. 교리와 성약 88:47.
19. 교리와 성약 130:21 참조. 참으로 이 하늘의 율법은 반박할 여지가 없다.
20. 엘마서 42:8.
21.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관점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시편 116:15); 또한 전도서 12:7 참조.
22. 엘마서 11:43; 또한 전도서 12:7; 엘마서 40:23; 교리와 성약 138:17 참조.
23. 교리와 성약 93:38 참조.
24. 엘마서 40:11; 아브라함서 3:18 참조.
25. 영은 그 사람의 신체와 같은 모양을 한다.(교리와 성약 77:2 참조)
26. 제3니파이 14:9~11 참조.
27. 몸이 아니라 영이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영혼의 구성 요소이다. 영이 없으면 몸은 죽는다.(야고보서 2:26 참조) 그러므로 선이나 악을 선택하고 최후의 심판 때 지니는 궁정적 속성과 부정적 속성 모두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바로 영이다.(엘마서 41:3~7 참조)
28. 영적인 속성에는 “신앙, 덕, 지식, 절제, 인내, 형제애, 경건, 자애, 겸손, [그리고] 근면”(교리와 성약 4:6)도 포함된다.
29. 니파이후서 2:11~16, 21~26; 모로나이서 10:33~34 참조.
30.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리이다.(니파이후서 31:11~21 참조)
31. 모사이야서 15:28; 또한 니파이전서 19:17; 니파이후서 26:13; 모사이야서 3:20; 15:28; 16:1; 엘마서 37:4; 교리와 성약 1:18~23; 77:11; 133:37 참조.
32. 모사이야서 4:9~10.
33. “영생[은] ……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4:7)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칠십인 회장단

특별한 교훈

계속해서 우리의 짐을 씩씩하게 짊어지며, 우리 가운데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지난 20개월 동안 저희 가족은 매우 특별한 아기를 곁에 두는 특권을 축복받았습니다.

제 손자 팩스턴은 그야말로 수억 명 중에 한 명 나오는 염색체 결실이란 매우 희귀한 유전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팩스턴이 태어나자 제 딸과 사위는 삶이 바뀌는 미지의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결국 영원으로 이어질 특별한 교훈을 배우기 위한 호된 시련의 장이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을 전하신 러셀 엠 벨슨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대체로 잘 알 수 없는 이유로 일부 사람들은 육체적 한계를 갖고 태어납니다. 신체 특정 부분이 비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신체 조절 시스템이 정상적인 균형을 잃어 버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장과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란 선물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

신성한 운명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완전한 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매우 사랑스러운 영들이 연약한 육신에 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결국에는 ‘영과 육신은 다시 …… 완전한 형태로 재결합될 것이요, 사지와 관절은 …… 그 본래의 구조로 회복될’(엘마서 11:43)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¹

도전, 걱정, 낙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심적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한한 사랑과 끝없는 연민을 지니신 우리 하늘 아버지는 고난에 처한 분들과 더불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시련 앞에서 어떤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냐며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품기 쉽습니다. 왜 우리는 장애가 생기거나 죽음이 앞당겨지거나 고통스럽게 오랜 세월을 지내게 하는 질병 혹은 사건이 소중한 가족에게 일어나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비통함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전세에서 그 계획이 발표되자 우리 모두는 기뻐서 소리쳤습니다.² 간단히 말해, 우리는 이생에서 영생을 위한 훈련을 받게 되며 그 과정에서 시련과 시련을 겪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 왔으며 어느 누구도 예외될 수 없습니다.

필멸의 삶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슬한 질문 속에서 도무지 해답을 찾기 어려울 때에도 그분을 믿는 신앙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 권능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미대륙에 방문하셨을 때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권유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너희에게 저는 자나, 맹인이나, 다리 불편한 자나, 장애인이나, 나병환자나, 마른 자나, 못 듣는 자나, 어떻게든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고쳐 주리라. 이는 내가 너희를 측은히 여김이요, 나의 심정이 자비로 충만함이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나자, 무리가 다 일제히 그들의 병든 자와 그들의 고난당하는 자와, 그들의 저는 자들과 함께, 또 그들의 맹인들과 함께, 또 그들의 말 못하는 자들과 함께, 또 어떤 식으로든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나아가매, 그들을 데려오는 대로 그들 모두를 고쳐 주시더라.³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다 나아가매”라는 구절 중 **다**라는 단어에서 위대한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도전에 직면합니다. 또한 “어떤 식으로든 고난당하는”이라는 구절도 나오는데, 이것 역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사랑스러운 팩스틴이 태어난 직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며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위와 저는 그 아이에게 여러 번 신권 축복을 주었는데, 처음 그 아이의 작은 머리에 손가락을 올려 놓았을 때, 요한복음 9장에 있는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⁴

하나님께서서는 분명 팩스틴을 통해 그분의 일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봉사가 주는 위안, 격렬한 감정으로 지새운 수많은 시간, 공감하며 흘린 눈물, 고통 중에 있는 소중한 이들, 특히 팩스틴과 그 아이의 부모를 위한 기도와 사랑의 표현 등을 통해 인내, 신앙, 감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스테이크 회장님이셨던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녀 때문에 번민하고 심적인 고통을 받으면서도 깨끗하게 이겨 나가는 사랑 많은 부모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이러한 고통은 부모나 자녀의 일생을 두고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매일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그러한 부모는 밤낮없이 계속 초인간적으로 아이를 보살피야 합니다. 수많은 어머니가 특별한 자녀의 고통을 덜어 주고 위안을 주기 위해 실 새 없이 팔과 마음에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⁵

모사이야서에 나오듯, 저희는 팩스틴 가족에게 구주의 순수한 사랑이, 모든 사람을 위한 그 사랑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와 그의 형제들 위에 지워진 짐이 가벼워졌고, 참으로 주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사 그들로 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시매, 그들이 주의 모든 뜻에 즐거이 인내를

가지고 복종하였더라.”⁶

팩스틴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밤, 저희는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굉장히 훌륭한 병원인 Primary Children’s Medical Center(어린이 병원)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헌신적으로 전념하는 의사와 간호사와 아기를 돌보는 사람들을 보며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어떻게 병원비를 감당할 것인지 물었고 그 비용을 짐작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가까이 서 있던 한 의사가 던지시 알려 주기를, 제가 예상 금액을 “너무 낮게” 잡았으며 팩스틴의 병원비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 병원에서 다른 이들이 후하게 기증한 시간적, 혹은 금전적 기부자 병원비의 많은 부분을 대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온 정성을 다해 팩스틴을 보살피는 이들에게 그 작은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클지를 생각하며 겸손해졌습니다.

익히 아는 선교 사업 관련 성구 하나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큼을 기억하라.”⁷

하나님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한 영혼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강렬한 방법으로 배우는 동안,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우리 각자를 향한 무한한 사랑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팩스틴의 가족은 하늘에서, 땅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천사가 그들을 둘러싼 채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천사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떠났습니다. 또 다른 천사들은 음식을 들고 찾아왔고, 세탁을 해 주었으며, 팩스틴의 형제자매들을 태워다 주었고, 격려 전화를 하고, 무엇보다 팩스틴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특별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혹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즉시 뛰어들어 물속 깊이 가라앉는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이 더 나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비록 좋은 의도로 하는 제안이라도, 우리가 흔히 건네는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 주세요.”라는 말은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의 삶을 인식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깨닫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데서 오는 엄청난 기쁨을 깨닫는 것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역압받는 사람을 복돋우는 데에서 훌륭한 모범이 되시는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돌보려 애쓰며, 고통을 덜어 주고자 하며, 좋은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동원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더 환한 웃음을 띠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그들의

발걸음은 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분들 주변에는 만족과 흡족함의 기운이 감도는데, 그것은 다른 이들을 돕는 분들은 그 자신도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⁸

시련과 역경, 비통함, 장애, 온갖 고통을 겪게 되더라도 우리를 보살피고 사랑하시는 구주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⁹

우리의 챔피언 팩스틴을 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그 아이를 통해 그분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으며, 이와 같이 귀중하고도 성스러우며 특별한 교훈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널리 사랑받는 찬송가 가사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싸움 끝나는 날까지 다 응모한

기쁜 우리 기쁜 우리
예비된 금관 보아라 병사들이
우리 승리하고 곧 쓰세¹⁰

형제 자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짐을 씩씩하게 짊어지며, 우리 가운데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일으켜 주고 격려해 주어야 할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의 자녀에게 겸손한 봉사를 베풀겠다는, 하늘 아버지와 맺은 약속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주
1. 러셀 엠 넬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103쪽.
 2. 욥기 38:7 참조.
 3. 제3니파이 17:7, 9.
 4. 요한복음 9:3.
 5. 제임스 이 파우스트, “하나님의 하시는 일”, *성도의 빛*, 1985년 1월호, 58쪽.
 6. 모사이야서 24:15.
 7. 교리와 성약 18:10.
 8. Thomas S. Monson, “Our Brothers’ Keepers”, *Ensign*, June 1998, 39.
 9. 요한복음 14:18, 27.
 10. “싸움 끝나는 날까지”, 찬송가, 179장.





줄리 비 벡
이번 대회에서 해임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상호부조회에 대한 선지자들의 비전: 신앙, 가족, 구제

신앙, 가족, 구제라는 이 짧은 세 낱말은 교회 자매들에 대한 선지자들의 비전을 나타내 왔습니다.

최 근 몇 년간 저는 상호부조회의 목적, 특성¹, 그 역사의 가치², 업적, 그리고 감독과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와의 협력관계³에 관해 자주 말씀하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호부조회에 대한 선지자들의 비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⁴

주님의 선지자들은 장로와 대제사에게 그들의 목적과 의무를 꾸준히 가르쳐 왔듯이, 상호부조회 자매들에 관한 비전에 대해서도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분들의 권고를 보면 상호부조회의 목적은 신앙과 의로움을 키우고,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찾고 돕는 것이 분명합니다. 신앙, 가족, 구제라는 이 짧은 세 낱말은 교회 자매들에 대한 선지자들의 비전을 나타내 왔습니다.

회복이 시작될 때부터 선지자들은 영원한 가치와 목적을 이해하는, 강하고 충실한 여성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상호부조회를 조직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며 이 단체가 하는 여러 일에 함께 참여하며 조직을 감리”⁵하라며 첫 번째 상호부조회 회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분리되어 …… 뛰어난 조직”⁶으로서 상호부조회의 비전을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두 번째 교회 회장인 브리검 영은 보좌들과 십이사도 정원회에게 일러 감독들이 “[자매들에게] 여러 와드에서 여성 상호부조회를 조직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혹자는 이 일을 사소한 일로 여길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⁷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이후,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세상의 조직은 “남자 혹은 여자가 만들었지만” 상호부조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거룩한 권세를 부여하여 그 조직을 설립하셨으며, ……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임하셨다.”⁸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자매들은 “수많은 일을 행할 권능과 권세를”⁹ 받았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성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이 조직은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며, 이 조직의 충실한 회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창립하여 운영됩니다.”¹⁰

광범위한 활동 영역

매년, 수십만에 이르는 여성과 청년들이 점차 커져 가는 “무리를 이룬 자매들”¹¹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디에서 살든, 어디에서 봉사하든 간에, 자매들은 상호부조회에서 회원으로서 지내며 교분을 나눕니다.¹² 상호부조회의 중요한 목적 때문에 제일회장단은 청년들이 18세가 되기 훨씬 전부터 상호부조회에 들어올 준비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피력하셨습니다.¹³

상호부조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신앙, 가족, 구제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매들을 가르치고 강화하며 감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신성하게 성임된” 주님의 교회의 공식적인 조직의 일부입니다. 후기 성도 여성에게 상호부조회는 하나의 생활 방식이며, 그 영향력은 주일학교나 사교 모임보다 훨씬 큼니다. 상호부조회는 고대에 있었던 주님의 교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더불어 봉사했던 여제자들의 모범을 따릅니다.¹⁴ 우리는 “신권으로 형성되는 인격 표준을 생활에 나타내는 것이 남성의 의무인 것처럼 상호부조회에서 길러지는 덕성을 생활 속에 반영하는 것은 여성의 책임”¹⁵이라고 배웠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상호부조회를 조직하면서 자매들에게 “빈곤한 사람들을 돕[고] 영혼을 구원”¹⁶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매들은 광범위한 활동 영역을 조직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상호부조회 회장은 경전을 해설하도록 성별되었고, 상호부조회는 주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본 책임을 계속해서 이어



콜카타, 인도

왔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상호부조회가 자매들이 “신권의 특권과 축복과 은사”¹⁷를 받게 준비시키는 조직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구원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복음을 나누고 선교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도, 그리고 영적, 현재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존 에이 윌소 장로님은 상호부조회가 하는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을 구제하고, 질병을 구제하고, 의심을 구제하고, 무지를 구제하고, 여성들의 기쁨과 발전을 방해하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여성들을 구제하는 일입니다. 이 얼마나 훌륭합니까!”¹⁸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님은 상호부조회를 “위험을 막아 주는 벽”¹⁹에 비유하셨습니다. 자매들과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는 책임을 느끼면, 방문 교육 교사가 보살피고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과 맺은 성약을 기억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궁핍한 사람과 고난에 빠진 사람을 보살피는”²⁰ 사역자로서 우리는 성도들의 현재적, 영적 필요 사항을 돌보기 위해

감독과 함께 일합니다.

스펜서 더블유 킴볼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누더기를 입고 사는 자매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 가정으로 찾아가서 누더기를 예복으로 갈아입혀 주는 것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²¹ 해롤드 비 리 회장은 자신의 비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상호부조회에 방문 교육을 하게 하셨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왜냐면 주님 외에 상호부조회 자매님들보다 더 친절한 영향력을 지니고 각 개인의 마음과 삶을 더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²²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상호부조회가 바야흐로 생겨나는 다른 여성 단체들을 따라가거나 그들과 섞여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날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자매들이 “모든 칭찬할 만한 일과 모든 거룩한 일, 영을 고양시키고 인간의 자녀들을 정화시키는 모든 일에 앞장서서 세상을, 특히 세상의 여성들을 이끌어가[기]를”²³ 바라셨습니다. 회장이 주신 이 권고에는 전통, 주제,

유행, 추세를 배제하고 상호부조회 목적에 부합하는 일들을 포함할 책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계시를 구하는 지도자들은 상호부조회의 모든 모임, 공과, 반, 활동, 노력을 통해 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성, 우정, 단합은 주님의 사업에서 그분과 함께 봉사할 때 얻는 달콤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선지자의 비전을 실현하며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과 보좌들은 최근에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셨다는 것과, 상호부조회는 그 회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간증하셨습니다. 상호부조회의 “영광스러운 유산”이 보존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일회장단은 최근에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을 전 세계에서 출판하고 배포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협력하여 일한 형제 자매들의 모범과 일하는 방식을 찾아보고,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믿는지, 또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관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제일회장단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책을 공부하여 “그 안에 담긴 변하지 않는 진리와 영감을 불어넣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²⁴ 하라고 독려하셨습니다.

자매들이 상호부조회의 목적과 더욱 조화를 이룰 때 선지자들의 비전이 성취될 것입니다. 김볼 회장님은 “이 [상호부조회] 조직에는 시온의 가정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아직 완전히 쏟아 붓지 않은 힘이 남아 있습니다. 이 힘은 자매들과 신권 형제들이 모두 상호부조회의 비전을 내다볼 때에야 비로소 완전히 발휘될 것입니다.”²⁵라고 말씀하셨으며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크게 성장할 것이며, 그 대부분은 세상의 수많은 훌륭한 여성들이(종종 내면에서 영성을 느끼는 이들) 교회로 이끌려 오면서 성취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교회 여성들이 생활 속에서 의로움을 표출하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정도에 따라, 그리고 행복이라는 면에서 세상 여성과 명백하게 구별되는 정도에 따라 일어날 것입니다.”²⁶

저는 상호부조회에 대한 선지자들의 비전에 감사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처럼 저는 “세계 어디에도 이 교회의 상호부조회에 필적할 만한 조직은 없다고 확신합니다.”²⁷ 이제 신앙을 키우고, 가족을 강화하며,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상호부조회에 대한 선지자들의 비전에 동참하는 일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는 로렌조 스노우 회장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상호부조회]의 미래는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상호부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점점 확대될 것이고,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힘차게 선을 향해 전진할 것입니다.”²⁸ 하나님의 왕국을 넓히기 위해 애쓰는 자매들에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수고를 함께했으므로 분명히 이 사업의 승리를 함께 나누고



주님께서 그분의 충실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승영과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²⁹ 저 역시 그와 같은 비전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주

1. 줄리 비 벡,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달성함”,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108~111쪽 참조.
2. 줄리 비 벡, BYU Women’s Conference address (Apr. 29, 2011), http://ce.byu.edu/cw/womensconference/archive/2011/pdf/JulieB_openingS.pdf; “내 손녀(손자)들이 상호부조회에 대해 이해했으면 하는 것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109~113쪽; “상호부조회: 성스러운 사업”,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110~114쪽 참조.
3. Julie B. Beck, “Why We Are Organized into Quorums and Relief Societies”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address, Jan. 17, 2012), speeches.byu.edu 참조.
4. 이 메시지가 상호부조회와 관련해 모든 선지자가 말한 것을 총괄해서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의 비전과 방향에 대한 한 예일 뿐이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 conference reports, 기타 교회 출판물에는 이 주제와 관련해 더 많은 가르침이 담겨 있다.
5. 조셉 스미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 13쪽.
6. 조셉 스미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15쪽.
7. 브리검 영, *내 왕국에 속한 딸들*, 41쪽.
8. 조셉 에프 스미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65~66쪽.
9. 조셉 필딩 스미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142쪽.
10. 조셉 필딩 스미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97쪽.
11. 보이드 케이 패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85쪽.

12. 보이드 케이 패커, “한 무리가 된 자매들”, *성도의 빛*, 1981년 4월호, 186쪽 참조.
13. 제일회장단 서한, 2003년 3월 19일 및 2007년 2월 23일자 참조.
14. *내 왕국에 속한 딸들*, 3~6쪽 참조.
15. 보이드 케이 패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16쪽.
16. 조셉 스미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16쪽.
17. Joseph Smith, *History of the Church*, 4:602.
18. 존 에이 윌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25쪽.
19. 보이드 케이 패커, *성도의 빛*, 1980년 11월호, 185쪽.
20. 조셉 필딩 스미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142쪽.
21. 스펜서 더블유 김볼, *내 왕국에 속한 딸들*, 117쪽.
22. Harold B. Lee, “The Place of Relief Society in the Welfare Plan”, *Relief Society Magazine*, Dec. 1946, 842.
23. 조셉 에프 스미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66쪽.
24. 제일회장단, *내 왕국에 속한 딸들*, ix.
25. 스펜서 더블유 김볼, *내 왕국에 속한 딸들*, 142쪽.
26. 스펜서 더블유 김볼, *내 왕국에 속한 딸들*, 95쪽.
27. 고든 비 힝클리, *내 왕국에 속한 딸들*, 160쪽.
28. 로렌조 스노우, *내 왕국에 속한 딸들*, 19쪽.
29. 로렌조 스노우, *내 왕국에 속한 딸들*, 7쪽.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그리스도의 교리

고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그리스도 교리를 확립하거나 교리적 차이를 바로잡는 일은, 하늘로부터 받는 계시와 관련된 것입니다.

백 자매님과 엘리드 자매님, 톰슨 자매님 및 상호부조회 임원회에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최근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믿음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임무는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마태복음 28: 19~20; 교리와 성약 112:28 참조) 하지만 우리의 교리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확립되는지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었으며, 그것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그 점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주께서는 절정의 시기에 자신의 교리를 가르치셨으며, 그분의 사도들은 잘못된 전통과 철학의 공격에 맞서 교리를 지키려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신약에 실린 서한들에는 사도들이 성역을 베풀던 시절에 이미 심각한 배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여러 사건이 나옵니다.¹ 그로부터 수 세기 동안 복음의 빛은 이따금씩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19세기에 이르러 세상에 찬란한 회복이 동트기 시작하여 충만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로운 날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보다도

더 밝은 빛기둥”(조셉 스미스-역사 1:16) 속에서 어린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시어 신성한 권능과 권세와 관련된 계시를 홍수처럼 내려 주시면서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 계시에서 지상에 다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 교리라 일컬을 만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물몬경에 기록된 다음 말씀을 통해 그 교리를 친히 정의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교리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교리라, 내가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는 나를 증거하시며, 성신은 아버지와 나를 증거하시니, 나는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 있든지 회개하고 나를 믿을 것을 명하심을 증거하노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고 침례를 받는 자, 그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들이 그들이리라. 또 나를 믿지 아니하고, 침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또한 아버지를 만나니, 그에게 아버지께서는 나를 증거하시리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불과 성신으로 그를 방문하실 것입니다. ……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나의 교리라, 누구든지 이 위에 세우는 자는 나의 반석 위에 세우는

자니, 지옥의 문이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제3니파이 11:32~35, 39)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며, 우리의 반석이고, 이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의 토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모두 그렇듯이, 이 교리는 순수하고 명백하여 어린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도록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현재 계시하시는 모든 것을 믿으며, 앞으로도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많은 위대하고도 중대한 것들을 계시하실 것을 믿[습니다].”(신약개조 제9조) 이 말은,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이 많지만, 우리가 받은 진리와 교리는 신성한 계시를 통해 왔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러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종교적 전통에서는 신학자 역시 성직자처럼 가르칠 권세가 동등하게 있다고 주장하기에, 교리에 관한 문제는 그들 사이에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세의 공의회와 그 신조에 의존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 시대 이후의 신학자가 제시하는 추론이나 성경 해석학과 주해에 치중합니다. 학문은 이해를 키워 주기에, 우리 역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하지만 고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그리스도 교리를 확립하거나 교리적 차이를 바로잡는 일은 주님께 사도 권세를 받은 분들이 하늘로부터 받는 계시와 관련된 것입니다.² 1954년, 당시 제일회장단 보좌였던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회장님은 교회에서 교리가 선포되는 과정과 교회 회장의 주요 역할에 관해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구성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정한 총관리 역원들에게는 특별한 부름이 맡겨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 받음으로써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영적 은사를 받습니다. 그들은 교회 회장이 지닌 전반적인 권능과 권세에 종속되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그 백성에게 선포할 권한과 권능, 권세가 있습니다. 다른 총관리 직원들은 그들의 가르침에 관해 이 특별한 영적 은사나 권세를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권능과 권세에 관한 그 한계는 교회의 다른 모든 직원과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서 영적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방금 지적한 대로, 교회 회장은 이러한 면에서 한층 높은 특별한 영적 은사가 있습니다. 그는 교회 전체를 위한 선지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이기 때문입니다.”³

구주께서는 어떻게 그분의 뜻과 교리를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에게 드러내실까요? 그분은 사자를 통하거나 몸소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음성이나 성령의 목소리, 곧 말로 하기 어려운 지식을 전달하는 말씀이나 느낌인 영의 언어 수단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니파이전서 17:45; 교리와 성약 9:8 참조) 그분은 종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시하시거나 종들이 하는 평의회를 통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제3니파이 27:1~8 참조)

신약에 나오는 두 이야기를 인용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 회장에게 전달된 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성령의 본보기를 따르며(마태복음 15:24 참조)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파한 것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변화할 때가 왔습니다. 당시 욕바에 머무르던 베드로는 꿈을 꾸었는데, 그는 하늘에서 여러 가지 동물이 “[네 귀를 맨] 큰 보자기”(사도행전 10:11)에 실려 내려오는



것을 보았으며, “잡아 먹[으라]”(사도행전 10:13)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그 동물 중 일부가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저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와 같은 것을 먹지 말라는 계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던 터였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그 목소리가 그에게 일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사도행전 10:15)

곧이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몇 명이 베드로의 처소에 도착함으로써 그 꿈의 의미가 명백하게 풀렸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의 주인을 방문하여 가르침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꽤 많이 불러 모았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기다리는 그들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

……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사도행전 10:28, 34~35; 또한 17~24절 참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을 금하리요”(사도행전 10:44~47)

주님은 이처럼 베드로에게 주신 계시와 경험을 통해 교회 관행을 바꾸셨으며, 제자들에게 교리에 관한 지식을 더욱 온전히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복음 전파가 확대되어 전 인류를 아우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에는 또 다른 관련 일화가 나옵니다. 이것은 교리 문제에 관한 계시가 어떻게 평의회 차원으로 올 수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모세 율법이 요구하는 할례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 안에서 계명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사도행전 15:1, 5 참조) 그리하여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습니다.]”(사도행전 15:6) 이 평의회에 관한 기록은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많은 변론”(사도행전 15:7) 뒤에 선임 사도인 베드로가 일어서서 성령이 그에게 확인해 주신 바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평의회에게 다음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즉 고넬료 집에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 개종자와 똑같이 성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라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사도행전 15:9~11; 또한 8절 참조)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어찌면 더 많은 사람이 베드로의 말에 힘을 보탠 후, 야고보는 교회에 서한을 보내 그 결정을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평의회는 “만장일치”(사도행전 15:25; 또한 12~23절 참조)로 단합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발표하는 서한에서 “성령과 우리는 …… [그것이] 옳은 줄 알았[다]”(사도행전 15:28)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결정은 성령을 통해 거룩한 계시로 온 것입니다.

오늘날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방식을 따릅니다. 교회 회장은 자신이 받은 계시에 기초하여 교리를 발표하거나 해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교리와 성약 138편 참조) 교리적 해석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로 구성된 합동 평의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공식 선언-2 참조) 평의회는 종종 표준 경전,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 과거 관행을 살펴보는 일 등을 속의 사항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평의회는 궁극적인 목표는 평의회 구성원 간의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평의회는 이성과 신앙을 모두 동원하여 주님의 생각과 뜻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⁴

그와 동시에 우리는 과거든 현재든, 교회 지도자가 하는 말씀 모두가 교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특정한 경우에 한 특정 발언은 보통 개인적인 견해일 뿐 교회 전체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교회 전체에 효력을 미치지도 않는다는 것이 교회 통념입니다. 그것이 신중을 기한 발언일지라도 말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행동할 때만 선지자가 된다.”⁵고 가르쳤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클라크 회장님은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한 짧은 이야기에는 그 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처는 모르지만, 정곡을 찌르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존스틴] 부대가 접근해 오는 초조한 상황에서 브리검 영 형제님은 아침 모임에서 힘차게 연설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몰려오는 군대에 맞서 싸우고 몰아내자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후 모임에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더니, 아침에는 브리검 영이 말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곧이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내용은 아침 연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

교회는 총관리 역원들이 ‘성신에 감동[된]’ 견해를 피력하는지를, 회원들이 성신으로부터 받은 간증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사실은 때가 되면 밝혀질 것입니다.”⁶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우리 교리 가운데 구주의 핵심적 역할을 한 문장으로 잘라 표현했습니다. “우리 종교의 기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간증, 즉 그분은 돌아가셨고, 매장되었으며, 삼 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종교에 관한 다른 모든 것은 단지 그것에 부속되어 있을 뿐입니다.”⁷ 예수님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간증은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실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를 보았고 또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증거하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교리와 성약 76:23; 또한 22절 참조) 저는 이 메시지를 듣거나 읽는 모든 분께 기도와 경전 연구를 통해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실체와

속죄와 부활에 대한 증거를 구해 보시도록 호소합니다. 회개하고, 침례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으며,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율법과 성약을 따르므로써 그분의 교리를 받아들이십시오.

부활절 축일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저는 나사렛 예수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고대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이 바로 겐세마네에서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참으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그분을 통해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이는 모두 구속되어 그분의 하늘 왕국에서 승영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리이며, 기존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성약을 확인하고, 우리

시대를 위해 새로이 기술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닐 에이 맥스웰, “태초부터”, 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18~19쪽 참조.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싸움[과] …… 다똥(야고보서 4:1)을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것과 ‘사나운 이리’가 ‘양떼’(고린도전서 11:18; 사도행전 20:29)를 아끼지 않을 것을 탄식했습니다. 그는 배도가 일어날 것을 알았으며,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서한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썼습니다. 아울러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데살로니가후서 2:3, 7] 있다고 했습니다. 말년에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디모데후서 1:15)며, 배도가 이미 만연했음을 인정했습니다. …… 사도들은 사망에 만연한 간음과 우상 숭배에 대해 경고했습니다.(고린도전서 5:9; 에베소서 5:3; 유다서 1:7 참조) 요한과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탄식했습니다.(고린도후서 11:13; 요한계시록 2:2 참조) 교회가 악에 사로잡힌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떨어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대적했습니다. 바울은 홀로 된 채로 ‘다 나를 버렸다[디모데후서 4:16]’라고 탄식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그는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디도서 1:11)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한 어떤 지역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거역했습니다.(요한3서 1:9~10 참조) 브리검 영 회장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신권이 교회로부터 거두어졌다고들 말하지만 실은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신권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Journal of Discourses, 12:69)” 시간이 흐르자 맥스웰 장로가 표현한 것처럼 되었다. “그리스인의 철학적 전통인 논리가 계시에 의존하던 방식을 지배하고 대체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들의 믿음을 당대 주류 문화에 합류시키고 싶어한 기독교인들 때문에 가속화되었을 것입니다. …… 우리 [역시] 계시된 복음을 세상의 지혜에 타협시키지 않도록 주의합시다.”(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19~20쪽)
2. 조셉 스미스와 같은 선지자와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지만 거기에 더하여, 우리는 일반 남성과 여성, 어린이까지 경전 공부와 기도에도 따라 응답된 신성한 영감으로 깨달음을 얻고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오래 전 사도 시대처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지속적인 의사소통, 즉 개인적 계시를 받도록 돕는 성신의 은사를 받는다.(사도행전 2:37~38 참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교회는 명목적이 아니라 성령으로 확인 받고 깨우침 받아 밝게 보는 신앙을 지닌, 영적으로 성숙하고 충실한 개인들의 집합체가 된다. 이 말은 모든 회원이 교회를 대표하여 말하거나 그 교리를 정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신성한 인도를 받아 자기 삶에 주어지는 기회와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뜻이다.
3. J. Reuben Clark Jr., “When Are Church Leaders’ Words Entitled to Claim of Scripture?” Church News, July 31, 1954, 9-10; 또한 교리와 성약 28:1~2, 6~7,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인생이라는 경주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인생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보편적인 질문은 이제는 해답 없는 의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저는 삶을 풍성하게 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알려 줄 영원한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제트가 사람이란 귀중한 화물을 싣고 광활한 대륙과 넓은 대양을 빠른 속도로 건너다닙니다. 그 덕택에 사람들은 업무 회의에 참석하고, 맡은 일을 다하고, 휴가를 즐기거나 가족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모든 도로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실어 나르는 수백만 대의 자동차 행렬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의 업무로 분주한 우리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흘러가는 바쁜 삶 중에 잠시 멈춰 명상에 잠기거나, 더 나아가 영원한 진리에 대해 생각해 볼 겨를이 있을까요?

일상생활 대부분의 문제와 걱정거리는 영원한 진리에 비교하면 사실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저녁으로 무얼 먹을까? 거실은 무슨 색으로 칠할까? 조니를 축구부에 등록시켜 주어야 하나? 이와 비슷한 수많은 질문은, 위기가 닥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다치고, 건강하던 가족에게 병마가 찾아오고, 생명의 촛불이 희미해지고 어둠이 엄습해 오면,

그저 사소한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상황에 부닥치면 생각이 또렷해져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한낱 사소한 것이 무엇인지를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최근에 저는 2년 이상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과 싸워 온 한 자매님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아프기 전에 집을 완벽하게 청소하고 아름다운 가구들로 채우는 것과 같은 일로 바빴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미용실에 갔고, 옷장에 채워 넣을 옷을 사는 데 매달 돈과 시간을 썼습니다. 항상 자신이 소중한다고 생각했던 물건들이 작고 부주의한 손길 때문에 깨지거나 상하게 될까 염려해서 손주들을 좀처럼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러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우며, 인생에서의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들은 순간, 그 즉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가족과 친구와 보내고 복음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모든 것이 극명해지는 순간이 항상 그렇게 극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이러한 시간은 모두에게 분명히 한 번쯤은 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11~13 참조.

4. 평의회 구성원들이 준비하고 갖추어야 할 성품은 “의로움[...] …… 거룩함과 겸손한 마음, 온유함과 오래 참음 …… 신앙과 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애와 자애[이다.] …… 이는 약속이 만일 그들 안에 이러한 것이 풍성하면 주를 아는 일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는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107:30~31)

5. Joseph Smith, *History of the Church*, 5:265.

6. J. Reuben Clark Jr., “Church Leaders’ Words”, 10. 클라크 회장이 자기 아버지가 전해 준 브리검 영 일화에 관해 쓴 기록은 이렇게 이어진다. “이런 일이 정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한 가지 원리를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무리 교회 회장이라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성신에 감동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주로 확인되지 않은) 교리와 관련해서 있었는데, 나중에 뒤를 이은 교회 회장들과 사람들은 연사가 그 교리를 이야기할 때 ‘성신에 감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교회는 총관리 역원들이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원리와 교리에 관해 자기 의견을 모험하듯 피력할 때 그들이 ‘성신에 감동되[었다]’는 필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총관리 역원들이 ‘성신에 감동[된]’ 견해를 피력하는지를, 회원들이 성신으로부터 받은 간증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사실은 때가 되면 밝혀질 것입니다.”(J. Reuben Clark Jr., “Church Leaders’ Words”, 10)

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9쪽.



저자는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과 딸”⁵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감동적인 메시지와 초월적인 사고를 기록한 영감받은 시인들을 주목해 봅니다. 윌리엄 워즈워스는 진리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출생은 수면과 망각일 뿐
우리와 함께 뜨는 인생의 별인 영혼은
어디선가 젖다가
멀리서 오는 것
완전한 망각도 아니며
완전한 별거승이도 아닌 채로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구름을 타고 오나니
갓 태어난 인간의 모든 것이 하늘을 품고
있구나!⁶

부모는 가르치고, 영감을 주고, 안내와 지침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신의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부모가 숙고하는 동안, 자녀, 특히 청소년기인 자녀는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예리한 의문을 느낍니다. 보통, 자신의 영혼을 향해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라고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현명하신 창조주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우리를 이곳에 보내실 때, 전세에 관해 망각의 장막을 치심으로써 우리가 시험의 시간을 거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직접 증명해 보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상에 존재하는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삶과 빠르 된 육신을 얻기 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또한 선택의지라는 은사도 받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우리는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경험이라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¹

깊은 성찰이나 도움이 절실한 우리 시대에 인간의 영혼은 하늘을 향하며,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생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와 같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관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대학 교재나 인터넷을 검색한다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질문은 이 필멸의 생을 초월하며, 그 안에는 영원한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것은 굳이 입 밖으로 내지 않더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입니다.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²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멸의 부모에게서 우리의 육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는 바울이 한 이 말씀의 의미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영과 몸이 곧 사람의 영혼이니라”³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생은 바로 영입니다. 히브리서

엄한 교사가 우리를 가르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쓴 것과 단 것을 구별하며,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⁷라고 말씀하신 그 “집”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십니다.

“영광의 구름을 끌며” 필멸의 삶이 시작되지만, 인생은 가차 없이 진행됩니다.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지나 부지불식간에 성인기에 접어들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개척해 나가면서 하늘에 도움을 구해야 할 때가 있다는 점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이르는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영원한 진리를 따르고 그분들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⁸

사도 바울은 인생을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엎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⁹

너무 열중하다가 전도서에 있는 사려 깊은 경고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니라!”¹⁰ 실제로, 상은 끝까지 건디는 이에게 돌아갑니다.

인생이라는 경주에 대해 생각할 때면, 어릴 때 하던 한 가지 경주가 떠오릅니다. 친구들과 저는 주머니칼로 연한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 조그만 장난감 배를 만들며 놀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가 만든 그 영성한 배에 삼각형 모양으로 무명 돛을 달고 유타 프로보강에서도 비교적 물살이 센 곳에 배를 띄우고 경주를 했습니다. 강둑을 따라 뛰어 내려가며, 작은 배들이

빠른 물살을 만나면 심하게 까닥거리다가 물이 깊은 곳에서는 고요하게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번은 경주를 하는데, 배 하나가 다른 배들을 앞질러 결승점을 향해 가다가 갑자기 물살에 떠밀려 큰 소용돌이 쪽으로 바짝 끌려가더니 그 옆에 멈춰서 뒤집혀 버렸습니다. 배는 물길을 따라 빙빙 돌기만 할 뿐 강물 본류로 돌아오지 못하다가 결국 여러 가지 부유물에 둘러싸이고 길게 뻗은 푸른 이끼 틈에 끼여 꼼짝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 배는 중심을 잡는 용골도 없고, 방향을 잡는 키도 없고, 동력도 없어서 그저 물길을 따라 밀려내려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난감 배와는 달리, 우리는 인생 여정을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속성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삶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며,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항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말하는 속삭임도 그중 한 가지입니다. 성공적으로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과 선지자 말씀이 담긴 거룩한 경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생을 살다 보면 비틀거리거나 힘없는 웃음을 짓고, 질병의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그 후에 추운 겨울이 오면 결국 우리가 죽음이라 부르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약시대에 욥이 탁월하게 묘사했듯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¹¹ 하고 자문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 의문은 머릿속에서 떨쳐 버리려 해도 항상 다시 떠오릅니다. 죽음은 모든 인류에게

닥칩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옮기는 노인에게도 오고, 인생을 절반도 채 살지 못한 사람을 소환하고, 종종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도 앗아갑니다.

그렇다면, 죽음 저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될까요? 로버트 블래취포드는 그의 저서 *God and My Neighbor*(하나님과 나의 이웃-울긴이)에서 기독교 신앙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 기도, 그리고 특별히 불멸이라는 개념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죽으면 우리 존재는 끝이며, 그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거침없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그의 회의주의가 산산이 부서지고 그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논박할 수조차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서서히 자신이 조롱하고 내쳤던 신앙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그의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을까요? 바로 아내의 죽음이었습니다. 찢어지는 마음으로

사우바도르, 브라질





그는 아내의 시신이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아내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방을 나오며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인데, 아내가 아니야. 모든 것이 바뀌었어. 예전에 있던 무언가가 사라져 버렸어. 이제 더는 아내가 아니야. 사라져 버린 것이 영혼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나?”

후에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죽음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죽음은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 방에서 우리는 …… 우리가 사랑했으나 없었던 소중한 사람과 귀여운 자녀를 찾을 것이다.”¹²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끝이 아님을 압니다. 이 진리는 살아 있는 선지자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 가르쳤으며, 거룩한 경전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문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가르침과 위안을 줍니다.

“이제 죽음과 부활 사이의 영혼의 상태에 관하여 - 보라, 이는 천사에 의해 내게 알려졌나니, 모든 사람의 영은 이 죽어야 하는 육신을 떠남과 동시에, 참으로 모든 사람의 영은 그들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입느니라.

또 그때 이렇게 되리니 의로운 자들의 영은 낙원이라 일컫는 행복의 상태, 곧 안식의 상태, 평화의 상태로 영접되어, 그곳에서 그들의 모든 곤경과 모든 염려와

슬픔에서 놓여 쉬게 되리라.”¹³

구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의 몸이 무덤에 누인 지 삼 일이 지난 후, 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덤의 돌이 굴러지고 부활하신 구속주께서 불멸의 살과 뼈로 된 육신을 입고 걸어 나오셨습니다.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 만난,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라는 읊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¹⁴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구속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제도 있고 땅에 속한 형제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¹⁵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해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살고자 소망하는 곳은 하나님의 면전이며, 우리가 속하고 싶은 곳은 바로 영원한 가족입니다. 일생을 두고 노력하고 추구하며 회개한다면 마지막에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생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보편적인 질문은 이제는 해답 없는 의문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이 참됨을 제 온 영혼을 다해 겸손하게 간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길 잃은 자녀와 불만 가득한 청소년, 방종한 젊은이와 태만한 부모를 걱정하십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아니 실로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가까이 오라. 어서 들어오라. 집으로 오라. 내게로 오라.”

다음 주가 되면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구주의 생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구주께서 살아 계시며 우리의 영광스러운 귀환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 영광스러운 귀환을 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시며 구속주이신 그분의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6:19~21.
2. 사도행전 17:29.
3. 교리와 성약 88:15.
4. 히브리서 12:9.
5. 교리와 성약 76:24.
6. William Wordsworth, *Ode: Intimations of Immortality from Recollections of Early Childhood*(1884), 23-24.
7. 요한복음 14:2~3.
8. 마태복음 5:48; 제3니파이 12:48 참조.
9. 히브리서 12:1.
10. 전도서 9:11.
11. 욥기 14:14.
12. Robert Blatchford, *More Things in Heaven and Earth: Adventures in Quest of a Soul*(1925), 11 참조.
13. 엘마서 40:11~12.
14. 누가복음 24:5~6.
15. 고린도전서 15:40.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구원의 능력

우리는 거룩한 경전의 가르침을 향해 돌아섬으로써 악의 길에서 구출될 수 있습니다.

제게는 아주 좋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연차 대회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모임에서 매라며 새 넥타이를 보내 줍니다. 제 친구 안목이 뛰어나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젊은 친구는 몇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고, 그 때문에 여러모로 제약을 받지만, 다른 면에서는 특출합니다. 예를 들면, 선교사로서의 담대함은 모사이야의 아들들에 견줄 만합니다. 단순한 믿음에서 비롯된 그의 확신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굳세고 한결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것, 몰몬경을 읽어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한 몰몬경이 참되다는 간증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스콧으로서의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모양입니다.

스콧이 난생 처음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형을 만나러 갈 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콧이 옆자리 승객과 나누는 대화를 가까운 자리에 앉았던 이웃이 듣고 전해 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스콧이에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자 옆자리 승객은 이름을 알려 주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세요?”

“기술자란다.”
“대단하네요. 어디 사세요?”
“라스베이거스.”
“그쪽에 성전이 하나 있어요. 몰몬 성전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럼, 아름다운 건물이지.”
“몰몬이세요?”
“아니.”
“그럼, 몰몬이 되세요. 정말 좋은 종교거든요. 몰몬경 읽어 보셨어요?”
“아니.”
“그럼, 읽어 보세요. 정말 위대한 책이거든요.”

저도 스콧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몰몬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몰몬경 소개 부분에 나오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말씀은 늘 심금을 울립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몰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서이고,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몰몬경을 배웁니다. 공과를 준비하고 참여하면서, 스콧이 보여 준 담대한 모범을 따라, 우리도 우리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특별한 경전에 대한 애정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니파이전서 1장 마지막 절에는 몰몬경의 주요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보라, 나 니파이는 주의 친절하신 자비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가 택하신 자 모두의 위에 있어 그들을 능하게 하여, 참으로 구원(deliverance)의 능력에 이르게 하였음을 너희에게 보여 주리라.”(니파이전서 1:20)

저는 주님의 사려 깊은 배려로 이 후기를 위해 보존된 몰몬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교리를 순수하고 “가장 정확[하게]”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구원(deliver)으로 나아가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가 구원, 혹은 구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리하이와 가족을 데리고 광야로 떠난 이야기에는 예루살렘 멸망에서 구원을 받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야렛 백성 이야기, 몰레크 백성 이야기도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엘마 이세는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힐라맨의 청년 용사들은 전쟁 중에 보호되었습니다. 니파이와 리하이는 감옥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구원이란 주제는 몰몬경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몰몬경에는 서로 매우 비슷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전하는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모사이야서에 나오는데, 19장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니파이 땅에 살던 립하이 왕을 만나게 됩니다. 레이맨인은 립하이 백성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 왔습니다. 그 전쟁으로, 레이맨인은 립하이 왕에게 계속 통치하도록 허락하지만 그와 백성을 속박했습니다. 매우 불안정한 평화였던 셈입니다.(모사이야서 19~20장 참조)

립하이 백성은 학정에 견디다 못해 왕을 설득하여 레이맨인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 차례나 패했고, 무거운 짐을 져야 했습니다. 마침내 립하이 백성은 겸손하게 되어 자신들을 구해 달라며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모사이야서 21:1~14 참조) 21장 15절에 그 간구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이에 이제 주께서는 저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저들의 부르짖음 듣기를 더디 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레이맨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시작하셨으므로 그들이 저들의 짐을 가볍게 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럼에도 주께서는 저들을 속박에서 건져 내시기를 함당하게 여기지는 아니하셨더라.”

얼마 후 제이라헤틀라에서 온 암몬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림하이 백성의 지도자 중 하나인 기드온과 암몬 일행이 계획한 일이 성공하여 백성들은 레이맨인의 학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부르짖음 듣기를 더디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많은 면에서 첫 번째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바로 모사이야서 24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엘마와 그의 백성이 힐렘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데, 레이맨인

군대가 그 땅 경계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만나서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모사이야서 23:25~29 참조) 그러나 곧 레이맨인 지도자들은 엘마 백성을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핍박하기 시작하며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 짐을 지게 했습니다.(모사이야서 24:8 참조) 1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의 음성이 그들의 고난 중에 그들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 머리를 들고 안심하라. 이는 너희가 내게 맺은 성약을 내가 알고 있음이요, 내가 나의 백성과 성약하고 그들을 속박에서 건져 낼 것임이니라.”

엘마의 백성은 레이맨인 손에서 구출되어, 제이라헤틀라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가 그곳 백성과 연합하였습니다.

엘마의 백성과 림하이 왕의 백성은 어떤 점이 달랐습니까? 몇 가지 분명한 차이가 보입니다. 엘마 백성은 평화를 사랑했고 더 의로웠습니다. 이미 침례를 받고 주님과 성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시련이 닥치기도 전에 이미 주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낮췄습니다. 주께서 엘마의 백성을 속박하는 손에서 그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속히 건져 내신 것이 타당하고 공정한 이유는 바로 그러한 차이점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전 내용을 통해 우리는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명을 미리 알린 예언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에 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속죄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모두 육체적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회개한다면, 영적 사망에서도 벗어나 영생을 축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속죄와 부활에 관한 약속, 즉 육체적 사망과 영적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는 약속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우리는 우리를 위해 아름답게 설계된 거룩한 경전 속 믿음 체계와는 정반대인 세속주의의 강력한 힘이 거룩한 기록에 담긴 오래된 믿음에 부단히 맞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몇백 년이 넘도록 영원한 가치와 우리 삶의 행동 표준을 밝혀 우리의 지침이 되어 온 것인데도 말입니다. 세속주의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이 허구이고, 주님의 가르침이 낡은 것이라고 떠들어 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만의 표준을 정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들은 신앙인의 권리를 경전과 선지자들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밝히는 교리에 대한 두 번째 증인으로서의 물문경이 우리 주님이신 구주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려 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경과 물문경 모두를 갖는 것이 세상을 위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니파이전서 13장에 있는 기록이 그 답이라고 믿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본 이 마지막 기록들[즉 물문경]은 어린 양의 열두 사도들의 첫 번 기록들[즉 성경]이 참됨을 입증할 것이요, 거기에서 제하여진 명백하고 귀한 것들을 알려 줄 것이며,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이시오 세상의 구원자이신 것과, 만인이 그에게로 와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 주리라.”(40절)

성경도 물문경도 단독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풍족하고 온전하게 가르치고 배우려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양쪽에게 서로가 필요하다 해서 그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승영을 위해 성경과 물문경이 모두 필요합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과 물문경을 함께 사용할 때 이 책들은 거짓 교리를 뒤집어 엎을 것입니다.”(“그리스도의 새 증인”, 성도의 벗, 1985년 1월호, 8쪽)

끝으로 구약전서에 있는 한 이야기와 물문경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들어 이 책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보완하는지를 짚어 보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상숭배를 일삼는 갈대아인에게서 탈출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창세기 11:27~31; 아브라함서 2:1~4 참조)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후에 그들이 근심하던 일에서도 벗어나고,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축복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니다.(창세기 18:18 참조)

구약전서에는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을 선택할 기회를 주자, 롯은 요단 지역을 택하고 거대한 악의 도시인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습니다.(창세기 13:1~12 참조) 후에 롯이 겪게 되는 적지 않은 문제 대부분은 일찍이 소돔이 보이는 쪽으로 장막 문을 내도록 한 결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실한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다른 삶을 경험했습니다. 분명 어려움은 많았지만, 축복받은 삶이 될 터였습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아브라함이 거처하던 장막 문이 어느 쪽을 향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창세기 13장 마지막 절을 보면 강한 암시가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에 아브람[즉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창세기 13:18)

잘 모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거처하던 장막의 문이 여호와를 위해 세운 제단 쪽으로 나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렸겠습니까? 물론경에서 베냐민 왕이 자신의 생애 마지막 말씀을 듣고자 모인 백성에게 어떠한 지침을 내렸는지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왕은 백성에게 장막 문이 성전을 향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모사이야서 2:1~6 참조)

우리는 거룩한 경전의 가르침을 향해 돌아섬으로써 악의 길에서 구출될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위대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망과 죄에서 건져 내십니다.(로마서 11:26; 니파이후서 9:12 참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물론경을 읽는다면 주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입니다. 우리 구주의 첫 번째 성약은 구약과 신약, 즉 성경입니다.

다시 한번 제 친구인 스콧이 물론경을 묘사한 말을 기억해 봅시다. “물론경은 정말 위대한 책입니다.” 물론경이 위대한 이유 중 하나는 성경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리대로 살고자 할 때, 성신이 여러분과 가족을 인도할 것입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경전에는 리아호나가 “정교한 솜씨로 만들어진 한 둥근 공”이었으며 그 안에 지침 두 개가 있었고, 그 중 하나는 리하이의 가족이 광야로 들어가야 할 길을 가리켰다고 나옵니다.(니파이전서 16:10)

저는 리하이가 리아호나를 처음 봤을 때 그렇게 놀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GPS(위성 위치 확인 장치)를 처음 보았을 때 어땠는지 기억이 나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그것이 “정교한 솜씨로 만들어진” 현대 기기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안에 있는 이 작은 장치가 제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내고 목적지까지 정확히 안내해 주는 것이 여전히 신기하기만 합니다.

아내 바바라와 저에게 GPS는 참으로 축복입니다. GPS 덕분에 아내는 제게 그냥 내려서 길을 물어보는 게 낫겠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고, 저는 “글쎄 이 길이 맞는다니까. 안 물어봐도 돼.”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능 좋은 GPS보다 훨씬 훌륭한 도구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길을 잃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신의 속삭임을 통해 다시 올바른 길로 안전하게 되돌아올

수 있으며, 구주의 속죄 희생을 통해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개인만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도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 전반이 혼란에 빠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특히 가정과 관련된 가치와 우선순위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백 년 전에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행복을 가족과 직접 결부시키셨으며, 가족에 우리의 노력을 집중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을 떠나서는 참다운 행복이란 있을 수 없[고] …… 봉사하지 않고서는 행복을 찾아볼 수 없으며, 가정을 성스러운 곳으로 전환시켜 가족 생활을 증진하고 보존하려는 것보다 큰 봉사는 없을 것입니다. …… 우리가 개선시켜야 할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1998], 382, 384쪽)

점점 물질적이고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가정과 가족입니다. 바로 이곳 미국에서 점점 결혼이 경시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한 가지 예입니다. 올해 초에 뉴욕 타임스에서 보도한 내용으로는 “미혼 여성에게서 태어나는 자녀 비율이 최고



기록을 세웠으며, 30세 이하 미국 여성의 출산 중 절반 이상이 결혼 관계 밖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Jason DeParle and Sabrina Tavernise, “Unwed Mothers Now a Majority Before Age of 30”, *New York Times*, Feb. 18, 2012, A1)

우리는 또한 미국에서 결혼하는 부부 중 거의 절반이 이혼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들의 가족 관계에 다른 것이 끼어들게 방지함으로써 종종 문제를 겪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심해지는 빈부 격차와 더불어 가족의 가치와 책임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과 그런 노력을 포기해 버린 사람들 사이의 양극화 현상도 걱정스럽습니다. 통계적으로, 교육을 덜 받고 그 결과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결혼을 하고 교회에 갈 확률은 낮으며, 반대로 범죄에 연루되고 결혼 관계 밖에서 자녀를 낳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경향은 전 세계 대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www.virginia.edu/marriageproject/pdfs/Religion_WorkingPaper.pdf에 나오는 W. Bradford Wilcox and others, “No Money, No Honey, No Church: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Religious Life among the White Working Class” 참조)

대다수 사람들의 통념과는 다르게, 재정적으로 유복하고 교육을 받을수록 전통적인 가족과 그 가치를 지킬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나 하는 것입니다. 더 교육을 받고 유복하기 때문에 가족과 그 가치를 더 확고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확고한 가족과 가치관 때문에 더 교육을 받고 번영하게 되는 것일까요? 전 세계적인 이 교회에 있는 우리는 그 답이 후자임을 압니다. 복음 원리를 통해 가족과 종교에 헌신하겠다고 결심할 때 영적으로 더 발전하기 시작하며, 종종 현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가족이 강화될수록 그 사회 역시 굳건해집니다. 가족과 가치관에 대한 헌신이 근본 원인이며, 그 밖에 거의 모든 것은 결과입니다. 부부가 결혼하여 서로에게 전념할 때, 경제적인 안정을 이룰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자녀가 결혼한 부부에게서 태어나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게서 양육될 때, 그들이 성장하여 직업 면에서 성공할 기회와 확률은 현격히 높아집니다. 가족이 함께 일하고 오락을 즐길 때, 이웃과 지역 사회는 번성하고, 경제는 발전하며, 정부 개입과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는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수요는 감소합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붕괴가 수많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여타 인과관계와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도 그 원인만 바로잡으면 복구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불공정한 것은 올바른 원리와

가치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해결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족입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할 때, 삶의 모든 면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으로서 또 교회로서 지상의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여러 갈래로 분산시키고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오래 지속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식, 추세, 유행, 정치적 타당성, 심지어 옳고 그름에 대한 관념까지 변화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그릇된 것이 옳은 것으로, 옳은 것이 그릇된 것으로 묘사됩니다.(이사야 5:20 참조)

선과 악 사이의 영적인 분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악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를 기만하고 교묘해져서 마치 어둠의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지만, 반대로 복음의 빛과 진리 역시 도덕적이고 선한 것을 찾는, 마음이 정직하고 고결한 이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교회 회원인 우리는 비교적 소수이지만, 갈수록 멀어지고 있는 이 양쪽 모두를 아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중심을 둔 봉사가 하나님 자녀의 영적 또는 경제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그들을 한 자리에 모을 힘이 있음을 압니다. 일 년 전, 제일회장단은 사람들이 더 자립하도록 돕는 복지 프로그램 7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봉사의 날에 참여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전 세계 회원들이 그에 응하여 봉사한 시간은 수백만 시간에 달합니다.

교회는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사나운 바다에서 안전한 항구가 되고, 변화와 분열의 어지러운 조류 속에서 닻이 되며, 의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지상에 있는 그분의 자녀가

그분의 복음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도구입니다.

한계가 정해지지 않은 엘리야의 영 또한 주님 자녀의 영원한 운명을 성취하려는 그분의 목적에 필요한 위대한 권능입니다. 말라기의 기록에는 성신의 영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말라기 4:6)고 나옵니다.

교회는 마음을 돌이키는 본으로서, 그리고 세상에서 선이 확장되도록 돕는 촉매로서 우뚝 서 있습니다. 성전에서 결혼하고 매주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교회 회원은 세상 사람보다 이혼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더 자주 대화합니다. 교회 회원 가족은 더 건강하며, 수명도 통계상의 평균 연령보다 몇 년 더 깁니다. 우리는 궁핍한 사람에게 더 많은 재정 자원과 봉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더 높은 교육을 지향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가족에게로 돌이킬 때, 그리고 가족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생활할 때(더 행복해지고) 삶이 더 나아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가정 밖에서 하는 모든 일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보탬이 되고 보조하는 것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게 될 ……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2000], 134쪽)라는 해롤드 비 리 회장의 말씀과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습니다.”(J. E. McCulloch, *Home: The Savior of Civilization*[1924], 42에서 발췌; Conference Report, Apr. 1935, 116)라는, 시대를 초월한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권고를 기억하십시오.

기도와 경전 읽기, 가족 활동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생활을 정리하십시오. 자녀에게 가정에서 임무를 주어 일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복음에 따라 생활하면 외설, 난잡함, 인터넷과 각종 매체와 비디오 게임의 해악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가르치십시오. 그들은 길을 잃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 책임이 부여될 때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둘째, 올바른 순서대로 행해야 합니다! 결혼이 먼저고 그다음이 가족입니다. 세상의 너무 많은 사람이 이 고유한 순서를 잊고





있으며 순서를 변경하거나 심지어 뒤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신앙으로 극복하십시오. 여러분을 인도할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십시오.

아직 미혼인 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를 찾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젊은 형제 여러분,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이 주신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독신 생활[은] …… 최소한의 책임만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는 피상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 잘못된 젊은 형제들에게 있습니다. 독신으로서 제한과 구속을 당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그들을 의무와 책임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 자매들은 희생자가 됩니다. …… 자매들은 할 수 있다면 결혼하여 가족으로서 맡는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여

하는데도 말입니다.”(*Gospel Doctrine*, 5th ed. [1939], 281)

젊은 자매 여러분에게도 권고합니다. 여러분도 이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직업이나 경력도 가족을 양육하는 것보다 더 큰 성취감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제 나이가 되면, 이를 더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남편과 아내 여러분, 결혼 관계에서 동등한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자주 읽고, 이해하고, 따르십시오. 어떤 형태로든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지 마십시오. 배우자나 자녀는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며, 우리 모두는 이곳에 오기 전에 오직 그분에게 속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 그분과 같이 되도록 도우시려 가족을 꾸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우고 필요한 도움을 그분께 간구할 수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기혼이든 미혼이든, 누구나 가족을 지지하고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제공하는, 가족을 위한 자원을 활용하십시오. 가족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와드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를 지지하고 함께 일하며, 교회의 청소년 및 가족 프로그램의 이점을 충분히 누리십시오. 우리가 영원한 가족을 세우는 데에서 교회는 그 뼈대가 된다는 해롤드 비 리 회장의 통찰력 있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2000], 148쪽 참조).

이제,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이 개인으로서, 또는 가족으로서 길을 잃었다면, 길을 바로잡기 위해 누가복음 15장에 담긴 구주의 가르침을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주께서는 여기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와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환영받는 탕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가르치셨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길을 잃더라도 그분의 속죄와 가르침을 통해 누구나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리대로 살고자 할 때, 성신이 여러분과 가족을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영적인 GPS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온 인류의 구속주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간증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면 하나님 아버지 면전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오 빈센트 할레크 장로
칠십인 정원회

행동으로 옮기는 비전을 가지십시오

멸망하지 않고 번성하려면 구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과 같은 비전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 른 훌륭한 부모님들처럼 저희 부모님도 자녀에게 밝은 미래가 찾아오길 바라셨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회원이 아니셨습니다. 당시 특별한 상황 때문에 부모님은 저희 남매들이 학업을 위해 남태평양에 있는 고향인 미국령 사모아 섬을 떠나 미국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지내기로 한 결정은 부모님에게 힘든 일이었으며, 특히 어머니에겐 더욱 그랬습니다. 부모님은 저희가 새로운 환경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신앙과 결단력으로 계획대로 진행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후기 성도로 성장했기에 금식과 기도 관련 원리를 잘 아셨고, 부모님 두 분 모두 자녀를 도우려면 하늘의 축복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런 취지로 부모님은 일주일 중 하루를 정해 매주 저희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꿈꾼 비전은 밝은 장래를 위해 자녀를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것에 따라 행동하셨고 주님의 축복을 구함으로써 신앙을 행사하셨습니다. 금식과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잘되리라는 확신과 위로와 평안을 받으셨습니다.

삶에 닥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주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는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비전을 그릴 수 있을까요? 그에 관해 잠언에는 이와 같은 진리가 나옵니다. “묵시[비전]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잠언 29:18) 멸망하지 않고 번성하려면 구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과 같은 비전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자신을 따르도록 부르신 겸손한 어부들에게서 그들이 스스로에 대해 처음에 생각하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미래의 모습에 관한 비전을 보셨습니다. 구주께서는 그들의 선함과 잠재력을 아셨기에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부들은 처음에는 경험이 없었지만, 구주를 따르면서 그분의 모범을 보고 그 가르침을 체현하며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 중 일부는 자신이 들은 내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져 그분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다른 이들도 자신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신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요한복음 6:67)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에는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구주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있었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요한복음 6:68)

이 충실하면서도 헌신적인 제자들은 이러한 비전이 있었기에 구주께서 떠나신 후에도 다른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고, 교회를 세울 때 발생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중 일부는 자신의 간증 때문에 마지막 희생도 치렀습니다.

경전에는 복음에 대한 비전을 획득한 후에 나아가서 그에 따라 행한 다른 예도 있습니다. 선지자 엘마는 아빈아다이가 노아 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가르치고 간증하는 것을 들으며 비전을 얻었습니다. 엘마는 아빈아다이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했고, 배운 것을 나가 가르치며, 그의 말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모사이아서 17:1~4; 18:1~16 참조) 초기 성도들은 박해하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개심하여 그 후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간증을 전했습니다.(사도행전 9:1~6, 20~22, 29 참조)

우리 시대에 여러 젊은 형제 자매, 그리고 연로한 부부들이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한 권유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과 용기로 집과 친숙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떠납니다. 자신이 선교사로서 훌륭하게 선행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봉사에 관한 비전을 실천하며 많은 이의 삶을 축복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몬슨 회장님은 지난 연차 대회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봉사에 대해 감사를 전하며,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다시 한 번 알려 주셨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108쪽 참조) 교회 회원들이 몬슨 회장님의 비전에 따라 행함으로써 그 책임을 성취한 이야기는 마음을 훈훈하게 합니다.

구주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리라는 것을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요한복음 14:18)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한복음 14:26) 이분이 구주와 현대의 선지자, 사도들이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능력과 동기를 주시는, 바로 그 성신이십니다.

우리가 지도자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길 때 구주께서 우리에게 대해 갖고 계신 비전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연차 대회 내내 선지자와 사도들의 영감에 찬 권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그 가르침에 대한 비전이 생길 수 있도록 성신의 영을 구하면서 그 가르침을 공부하고 마음에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얻은 비전으로 그분들의 권고를 따르겠다는 신앙을 행사하십시오.

그분들이 전한 메시지에서 더 많은 빛과 지식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경전을 상고하고 공부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숙고하고 이를 통해 영감을 받으십시오. 그 후 그 영감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제 가족이 배운 것처럼, 금식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엘마는 “내가 여러 날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 스스로 이러한 일을 알고자 하였느니라.”(엘마서 5:46)라고 말하면서 금식과 기도가 확증을 얻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역시 금식과 기도를 통해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살다 보면, 해야 할 일을 하려는 우리의 신앙과 비전을 때때로 감소시키는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바빠서 어깨가 무겁고 더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르지만, 비전만큼은 구주와 그분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겸손하게 제안합니다. 구주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게서 무엇을 보시고는 자신을 따르라고 권유하려는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그들에게서 보셨던 비전처럼 구주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큰 비전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행복과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것에 다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초기 사도들에게 있었던 바로 그 신앙과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주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 공부할 때 사람들 사이에서 가르치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강화시키고, 치유하시는 구주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 따르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 대로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됩니다. 성신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더 많은 선을

행하려는 깨달음을 축복으로 얻게 됩니다.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여러분과 가족에게 축복이 되도록 자신의 삶이 다시 정리될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니파이인에게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리고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제3니파이 27:27) 주님과 같이 되려면 그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는 구하는 이가 받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임이니라.”(제3니파이 27:29)

구주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비전이 생긴다면, 그리고 그 비전에 따라 행동한다면, 우리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축복받을 것입니다. 저는



래리 와이 윌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부모님의 비전 덕분에 인생에서 교육의 기회로 축복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찾고 받아들여지게 된 환경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선량하고 충실한 부모님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제 삶은 영원히 변화되었습니다.

제 부모님들이 비전이 있었기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초기 사도들이 비전이 있었기에 구주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비전으로 행동을 취하는 데 필요한 영감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와 신앙, 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비전을 주시고 행동으로 옮길 용기를 축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저는 구주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분의 소망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 즉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같이 되려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여러 시기에 손을 뻗어 우리에게 권유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1:29~30)

구주께서는 초기 사도들에게서 위대한 잠재력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똑같은 잠재력을 보십니다. 구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와 신앙과 함께 그러한 비전을 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명명한 부모는 자녀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자녀가 영적으로 성숙해 감에 따라 선택의지를 올바르게 행사하여 성장할 기회를 줍니다.

결 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와 아내는 자동차를 타고 장거리 육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운전은 아내가 했고, 저는 쉬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노력했다고 말하는 것은 당시 저희가 달리던 고속도로가 속도위반 단속 지역으로 유명한데다, 당시 제 아내가 좀 속도를 내는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속도를 줄여요.”

아내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참, 난 거의 10년이나 운전을 해 왔고, 운전 교육 강사 외에는 누구도 내 운전에 대해 이렇게 저렇다한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무슨 권리로 나에게 운전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거죠?”

솔직히 그 질문은 저의 혀를 찼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혼 남성으로서 받은 새로운 책임을 다하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난 당신의 남편이자 신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지.”

형제 여러분, 충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와 비슷한 상황을 맞는다면, 그런 대답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실수는 그 한 번뿐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교리와 성약을 보면, 가정이나 그 밖에

다른 곳에서 신권을 행사하는 권리는 우리 삶의 의로움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통제되거나 다루어질 수 없다 함이니라.” 또한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통제하거나 지배하거나 강압하려 하면”² 그 권능을 잃게 된다고 나옵니다.

이 성구는 우리가 “의의 원칙”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교회의 모든 지도자뿐 아니라 가정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적용됩니다.³ 만일 불의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 하나님께 받은 모든 권세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됩니다.⁴ 어쩌면 우리는 그 같은 방식이 “통제”받는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도덕적 선택의지를 행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어떤 사람에게 의를 강요하려 할 때마다 우리는 불의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확고한 한계점을 짚어 주어야 한다면, 사랑이 가득한 인내와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냥 옳은 일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경전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강압하면, 점차 분노가



쌓입니다. 불신하게 되고 스스로 무능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통제하는 사람이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위한 올바른 답이 자신에게 모두 있다고 생각할 때, 배움의 기회는 사라집니다. 경전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이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천성과 기질이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비록 경전은 이 문제를, 특히 형제들과 관련지어 지적했지만, 자매들 역시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지배력은 종종 끊임없는 비판을 수반하며 인정이나 사랑을 유보합니다. 그러한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신이 그러한 지도자나 부모를 절대 만족시킬 수 없고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현명한 부모는 자녀가 인생의 특정 영역에서 언제 선택의지를 발휘할 준비가 되는지 신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모든 결정권을 움켜쥐고 그것을 자신의 '권리'로 생각한다면, 그 부모는 자녀의 성장과 발전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사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덕적 선택의지에 대한 고삐를 넘겨주는 것을 자녀가 집을 떠날 때까지 미룬다면, 너무 오래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품 안에 있는 동안 어떠한 중요한 결정도 내리지 못할 만큼 자유롭지 못했다면, 현명한 결정을 할 능력이 갑자기 생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녀는 종종 이러한 강압에 반항하거나 혼자서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무능함 때문에 좌절하게 됩니다.

현명한 부모는 자녀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자녀가 영적으로 성숙해 감에 따라 선택의지를 올바로 행사하여 성장할 기회를 줍니다. 물론 이것은 자녀가 때로 실수를 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족은 자녀가 선택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 것에 관해 깨달음을 얻은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딸 메리는 자라면서 축구를 했는데, 팀에서 돋보이는 선수였습니다. 어떤 해에는 메리의 팀이

결승에 진출한 적이 있었는데, 결승 경기가 일요일에 있었습니다. 어린 십 대 소녀인 메리는 수년 동안 안식일이 휴식과 영적 재생의 날이지 오락하는 날이 아니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딸은 경기에 나오라는 코치와 동료 선수들의 압박과, 팀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바람으로 여전히 힘겨워했습니다.

메리는 저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희는 딸을 위해 쉽게 결정을 내려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한 끝에 딸이 자신의 결정에 관해 영적인 책임을 질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딸과 함께 경전을 조금 읽은 후, 메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 기도하고 생각해 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딸은 자신이 한 결정을 들려주었습니다. 메리는 일요일에 경기를 뛰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저희는 더 의논하고 영으로부터 다시 확인을 받은 후, 약속한 것처럼 메리에게 선택한 대로 경기를 해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메리는 기다리던 엄마에게 터벅터벅 걸어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엄마. 기분이 정말 끔찍했어요. 다시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아요. 안식일에는 절대 경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제 딸은 그 말을 지켰습니다.

메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는 원리를 내면화했습니다. 그때 경기를 뛰지 말라고 강요했다면, 저희는 딸아이에게서 영을 통해 소중하고 강력하게 배울 기회를 박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선택의지를 올바르게 행사하도록 도와주려면 자녀에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또한, 순종의 가치와 목적을 비롯하여 기타 필수적인 복음 원리를 모두 가르쳐야 합니다.⁶

저희는 가족을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자녀가 하늘과 닿는 자신만의 연결 고리를 구축하도록 돕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자녀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아니라 주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브리검 영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모든 의무에 차이를 둔다면 하늘에서부터 지구까지, 즉 하나님과 우리 영혼 사이에 교통하는 길이 열릴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찾는 의무를 최우선으로 놓을 것입니다."⁷

메리는 이전에도 다른 일로 기도를 드렸고, 응답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도 딸이 자신의 삶에서 하늘과 교통하는 길을 닦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딸은 그 경험으로 뭔가 긍정적인 것을 배웠고 미래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영과 통하는 연결 고리가 없다면, 자녀나 부모 모두 선택의지의 행사라는 핑계로 온갖 나쁜 결정을 합리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전에 이런 약속이 나옵니다. "슬기로우며 성령을 자기들의 인도자로 삼는 사람들은"

속임을 받지 아니[하리라.]"⁸

불의한 지배력에 따르는 또 다른 비극적인 부작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이 요구하고 통제하는 지도자나 부모에게 시달림을 받았던 몇몇 사람을 압니다. 그들은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고 의의 길을 따라가도록 동기를 주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바로 그러한 사랑을 느끼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청지기로서 돌보도록 우리에게 맡긴 사람들이 하늘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그 연결 고리를 확립하도록 도우려 한다면, 우리는 교리와 성약 121편에 묘사된 그러한 부모와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⁹ 행동해야 합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도움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본향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으며, 그 일을 그들이 해낼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는 점을 느끼게 해 주는 것입니다."¹⁰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원리에 대해 생각하며,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전기에 나오는 한 예를 들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몬슨 회장의 따님인 앤 님은 자신이 자란 친정 현관문을 들어설 때면, 요즘도 아버지가 "이야, 누가 왔는지 보세요. 이렇게 기쁠 수가, 우리 딸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하며 반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떤 모습이면 무엇을 했던 간에 언제나 칭찬을 하세요. 부모님을 뵈러 찾아갈 때마다 사랑받고, 칭찬받고, 환영받고, 편안하리라는 것을 저는 알죠."¹¹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이 그분께로 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¹² 모든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영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21:36.
2. 교리와 성약 121:37; 강조 추가.
3. Neal A. Maxwell, "Put Off the Natural Man, and Come Off Conqueror", *Tambuli*, Jan. 1991, 13-14; *Ensign*, Nov. 1990, 14-16 참조.
4. 교리와 성약 121:37 참조.
5. 교리와 성약 121:39.
6. 교리와 성약 68:25-29 참조.
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1997), 44쪽.
8. 교리와 성약 45:57.
9. 교리와 성약 121:41.
10. 헨리 비 아이어링, "집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25쪽.
11. Heidi S. Swinton, *To the Rescue: The Biography of Thomas S. Monson*(2010), 372 참조.
12. 마태복음 11:28 참조.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장로
칠십인 정원회

그 일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하는 이들과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누는 일은 생활하면서 실천해야 할 일인 동시에 기쁨입니다.

이 번 대회와 최근에 있었던 다른 모임 동안,¹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돕고, 자신이 사는 곳에서 진정한 성장을 보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하고 생각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것과 그 밖의 다른 중요한 노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늘 가정과 가족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² 가족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³ 우리는 자녀에게 복음 원리와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만 여덟 살이 되었을 때 침례를 받을 준비를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⁴ 신앙에 따라 충실하게 생활하여 우리가 주님과 그분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본보기를 자녀에게 보여야 합니다. 이런 모범을 통해 우리 자녀는 계명을 지키는 데서 기쁨을 느끼고, 가정에서 행복해하며,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데서 감사를 느낍니다. 우리는 니파이가 언급한 다음과 같은 행동 양식을 가정 안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손[을] …… 설득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부지런히 수고하[였고] ……

……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하노니,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⁵

우리는 함께 교회에 참석하고, 가정의 밤을 하며, 같이 경전을 읽음으로써 자녀가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식구들과 함께 날마다 기도하며, 부름을 받아들이고, 병들고 외로운 분들을 방문하며, 그 밖의 다른 일도 마다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과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의 밤 공과를 하거나, 아이 곁에 앉아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과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들려주면서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하고 예언합니다.

또,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에 대해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편지는 선교사, 군 복무 중인 자녀, 그 외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모두에게 축복이 됩니다. 집에서 오는 편지는 짙막한 전자 우편과는 다릅니다. 진심 어린 편지는 품에 지니고 다니면서 그에 대해 생각하고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실질적인 무언가가 됩니다.

자녀들은 사랑하고 용서하며 양육하는 부모를 보면서 구주의 속죄에 의지하게 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역시 용서하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과 용서는 자녀와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며 회개하고 더 나은 행동을 하고 더 나아지려 노력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신앙을 자녀에게 심어 줄 수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부모님에게서도 그러한 경험을 했기에 아이들은 그 사실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해야 하는 일에 덧붙여 니파이는 “우리가 …… 우리의 형제들을 설득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부지런히 수고하여[야]”⁶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을 나눌 책임과 축복이 있습니다. 삶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 중에는 아직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도 있고, 한때는 우리와 함께했으나 이제는 그러지 않아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느꼈던 기쁨을 다시금 맛보아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과 그분께로 돌아오는 사람 모두를 사랑하십니다.⁷ 누가 되었던 간에 그분과 우리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과 우리에게 큰 것은 영혼의 가치입니다.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일은 모든 자녀에게 그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⁹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돕는 것은 축복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 일을 돕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교사 경험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잠자코 앉아 지난 경험이나 곱씹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누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¹⁰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하는 이들과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누는 일은 생활하면서 실천해야 할 일인 동시에 기쁨입니다. 이에 관련된 두 가지 경험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자란 데이브 오처드는 친구들 대부분이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데이브에게 훌륭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웃에 사는 교회 지도자들도 끊임없이 데이브를 활동에 초대했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그때는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으나 데이브는 성장기 동안 착한 후기 성도 친구들과 교회가 후원하는 활동에서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자 데이브는 이사를 갔고 친구들은 대부분 선교

사업을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 친구들이 그리워졌습니다.

한 고등학교 친구만이 집을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생활을 바로잡고 선교사로 봉사하려고 매주 감독님을 만나는 중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데이브는 룸메이트가 되었는데, 그 친구는 왜 자신이 선교 사업을 나가지 않았는지, 또 감독님과 수시로 만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회개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감독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데이브에게 다음 접견 때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당황스러운 부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우정과 당시 상황을 생각할 때, 그것은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데이브는 동의했고 곧이어 감독님과 접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데이브는 선교사를 만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복음이 참되다는 간증을 얻었으며 침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감독님이 데이브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일 년 후, 데이브 오처드는 캐서린 에번스와 성전에서 결혼하여 귀여운 다섯 자녀를 두었습니다. 캐서린은 바로 제 여동생입니다. 저는 데이브를 교회로 이끈 그 친구와 훌륭한 감독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데이브는 자신의 개종담과 개종에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간증하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불과 한 소년이 침례를 받았을 뿐인데, 친구들과 청소년 지도자, 감독님이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노력을 기울인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데이브는 캐서린과 다섯 자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아내와 다섯 아이에 대해서만큼은 ‘네’ 하고 대답할 수 있겠죠.”

복음을 나누기만 한다면 “불과 한 소년”으로 그치는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 개종을 하거나 주님께 다시 돌아오면, 한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데이브와 캐서린의 자녀들은 자라면서 모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딸 하나와 아들 둘은 선교 사업을 마쳤으며, 다른 아들은 최근에 독일어로 봉사하는 알파인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은 성전에서 결혼했고, 막내는 지금 고등학생인데, 모든 면에서 착실합니다. 그 일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물론입니다.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일린 웨이트 자매는 데이브 오처드가 개종 경험을 들려준 그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웨이트 자매는 스테이크 대회 내내 자기 가족, 특히 그중에서도 오래 전에 교회에서 멀어진 여동생 미셸을

떠올렸습니다. 미셀은 이혼하여 힘겹게 네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린은 엠러셀 벨라드 장로님이 쓰신 행복의 추구라는 책에 간증을 적어 미셀에게 보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다음 주, 한 친구가 자기도 미셀과 연락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아이린에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도 미셀에게 사랑과 간증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을 돕기 위해 영이 수시로 여러 사람에게 작용한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난 후, 미셀은 아이린에게 책을 보내 줘 고맙다고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삶에 영적 공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린은 동생이 구하는 평화를 복음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동생을 사랑하며 행복하기를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미셀은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고, 얼마 후 활동 회원인 멋진 남성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여 일 년 후 유타 옥든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스물네 살 된 그들의 아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미셀의 나머지 가족들과 이 교회가 참되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모든 분께 이 교회가 참된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해 보도록 권합니다. 가족과 친구와 선교사들이 여러분을 돕도록 해 주십시오. 이 참된 교회가 실제로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시거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똑같은 걸음을 내디딤으로써 우리와 함께하십시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의 속삭임에 따라 행동하고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간증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라며 권유했기 때문에 이 훌륭한 여성과 그 가족에게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실화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생활을 바로잡으려고 애쓰던 한 청년은 진리를



찾는 다른 청년을 도왔습니다. 한 여성은 자신의 간증과 믿음을 20년간이나 교회를 떠나 있던 동생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게 해 달라고 기도로 구하고 영의 속삭임을 따르겠다고 약속드리다면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사업에서, 그분께서 쓰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영의 속삭임에 따라 행하면,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¹¹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눈 이 경험담을 들으시면서 아이린 웨이트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손을 내밀어 다시 돌아오라고 권유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을 나뉘어 할 누군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 바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들과 주님을 사랑한다는 점을 알게 하십시오. 선교사들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몬스 회장님이 이 연단에서 말씀하신 “속삭임을 느끼면 행동을 늦추지 마라.”¹²는 권고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속삭임에 따라 사랑으로 행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하려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염려하는 분들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¹³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가족과 사랑하는 이에게 복음 축복을 전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진정한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 아들의 사업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살아 계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러한 속삭임에 따라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과 구주의 능력을 믿는 신앙을 가진다면, 기적이 일어나고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12년 2월 11일, LDS.org 참조.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2000), 134쪽 참조.
3. 보이드 케이 패커, “가정에서의 신권 권능”,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12년 2월 11일, LDS.org 참조.
4. 교리와 성약 68:25~28 참조.
5. 니파이후서 25:23, 26.
6. 니파이후서 25:23.
7. 누가복음 15:4~7 참조.
8. 교리와 성약 18:10 참조.
9. 모세서 1:39.
10. “Status Report on Missionary Work: A Conversation with Elder Thomas S. Monson, Chairman of the Missionary Committee of the Council of the Twelve”, *Ensign*, Oct. 1977, 14.
11. 토마스 에스 몬스, “힘써 노력하며”,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56~59쪽; “구조대에게”,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57~60쪽; “사랑이라 불리는 관문”, *성도의 빛*, 1996년 10월호, 2~7쪽 참조.
12. Ann M. Dibb, “My Father Is a Prophet”(Brigham Young University-Idaho devotional, Feb. 19, 2008), byui.edu/devotionalsandspeeches; 토마스 에스 몬스, “네게 임명한 자리를 지키지 마라”,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54~57쪽; “잡잡하라, 고요하라”,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53~56쪽; “신권의 권세”,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58~61쪽; “영은 것임이니라”, *성도의 빛*, 1997년 6월호, 2~7쪽 참조.
13. 토마스 에스 몬스 회장 외에 다른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원리를 가르쳤다. 한 예로, 스펜서 터블유 김벌 회장은 영을 통해 얻는 느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쳤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그러나 보통 다른 사람들 통해 우리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왕국에서 서로 봉사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터블유 김벌*(2006), 82쪽)



폴 비 파이프 장로
칠십인 정원회

성스럽게 간직하십시오

성스러운 것은 더 조심스럽게 더 깊이 존중해야 하며 더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약 1,500년 전, 호렘 산 비탈면에 있는 불붙은 떨기나무로 이끌려 간 한 양치기가 있었습니다. 이 신성한 경험은 모세의 역할이 평범한 양치기에서 선지자로, 그의 과업이 양떼 모는 것에서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는 것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천삼백 년이 흐른 뒤, 특권 계층이었던 한 젊은 궁정 제사는 사형 선고를 받은 한 선지자의 간증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엘마는 정부 관리가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거의 2천 년이 지난 후에는 열네 살 소년이 진지한 의문에 답을 구하려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에서 한 경험으로 조셉 스미스는 회복을 일으킬 선지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마, 조셉 스미스의 삶은 신성한 경험을 통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강화된 그들은 엄청난 반대와 거둬지는 시련을 무릅쓰고 일평생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성한 경험은 직접적이거나 극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 또한 그렇게 극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충실하게 견디려면, 그 선지자들처럼 위에서 받은 것을 인식하고 기억하며 성스럽게 간직함으로써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지상에 권세와 열쇠, 의식이

회복되었습니다. 경전과 특별한 증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죄 사함을 위한 침례와 “불과 성신의 침례를 위하여 안수로써”(교리와 성약 20:41) 확인을 받을 것입니다. 이같이 소중한 회복된 은사를 받으면, 우리는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인 성신과 관련하여 신성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이 내게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말하네
나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네
("The Still Small Voice", *Children's Songbook*, 106)

성령 인도하시어
참된 것 가르치고
그리스도 간증해
우리 맘 비추소서
("성령 인도하시어", 찬송가, 73장)

하나님에게서 오는 응답을 구할 때, 우리는 우리 영에 속삭이는 작고 고요한 음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느낌은 정말 자연스럽게 미묘해서 간과해 버리거나 이성 또는 직관으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오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 하나하나를 사랑하고 염려하시며 현세에서 그들 각자가 받은 사명에 관해 주의 깊게 보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매일 영에게서

받은 느낌을 돌아보고 기록하면 (1) 신성한 경험을 인식할 수 있고 (2) 나 자신과 후손을 위해 기록도 남길 수 있다는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런 느낌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을 정식으로 인식하고 나타내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 외에는 사람이 어떠한 일로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거나 어느 누구에게도 그의 진노가 불붙지 아니[할]”(교리와 성약 59:21) 것입니다.

주님은 영에게서 받은 느낌에 관해 “위에서 오는 것은 성스러[운 것임]…… 기억하라.”(교리와 성약 63:64)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영을 상기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의이자 설명이기도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빛과 지식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 근원이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성스럽다는 말은 경건과 존중을 나타낼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어떤 것을 성스러운 것으로 명시하시므로써 그것을 다른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우선에 둔다는 뜻을 나타내십니다. 성스러운 것은 더 조심스럽게 더 깊이 존중해야 하며 더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늘의 가치 순위에서 상위에 위치한다면, 그것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이 선택의지를 행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성스러운 것이 우리에게도 성스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성스럽다고 규정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성스럽게 지킬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빛과 지식을 보내 주시며, 그분께서 보내신 것을 성스럽게 대하라고 우리에게 권유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니파이후서 2:11) 성스러움의 반대는 불경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으로, 그것은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뜻합니다. 세상적인 것은 우리의 관심과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위해 항상 신성한 것과 겨루려 합니다. 매일의 현세 생활을 위해서 세상의 지식은 분명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학문과 지혜를 추구하고, 가장 좋은 책에서 공부하고 배우며, 여러 언어와 방언과 백성들과 친숙하게 되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교리와 성약 88:118; 90:15 참조)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권고에 귀 기울일진대, 학식을 얻음은 좋으니라”(니파이후서 9:29; 기울임체 추가)라는 말처럼 성스러운 것을 세속적인 것보다 우선시하겠다는 선택은 양자택일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에 우선순위를 가리는 투쟁은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한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을 속박에서 구해 내라는 신성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모세는 자신의 세상적인 지식에 따라 애굽이란 국가와 바로의 막강한 힘을 알았기에 주님의 부름을 의심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여 자신의 세상적 지식을 누르고 신성한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런 신뢰를 보였기 때문에 모세는 현세적인 시련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낼 힘을 얻었습니다.

노아 왕의 군대를 피해 도망친 후 앰울론의 노예로 전락했을 때, 엘마는 아빈아다이의 말을 들으며 받았던 영적인 증거를 부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성한 증거를 신뢰했으며 끝까지 견딜 힘을 받고 현세적인 시련에서 벗어났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몰몬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와 비슷한, 어려운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는 금판과 번역 사업의 신성한 본질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틴 해리스가 설득하자 이미 받았던 성스러운 지침보다는 재정과 우정이라는, 세속적인 것을 더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번역 원고는 분실되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성스러운 것을 악에게”(교리와 성약 10:9) 넘겨 버렸다며 조셉 스미스를 질책하시고 금판과 번역할 수 있는 은사를 잠시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조셉 스미스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재정립되자 성스러운 은사가 회복되고 번역 사업은

계속되었습니다.

몰몬경에는 성스러운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는 또 다른 예가 나옵니다. 몰몬경에는 믿는 자들이 신앙으로 생명나무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신성한 열매를 따 먹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열매를 따 먹은 후 크고 넓은 건물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신성한 것에서 세속적인 것으로 돌아서게 됩니다.(니파이전서 8:11; 24~28 참조) 후에 니파이 백성은 교만해져서 예언과 계시의 영을 부인하고 “거룩한 것을 조롱하[였습니다.]”(힐라멘서 4:12) 심지어 주님의 탄생에 관한 표적과 기사를 목격한 이들조차 세상의 해석에 동조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신성한 표적을 거부하게 됩니다.(제3니파이 2:1~3 참조)

오늘날에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목소리를 격렬하게 드높입니다.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라고 간주되는 믿음을 버리라고, 세상은 믿는 이들에게 더욱더 종용합니다. “우리가 ……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고린도전서 13:12) “모든 것의 의미를 알지는 못하[기]”(니파이전서 11:17)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연약하며 더 큰 영적 확신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증거를 더 원하면 이 일들의 진실에 관해 알기 위하여 네 마음속으로 내게 부르짖던 그 밤을 생각해 보라.

내가 그 일에 대하여 네 생각에 평강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보다 무슨 더 큰 증거를 얻을 수 있겠느냐?”(교리와 성약 6:22~23)

주님은 신앙에 시험을 받거든 이미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은 성스러운 증거에 의존하라고, 올리버 카우드리와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모세와 엘마, 조셉 스미스가 그랬듯이 신성한 경험은 시련이 닥칠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똑바로 나아가게 해 주는 영적인 닻이 될 것입니다.

성스러운 것은 취사선택할 수 없습니다. 성스러운 것을 하나라도 버리려 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두워질 것이며(교리와 성약 84:54 참조) 회개하지 않는다면, 받았던 빛마저도 거두어질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33 참조) 성스러운 것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세속적인 바다에서 도덕적으로 표류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성스러운 것을 성스럽게 지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빛이니,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나니,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50:24)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어 우리가 위에서 받은 것을 언제나 인식하고, 기억하며, 성스럽게 간직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시련을 견디고 우리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되리라는 간증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른다면, 주님의 사랑과 인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브라질의 어느 유력 잡지 기자가 주요 기사를 쓰기 위해 우리 교회를 취재했습니다.¹ 그는 교리도 살펴보고 선교사 훈련원과 인도주의 센터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호적인 분들과도 대화를 나눴고, 교회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과도 만났습니다. 저와 인터뷰 중에 그 기자는 진심으로 혼란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독교인으로 보지 않을 수 있죠?” 저는 그가 교회를 두고 질문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질문이 저를 향한 것처럼 느껴졌기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나 자신이 구주에 대해 느끼는 사랑과 헌신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²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그분을 따랐는가 하는 최종 평가는 친구들이나 적들이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³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그날,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온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외식하는 자⁴, 어리석은 자⁵, 불법을 행하는 자⁶라고 꾸짖듯이 칭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의 아들들⁷이며 세상의 빛⁸이라고 흐뭇하게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맹인⁹이라고, 결실하지 못하는 자¹⁰라고 못마땅하신 듯이 힐책하셨습니다. 또 어떤 이는 마음이 청결한 자¹¹이며 의에 주린 자¹²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¹³이며 세상에 속한 자¹⁴라고 탄식하신 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택한 자¹⁵요, 제자¹⁶이자 친구¹⁷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인 것에서 [멀어져 가고 있으며] …… 변화의 바람이 주위에서 소용돌이치고 사회의 도덕성이 눈 앞에서 와해되어 [간다.]”¹⁸고 묘사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불신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 삶 모든 곳에 미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이기 우리 앞에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¹⁹ 이러한 운명을 결정짓는 날에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영원히 계속될 세계에서 명예로운 훈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회에서 들은 여러 말씀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주님이 세워 주신 이정표입니다. 지난 이틀간 영적인 인도를 구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그리고 앞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는 성신의 은사를 통해 각자에게 꼭 맞는 방향을 알려 주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성신을 통해 오는 이러한 느낌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로 이끌어 회개하고 순종하며 믿고 따르게 합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신앙을 행사하면 응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²⁰

“와서 나를 따라라”²¹고 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은 영적인 올림픽에서 겨울 준비가 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이란 실제로는 경쟁과는 거리가 먼,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일종의 초대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은 트랙을 향해 돌진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며 기나긴 마라톤 경주에 견주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제자의 길이란 평생토록 해의 왕국을 향해 조금씩 더 가까이 이주해 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분의 초대는 매일의 의무에 힘쓰라는 부르심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²²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²³ 매일 최고로 좋은 상태일 수는 없을 테지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예수님이 보내신 다음 초대는 격려와 희망으로 가득한 것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²⁴

지금 이 순간 어느 지점에 있던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바른 길, 곧 영생으로 이끄는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펼쳐질 위대하고 중요한 나날을 맞아 서로 일으켜 세워 주고 서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어떠한 연약함에 얽매이더라도, 사방이 온통

불가능으로 가득 찰지라도 이같이 선언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을 지닙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²⁵

저는 제자의 길을 몸소 보여 주신 두 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들려 드릴 예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 생애에서 있었던 일로, 회장님은 평범한 친절의 힘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²⁶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보여 주셨습니다.

20년 전쯤 몬슨 회장님은 연차 대회에서 암으로 고통받던 열두 살 된 청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회장님은 그 청녀가 유타 중부에 있는 팀파노고스 산에 오르고자 용기를 낸 것과 친구들이 가상하게도 그녀를 업고 간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제이미 팔머 브린턴을 만나 그 이야기를 다른 시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몬슨 회장님이 그녀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이미가 몬슨 회장님을 뵈는 것은 1993년 3월, 오른쪽 무릎 위에 생긴 덩어리 같은 것이 사실은 빠르게 자라나는 골수암이라는 말을 들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제이미의 아버지와 함께 신권 축복을 하며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대의 오른쪽에도 왼편에도 계시며 그대를 다독여 주실 것이니라.”

제이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몬슨 회장님의 사무실을 나서며 제 휠체어에 묶인 풍선을 풀어 회장님께 드렸어요. 풍선에는 밝은 글씨로 ‘넌 최고야!’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어요.”

제이미가 화학요법으로 치료받고 다리를 살려 내기 위한 수술을 해 나가는 동안, 몬슨 회장님은 그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제이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범으로 보여

앤지, 건시, 건슬리 사인텔루스





주셨어요. [그분은] 저를 슬픔에서 들어 올려 크고 변치 않는 희망을 품게 해 주셨지요.” 3년이 지난 후, 제이미는 다시 몬슨 회장님 사무실에 앉게 되었는데, 만남이 끝날 무렵 회장님은 제이미가 절대 잊지 못할 일을 하셨습니다. 이는 몬슨 회장님의 사려 깊은 면모를 보여 주는 전형적인 일화로, 그분은 제이미가 3년 전에 드렸던 바로 그 풍선으로 그녀를 깜짝 놀라게 하셨습니다. 풍선은 여전히 ‘넌 최고야!’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제이미가 암이 완치되면 사무실로 다시 오리라는 것을 알고 풍선을 보관해 두셨던 것입니다. 첫 만남이 있는 지 14년 후, 몬슨 회장님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제이미와 제이슨 브린턴의 결혼 의식을 집행하셨습니다.²⁷

우리는 몬슨 회장님이 제자로서 보이신 이 모범에서 아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총관리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질문을 기억하라고 자주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는 회당장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²⁸ 제자의 길이란 화평한 때에도, 또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이 맺으신 약속을 지키신다는 확신 안에서만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이 진정되는 어려운 때에도 그분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가족은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아름다운 모범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아이티 포르토프랭스에서

온 올건 세인틀러스와 솔라인 세인틀러스 부부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지진이 아이티를 강타한 2010년 1월 12일, 올건은 직장에, 솔라인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 자녀인 다섯 살 된 간찌와 세 살 된 안지, 그리고 한 살배기 간슬리는 친구와 함께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대규모 참사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해 1월 아이티에서는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건과 솔라인은 아이들을 찾으려고 황급히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세인틀러스 가족이 살던 3층짜리 아파트 건물은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건물에서는 어떠한 구조 노력도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올건과 솔라인은 모두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고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이 부부는 구주를 믿었으며 구주께서 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슴이 미어졌고 울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올건은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뜻하셔서 만일 한 아이 만이라도 살아 있다면,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올건은 영감을 간구하며 건물 주위를 돌고 또 돌았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위로하며 아이들을 잃어버린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려 애썼습니다. 올건은 계속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를 하며 무너진 건물 잔해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희미하게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바로 올건의 아기가 내는 소리였습니다.

이웃들은 목숨을 걸고 여러 시간 동안 건물 잔해를 파헤쳤습니다. 어두운 밤이 되어서야 구조원들은 요란하게 울리는 망치 소리와 끌 소리 사이로 또 다른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일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컷가에 들리는 소리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 목소리였는데, 아이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섯 살인 간씨는 노래를 부르면 아빠가 들으실 것으로 생각했다고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뼈를 으스러뜨리는 콘크리트에 눌린 탓에 후에 팔을 잘라내어야만 했던 간씨는 그렇게 콘크리트에 눌린 채로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 “난 하나님의 자녀”²⁹를 불렀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 시간이 지나간 후, 아이티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딸들이 죽어가고 절망하는 속에서도 세인트루이스 가족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씨와 안지, 간슬리가 폭삭 무너진 건물 아래에서 무사히 발견된 것입니다.³⁰

물론 기적이 언제나 그처럼 즉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간절히 구했는데도 기적이 왜 당장 일어나지 않는지 의문을 느낄 때도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구주를 신뢰한다면, 약속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생이 되었던 혹은 다음 생이 되었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구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³¹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³²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른다면, 주님의 사랑과 인정을 느끼게 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친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서는 하지 못할 일을 주님은 은총을 베풀어, 여러분을 위해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친애하는 선지자께서 전하실 폐회사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제가 열두 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성임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간증을 듣는 축복을 48년 이상 누려 왔습니다. 저는 그분이 오늘날 구주의 선임 사도로서 지상에 계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교회 회원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신 많은 분께 깊은 사랑과 존경을 표하며, 우리 시대에 천사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겸허히 선언합니다. 하늘에서 부여하는 권능과 의식, 축복과 더불어 주께서 고대에 세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회복되었습니다. 물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구주임을 증거합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으며 사흘 만에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것입니다.³³ 그날이 오면 우리는 “남들이 나를 기독교인으로 생각할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우리의 눈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질문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André Petry, “Entre a Fé e a Urna”, *Vêja*, Nov. 2, 2011, 96 참조.
2. 마태복음 22:42.
3. 로마서 14:10.
4. 마태복음 6:2 참조.
5. 마태복음 23:17 참조.
6. 마태복음 7:23 참조.
7. 마태복음 13:38 참조.
8. 마태복음 5:14 참조.
9. 마태복음 15:14 참조.
10. 마태복음 13:22 참조.
11. 마태복음 5:8 참조.
12. 마태복음 5:6 참조.
13. 마태복음 17:17 참조.
14. 요한복음 8:23 참조.
15. 요한복음 6:70 참조.
16. 요한복음 13:35 참조.
17. 요한복음 15:13 참조.
18. 토마스 에스 몬슨, “거룩한 곳에 서십시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83, 86쪽.
19. 요한복음 17:3.
20. 요한복음 14:23.
21. 누가복음 18:22.
22. 요한복음 14:15.
23. 누가복음 9:23.
24. 마태복음 11:28.
25. 마가복음 9:23.
26. 마태복음 23:11.
27. 제이미 브린턴, 저자에게 보낸 편지, 2012년 1월 27일자.
28. 마가복음 5:36.
29. “난 하나님의 자녀”, *어린이 노래책*, 2~3쪽.
30. 2012년 2월 10일, 올건 세인트루이스와 솔라인 세인트루이스와 함께한 토론에서; 또한 Jennifer Samuels, “Family Reunited in Miami after Trauma in Haiti”, *Church News*, Jan. 30, 2010, 6 참조.
31. 요한복음 14:27.
32. 요한복음 16:33.
33. 로마서 14:11 참조.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대회를 마치며

오늘 들은 진리를 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진리가 이 대회를 시작하기 전보다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대회를 마치게 되니 가슴이 벅잡니다. 우리는 연사들의 권고와 간증을 들으면서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마음에 감동받고 간증이 강화되었다는 점에 여러분도 저와 동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대회의 각 모임에서 분위기를 고취하고 풍요롭게 해 준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했습니다. 음악으로 재능을 나눠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분들과 더불어 각 모임에서 기도를 해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 대회 때마다 무대 뒤나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도움이 없다면 이런 모임을 개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 모두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이 대회에서 해임되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주님의 사업에 이바지한 헌신은 너무나도 엄청나서, 다가올 세대들까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번 대회에서 새로운 직책에 부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손을 들어 지지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환영하며 주님의 대업에서 함께 봉사하기를 고대한다는 점을 그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분들은 높은 곳에서 오는 영감에 따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대회는 전례가 없을 만큼 대륙과 대양을 가로질러 모든 곳에 계신 분들에게 방송되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 중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많긴 하지만, 저희는

브리검 영 대학교-아이다호



여러분의 영과 헌신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신든 저희의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삶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복음은 인생의 가장 중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우리 삶에 의미와 목적과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불안정한 시대에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며, 축복하고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께서 권고하신 대로 기도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영을 네게 부어 주리니, 네 복이 크리라—그러하도다. 참으로 네가 땅의 보화[를] …… 얻는 경우보다도 많으리라.”¹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과 예의와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이에 불화와 다툼이 있다면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십시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논쟁이 너희 가운데 없게 하[라] ……”

이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분쟁의 아비인 악마에게 속한 자임이라,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노여움으로 다투게 하는도다.

[그러나] 보라, …… 이것은 나의 교리가 아니요, 그러한 일을 없이 하는 이것이 나의 교리이니라.”²

여러분의 낮은 중으로서, 저는 베냐민 왕이 백성에게 전한 말씀을 되풀이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명하여 …… 나 자신을 죽어야 하는 사람 이상으로 생각하게 하려 함이 아니니라.

오히려 나는 너희 자신과 같이 몸과 생각에 있어 온갖 약점을 지니기 쉬운 자이나, 그럼에도 나는 [주의 손]에 의해 택함을 받고, …… 비길 데 없는 그의 권능으로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주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온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너희를 섬겼느니라.”³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과 여러분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제 이 대회를 마치며 여러분 각자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진리를 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진리가 이 대회를 시작하던 이틀 전보다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6개월 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의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9:38.
2. 제3니파이 11:28~30; 강조 추가.
3. 모사이야서 2:10~11.



앤 엠 딘
본부 청녀 회장단 제2보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확신으로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해마다 1월이 되면, 저는 상호 향상 모임 주제가 새로 발표되기를 고대합니다. 물론, 항상 지난해 주제에 담긴 교훈을 완전히 숙달했는지 생각해 볼 시간도 갖습니다.

잠시, 최근 몇 년 간의 주제를 살펴봅시다.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¹, “군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항상 선한 행실이 가득하여”², “믿는 자에게 분이 되어”³, “강하고 담대하라”⁴, 그리고 신앙개조 제13조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민에게에의 선행을 믿는다.”⁵

일 년간 이런 성구를 공부하고 그것들에 초점을 맞추면, 그 말씀은 우리 마음과 영혼, 그리고 간증의 일부가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2012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에 주의를 기울여 그 가르침을 계속 따르기를 바랍니다.

교리와 성약 115편 머리말에 나오는 설명을 보면, 1838년에 조셉 스미스는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서 “그곳을 개발하여 주의 집을 건축하는 일에 관한 주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 선지자는 낙관적이고 용기 있게 임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바로 주님이 조셉에게 하신 말씀 중

5절에 있는 이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 모두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게 하라.”

여러분은 일어나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교회의 고귀한 청소년 여러분이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새벽 세미나리를 위해 부지런히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매일 충실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후 일어나는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담대히 일어나 간증을 나누고 표준을 지키는 여러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는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결의와 훌륭한 모범에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중 상당수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 권유를 이미 받아들였으며, 여러분이 발하는 빛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확신으로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경전에서, 현대의 선지자에게서, 그리고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에서 우리는 이런 계명을 배웁니다. 여러분은 각자 이 소책자를 한 부씩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소책자에, 훌륭한 친구에게서 배운 대로 여러분, 그리고 위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 단순한 행동으로 저는 그곳에 쓰여 있는 표준이 그저 일반적인 지침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소책자에서 그 단어들에 동그라미를 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그 표준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임을 증거하는 영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표준을 무시하거나 머릿속에서 내쫓아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책자를 보고서 “보세요, 엄마. 책에 [컴퓨터 게임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하는 행동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야. 나는 확실히 [다른 누구]만큼 나쁘지는 않아.”라고 자신을 정당화할 수도 있습니다.

해럴드 비리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여러분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입니다.”⁶ 베냐민 왕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모두 너희에게 일러 줄 수 없나니, 이는 다양한 길과 방법이 많이 있어 내가 이를 셀 수 없음이라.”⁷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표준과 계명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복음 안에서 버팀목을 찾으십시오. 경전을 읽으십시오. 교회 공식 웹사이트인 lds.org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십시오. 부모님, 교회 지도자, 그리고 복음대로 생활하면서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분들과 상의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터놓으십시오. 회개라는 은사를 매일 활용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순종하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우리 모두를 격려하셨습니다. “젊은 친구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 여러분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고



있으며, 아무리 그럴싸하게 위장해도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 잘못되었다고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는 것들을 소위 친구라는 사람들이 하도록 강요할 때, 비록 혼자일지언정, 여러분은 의를 수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두고 항상 변하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변치 않는 그분의 인도를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복음대로 생활하고 표준을 높게 세움으로써 다른 사람들 복음으로 인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경전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좋은 예가 많습니다. 구약전서 사사기에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은 위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⁹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더 이끌렸습니다. 그는 옳은 일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¹⁰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경전에서는 삼손의 행적, 행동과 선택이 언급될 때 “그가 내려가서”¹¹라는 구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삼손은 일어나 빛을 받하여 위대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대신, 세상에 굴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잃고 이른 나이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와 반면에 경전에는 다니엘과 같은 예도 있습니다. 다니엘 역시 위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에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¹²고 나옵니다. 세상적인 시련 앞에서 다니엘은 세상을 내려다보지 않고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이에게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세상의 칙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뒷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¹³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 위해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나 빛을 받았습니다. 그는 옳은 일을 수호한 대가로 사자 굴에서 힘든 하룻밤을 보냈지만, 순종했기에 보호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튿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 굴에서 꺼낸 후, 모든 사람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실함을 보여 준 다니엘의 모범을 따르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다니엘은 온 나라에 기가 되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표준을 절대 낮추지 않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빛을 받하고 그 빛이 또래들 사이에서 기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의 모범에 관해 듣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조애나는 자신의 고등학교에서 단 세 명뿐인 교회

회원 중 한 명이면서, 소속 와드에서도 유일한 청년이었습니다. 조애나는 절대 나쁜 말을 쓰지 않겠다고 주님과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다짐을 해 본 적이 없는 다른 남학생과 한 조가 되어 과제를 해야 했을 때에도 조애나는 표준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조애나는 그 남학생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존중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차례 상냥하게, 또 몇 번은 다소 강한 어조로 일깨워 주자 그 친구는 새로운 습관이 생겨 더 순화한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학생의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아들의 삶에 훌륭한 영향을 미친 조애나에게 고마워한, 그 남학생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¹⁴

최근에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저는 카렌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월계반 시절에 호텔경영학 학사 학위를 따려고 공부하며 겪은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한 수업에서는 모든 학생이 식당에서 파는 다양한 음료를 맛보고 만드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중 일부에는 알코올이 들어 있었는데, 카렌은 그런 음료를 맛본다면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카렌은 일어나 빛을 발할 용기로써, 그런 음료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카렌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왜 마시지 않느냐고 물으셨어요. ‘카렌 양, 음료를 맛보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그 맛을 알며 이 중요한 과목을 통과할 텐가?’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며 우리 회원들은 해로운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든 간에, 설사 낙제 점수를 주신다고 해도 이해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 표준대로 살아가는 일만큼은 낙제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 주가 지났지만, 그날 있었던 일에 관해서는 어떠한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학기 말이 되자 카렌은 최종 성적에 그런

음료를 거절한 일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망설이다 성적표를 열어 보았을 때, 카렌은 자신이 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하나님은 ……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분명히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낙제 점수를 받았더라도 제가 한 일을 후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옳다고 아는 대로 선택한다면, 주님이 보시기에 저는 절대로 실패를 겪지 않을 거예요.”¹⁵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각자 위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알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시며,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을 지지하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그분의 권유와 약속을

받아들일 용기를 얻도록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21:45.
2. 모사이야서 5:15.
3. 디모테전서 4:12.
4. 여호수아 1:9.
5. 신앙개조 제13조.
6.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2000), 30쪽
7. 모사이야서 4:29.
8. 토마스 에스 몬슨, “의로움의 모범”,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65쪽.
9. 사사기 13:5.
10. 사사기 14:3.
11. 사사기 14:7.
12. 다니엘 6:3.
13. 다니엘 6:10.
14. 이 이야기의 일부 내용은 Joanna Ehrisman, “The Thing about Being Mormon,” in Katilin Medlin and others, eds., *Going on 15: Memoirs of Freshmen*(2010), 86~96 참조.
15. 2012년에 앤 엠 답이 개인적으로 받은 편지.





메리 앤 쿡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학문을 구하라: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많이 배워서 미래에 얻게 될 자신의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친애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커다란
도전과 훌륭한 기회가 공존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용감하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
살면서 '나의 미래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
하고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저는 정결한
하나님의 딸인 여러분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장담합니다. 여러분은 복음 진리가 회복된
시대에 살고 있으며, 경전 속에서 그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침례 받을 때
성신의 은사를 받았으며, 성신은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인생의 어려움에 맞서도록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도덕적 선택의지와
지상에서 배움을 쌓을 기회를 받았으며,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맡기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각자 배움을 추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여는 열쇠, 여러분의 "밝은
희망의 빛"은 새로 발견된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의 교육 표준 부분과 청년
가치관 중 지식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 기회로 …… 이끌어

줄 것입니다."²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³는 주님의 권고를 따를 때
여러분은 연구를 통해 지식만 얻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배우며 더 많은 빛을 얻을
것입니다.

부지런히 연구하여 학문을 구하십시오.
지금처럼 배우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때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교회 청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권고를 주셨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는 동안 형성하는 공부
습관은, 넓게 보면, 여러분이 평생 지식을
추구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⁴
"여러분은 가능한 한 모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이] 세상의 일을 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희생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 살아가는 동안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머리와 손을
훈련하십시오."⁵

토마스 에스 몬스 회장님은 특히
청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종종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확실성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저는 여러분이 교육을 추구하고 유용한
기술을 배워서 그런 상황에 대비하여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⁶

청녀 여러분, 이 현명하고 영감 받은
선지자들의 권고를 따르십시오. 좋은 학생이
되십시오. 학교에서 부지런함과 정직함과
고결함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성적 때문에 힘겨워하거나 낙담해 있다면
부모님과 교사,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
회원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배우고 싶은 것을 목록으로 만들고,
"가족과 친구들과 지도자들에게 교육에 관한
여러분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격려와 도움을
받으십시오."⁷ 이것은 개인 발전 프로그램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기술 발달로 여러분은 정보가 폭발하는
듯한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소리와 영상과 네트워킹의 홍수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잘 선별하십시오.
이 지식의 파도 때문에 산만해지거나
더디게 발전하지 마십시오. 청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목표를 정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결정하는 이도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배움 중
일부는 교실 밖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사, 미술, 음악, 가족 역사, 운동 경기,
글쓰기나 말하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모범적인 여성들을 곁에 두십시오. 그들과
친해지고 가르침을 청하십시오.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웠을 때에는 상호 향상 모임에서
그것을 가르쳐 보거나 다른 청년에게 알려
주십시오. 이것은 영광의 꿀벌 펜던트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훌륭한 어머니 외에도 삶의
스승이 되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겨우 아홉 살 때 멘토링(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상담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면서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것.-윌킨이) 과정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십자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 복음의 빛을 밝히겠다.'라는 문구를 수놓은 그 작품은 십 대 시절 제 방에 걸려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가르치고 바로 잡아 주셨으며 그 과정에서 늘 용기를 주셨습니다. 다른 스승도 있었습니다. 와드에서 재봉에 능숙한 두 자매님은 저에게 양재를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분들의 가르침과 인내와 격려 덕분에 저는 열네 살 때 드레스를 만들어 대회에 출품했고 상도 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다른 분야의 지식과 능력에 대한 열망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지식을 얻으면 여러분이 어머니가 되었을 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자녀가] 교육에 관한 선택을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⁸ 어머니의 교육은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열쇠"⁹가 되는데, 이는 교육을 받은 여성은 "..... 더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고, 자녀가 더 건강하며, 더 자신감 있고, 쾌활하고, 추리력과 판단력이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¹⁰

우리는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서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¹¹임을 배웁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그러한 양육의 한 부분이며, 여러분이 받은 성스러운 책임입니다. "가르침을 그들의 어머니에게서 받았[던]"¹²힐라맨의 용사들처럼 여러분은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교사가 될 것이므로, 배우는 것을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지금 최대한 많이 배워서 미래에 얻게 될 자신의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십시오. 기도와 경전 연구와 순종을 통해 부지런히 영적 지식을 얻고 모든 진리를 증거하는 성신의 인도를 구하면, 우리는 신앙으로 배우게 됩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한다면 성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줄 것입니다. 합당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 성신은 가르침을 주고 여러분의 배움에 빛을 더해 줄 것입니다.

청녀 시절에 저는 스키를 빌려 신고 친구에게 스키 타는 법을 배웠는데, 스키가 너무 길고 부츠도 너무 쫄았습니다. 아름다운 봄날에 햇살이 밝게 빛났고, 눈은 완벽한 상태였으며,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습니다. 스키를 배우면서 가파른 경사면에 대한 불안은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긴 스키를 신고 여러 번 넘어지기도 했지만, 저는 계속 일어나서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스키 타는 것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스키를 타는 날의 기상 조건이 언제나 그날처럼 이상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흐린 날 스키를 타면 '평면광'이 나타났습니다. 평면광은 햇빛이 구름 때문에 산란될 때 생깁니다. 그럴 때 흰 눈을 보면 깊이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 경사면의 기울기나 언덕 굴곡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청녀 여러분, 여러분이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제가 가파른 스키 슬로프를 바라보던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때로 여러분은 평면광을 받아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신앙으로 배울 때 여러분은 자신감을 얻고 불확실한 시대에서도 나아갈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 영적인 준비는 필수적인 것이며, 그 준비는 개인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은 열 처녀가 모두 신랑을 맞아 결혼잔치에 가도록 초대받았지만, 오직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등잔에 기름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라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¹³

기름을 나눠 주지 않은 다섯 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기적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기름을 나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영적인 준비는 한 방울, 한 방울씩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기도와 경전 공부와 순종을 통해 한 방울씩 영적 지식을 늘리는 데 부지런히 전념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한 방울씩 교육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정결한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등잔에 기름을 더함으로써 여러분은 우리의

성스러운 교사인 성신의 인도를 받기에 합당해집니다.

성신은 여러분이 이곳 지상에서 필멸의 삶을 사는 동안, 그리고 여러분이 평면광을 받는 것처럼 느껴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을 때에도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성신은 여러분의 결정과 배움을 인도할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기에 여러분에게 간증드릴 수 있는 것은, 연구뿐 아니라 신앙으로 학문을 구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기를 바라시는 일과 여러분이 알아야 할 일”¹⁴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청녀 시절에 저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좋은 교육을 받아 준비하고, 가사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덕성을 일찍부터 배우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이루는 축복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서른일곱 살이 되어서야 실현되었고 저는 마침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별한 상태였던 남편과 제가 성전에서 인봉받은 날, 저는 갑자기 남편과 함께 네 자녀를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러기 오래 전부터 저는 평면광을 받으며 스키를 타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았고 ‘나의 미래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축복사의 축복에 나오는 권고를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부지런히 공부했고 초등학교 교장이 될 때까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리고 성신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저는 제가 “참되고 충실하며, [저의] 성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충실한 자녀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 중 어느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¹⁵이라는

선지자들의 약속을 열렬히 믿었습니다.

저는 교육을 통해 청녀 시절에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준비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제가 교육학을 공부한 것이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미래의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을 뿐, 남편과 함께 몽골에서 선교 사업을 하며 영어를 가르치고, 전 세계 교회 청녀들을 가르치고, 손자 손녀에게 지식의 가치를 가르치도록 주께서 저를 준비시키신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깊이 신뢰하시며, 그분께는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배움을 추구한다면 그 위대한 일을 위해 준비될 것임을 알기 바랍니다. 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 고든 비 힙클리, “손을 내밀어 들어올립시다”,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67쪽.
- 청소녀의 힘을 위하여(책자, 2011), 9쪽.
- 교리와 성약 88:118.
- Gordon B. Hinckley, *Way to Be! Nine Ways to Be Happy and Make Something of Your Life*(2002), 28.
- Gordon B. Hinckley, “Seek Learning,” *New Era*, Sept. 2007, 2, 4.
- 토마스 에스 몬슨,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116쪽.
- 청소녀의 힘을 위하여, 9쪽.
- Cheryl Hanewicz and Susan R. Madsen, “The Influence of a Mother on a Daughter’s College Decision,” *Utah Women and Education Project Research Snapshots*, no. 3(Jan. 2011): 1.
- Marjorie Cortez, “Mom’s Education Key to Halt Poverty Cycle,” *Deseret News*, Sept. 23, 2011, A1.
- Olene Walker, “More Utah Women Need to Finish College,” *Salt Lake Tribune*, Oct. 30, 2011, O4.
-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 엘마서 56:47.
- 마태복음 25:8~10.
- Henry B. Eyring, “Education for Real Life,” *Ensign*, Oct. 2002, 18.
- M. Russell Ballard, “Preparing for the Future,” *Ensign*, Sept. 2011, 27.



일레인 에스 돌튼
본부 청년 회장

지금은 일어나 빛을 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여러분은 인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제 청년 사무실에서 내다보면 유리창 너머로 솔트레이크 성전의 멋진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성전 꼭대기에 있는 천사 모로나이가 자신뿐 아니라 우리 신앙의 빛나는 상징으로 서 있는 것을 매일 봅니다. 저는 매우 사악한 사회에서도 순수하고 진실했던 모로나이를 좋아합니다. 그는 제 영웅입니다. 모로나이는 홀로 섰습니다. 저는 모로나이가 오늘날 성전 꼭대기에 서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¹고 우리에게 손짓하는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라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며,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해지고, 일어나 세상의 함성을 뒤로하며, 이사야의 예언대로 “오라 …… 여호와의 산, 즉 거룩한 성전으로!”² 오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은 주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딸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와 의를 수호하는 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여성과 청년보다 더 영향력 있는 집단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서 고결성을 느끼며, 여러분의 신성한 정체성과 운명을 압니다. 여러분은 전세에서 영광을 받았으며, 여러분의 혈통에는 성약과 약속이 따릅니다. 여러분은 충실한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영적인 성품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오늘 밤 여기 모인 여러분을 미래를 위한, “밝게 빛나는 한 줄기 희망”³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여러분의 빛은 밝게 빛납니다. 참으로 이 시기는 “절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⁴ 바로 여러분의 날이며, 지금은 전 세계의 청년가 “일어나 빛을 발하[며,] 그리하여 [여러분의] 빛이 얼굴을 위한 기가 되[어야]”⁵ 할 때입니다.

“표준이란 정확성이나 완전함을 판단하는 척도입니다.”⁶ 우리는 온 세상이 볼 수 있는, 거룩함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개정된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책자에는 정확하게 어떤 표준을 따라야 하는지와, 그것을 따를 때 어떤 약속된 축복이 이루어지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중요한 책자에 담긴 말은 세상을 위한 표준으로서, 그 표준대로 살 때 여러분은 더욱 구주를 닮게 되고, 더없이 사악해지는 세상에서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 책자의 표준대로 살 때 여러분은 성신과 항상 함께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미래의 성공과 행복의 대부분을 결정지를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성신의 동반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표준대로 살면,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되고,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킬 때 받을 수 있는 축복과 권능을 성전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⁷

어릴 적, 제 딸 에이미는 교회에 갈 준비를 하는 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에이미는 머리를 빗고 옷을 입고는 ‘반짝이’라는 것을 발라 달라고 했습니다. ‘반짝이’는 제가 주름 방지용으로 바르던 뽀뽀하고 끈적이는 크림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볼과 입술에 크림을 발라주면 에이미는 웃으며 “이제 준비 끝났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미는 이미 자신의 얼굴에 ‘반짝이’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은 참으로 순수하고 순진하고 선했기에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영이 함께한다는 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오늘 밤 여기 모인 모든 청년가 여러분의 아름다움, 즉 ‘반짝이’가 화장품이나 크림 혹은 최신 유행 옷이나 머리 모양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자신의 순결함에서 나옵니다. 표준대로 살고 성신과 항상 함께할 자격을 갖춘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범, 심지어 여러분의 눈에서 발하는 빛마저도 여러분의 ‘반짝이’를 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들은 여러분을 닮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이 빛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바로 그 빛이시며, “영은 세상 어느 곳에서나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눈과 용모는 신성한 빛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짝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제 주름은 ‘반짝이 크림’으로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외침은 여러분 각자가 이 세상을 위대한 대업으로

이끌고, 즉 표준을 세우고,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도록 이 세대를 정결하고 순수하게 이끌라는 요청입니다.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저는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이 그 시대 여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되뇌려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젊은] 여성들에게 인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 여러분은 사람의 자녀를 …… 깨끗하게 하는 모든 일에서 …… 세상의 [젊은] 여성들을 인도해야 합니다.”⁹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참됩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여러분은 인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인도하는 능력을 갖추려면, 성신의 인도와 속삭임, 즉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¹⁰ 알려 주는 성신의 인도와 끊임없는 동반이 필요합니다. 성신은 기록하지 않은 성전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습관과 마음가짐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바뀌어 할 점, 즉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경에서 라모나이 왕의 부친이 “당신을 알기 위하여 …… 나의 모든 죄를 버리겠나이다”¹¹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하려 합니까?

애리조나 주 퀸크릭에 사는 한 무리의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의 표준대로 지역 사회 청소년들을 이끌고 “일어나 빛을 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인생에서 바꾸고 싶은 것을 일지에 적은 후, 실제로 구멍이를 찢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일지에 적은 것을 찢고 물론경에 나오는 암문 백성이 전쟁 무기를 땅속에 묻은 것처럼 그 종이를 구멍이에 던졌습니다.¹² 그 청소년들은 구멍이를 덮은 후, 각자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했으며 일어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바꾸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주의 한량없는 속죄 희생 덕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변화하고, 다시 순결하고 깨끗해지며, 그분처럼 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죄와 잘못을 더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¹³

때때로 계속 빛을 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빛의 근원인 구주의 모습을 흐리게 하는 많은 시련에 부딪힙니다. 때로는 길이 험난하고 짙은 안개가 빛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플로렌스 채드윅이라는 젊은 여성도 그랬습니다. 열 살 때부터 플로렌스는 자신이 수영에 재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플로렌스는 영국 해협을 13시간 20분 만에 횡단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도전을 좋아하는 플로렌스는 나중에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카탈리나 섬까지 약 34킬로미터를 수영해서 건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5시간쯤 수영하자 점점 지쳐 갔고 짙은 안개가 껴 해안이 잘 안 보였습니다. 플로렌스는 옆에서 배를 타고 있는 어머니에게 완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코치는 계속하도록 격려했으나 플로렌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안개뿐이었습니다. 수영을 포기하고 배에 오르자마자 플로렌스는 해안까지 고작 1.6킬로미터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인터뷰에서 왜 포기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플로렌스는 물이 차갑거나 목적지가 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안개 때문에 패배했다.”¹⁴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다시 도전했는데, 그때도 짙은 안개가 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계속 수영해서 무사히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성공했는지 묻자 플로렌스는 짙은 안개속에서 오랜 시간 수영하며 계속 해안을 머릿속으로 그렸다고 말했습니다.¹⁵

플로렌스 채드윅의 목표는 해안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목표는 성전입니다. 청년 여러분, 성전에 집중하십시오. 목표를 놓치지 마십시오. 도덕적 오염이라는 짙은 안개와 주의를 흐뜨리는 세상의 목소리 때문에 여러분의





과업, 즉 목표를 달성하고, 표준대로 살며, 성신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거룩한 성전에 가는 일을 방해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머릿속에 항상 구주의 거룩한 집인 성전을 그리십시오.

몇 주 전, 저는 네바다 리노 성전의 해의 왕국실에 있었습니다. 방에 비치는 빛은 찬란했으며, 크리스털 샹들리에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보였습니다. 샹들리에는 여러 방향으로 깎인 단면에 비친 빛을 반사하여 사방으로 무지갯빛 광채를 비추었습니다. 구주께서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¹⁶이시며 그분의 빛이야말로 우리가 들어 올리고 반사해야 하는 빛이라는 것을 깨닫자 온 몸이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조그만 크리스털이기에, 깨끗해야 하고, 세상의 티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날 성전에 서 있으면서 다시금 제 머릿속에는 모로니아가 시온의 딸인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깨어나 티끌에서 일어나라”¹⁷ “악한 은사나 부정한 것은 손대지 말라.”¹⁸ “깨어나 …… 일어나라. 또한 시온의 딸아, 네 아름다운 옷을 입으며 …… 이스라엘의 집이여, 네게

맺으신 영원하신 아버지의 성약이 성취되게 하라.”¹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전 축복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전을 목표로 삼을 때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은 시공을 초월할 것이며, 여러분이 조상을 위해 행하는 일은 예언을 성취할 것입니다!

지난 연차 대회 때 저는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성전 사업과 자신의 가족 역사 사업을 열심히 하라고 권유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²⁰ 베드나 장로님이 권유하실 때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후일의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놓는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때가 찬 시대에 나아오도록 간직해 두셨던 다른 훌륭한 영들”이란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후일의 위대한 사업에는 성전 건축과 죽은 자의 구속을 위하여 그 곳에서 의식을 집행함이 포함”²¹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여러분의 날이며, 여러분의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해져서 추천서를 받을 때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여러분은 시온 산의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²²

러셀 엠 넬슨 장로님은 여러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청년들의 영향력은 마치 잠자는 거인처럼, 의를 행하는 강한 힘으로 땅의 주민을 깨우고 일으키며 복돋아 줄 것입니다.”²³청녀 여러분, 일어나 여러분의 미래와 세상의 미래를 바꿀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십시오. 지금이 그때입니다!

“높은 산 언덕 위 깃발은 날린다. 온 땅 위에 덮이니 만백성 보네”²⁴ 청녀 여러분, 여러분이 그 깃발입니다! 순수함과 정결을 유지하고, 성신의 동반을 구하며, 여러분의 죄와 범법을 땅 속에 묻고, 집중하며, 도덕적 오염이라는 안개가 목표를 가리지 않게 하고, 지금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해지십시오. 여러분의 ‘반짝이’를 보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밝혀 주실 것임을 온 마음을 다해 간증합니다. 또한

모로나이처럼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기를]”²⁵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15:5.
2. 이사야 2:3; 니파이후서 12:3.
3. Gordon B. Hinckley, “Standing Strong and Immovable,”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Jan. 10, 2004, 20.
4. Oliver Cowdery, 조셉 스미스-역사 1:71, note.
5. 교리와 성약 115:5.
6. 에즈라 테프트 벤슨,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하고,” *성도의 빛*, 1991년 8월호, 4쪽.
7. 교리와 성약 109:22 참조.
8. 교리와 성약 84:46.
9.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1998), 184쪽.
10. 니파이후서 32:5
11. 엘마서 22:18, 기울입체 추가.
12. 엘마서 24:17 참조.
13. 교리와 성약 58:42 참조.
14. Sterling W. Sill, Conference Report, Apr. 1955, 117 참조.
15. Randy Alcom, “Florence Chadwick and the Fog”, <http://www.epm.org/resources/2010/Jan/21/florence-chadwick-and-fog/> 참조. 또한 “Florence Chadwick,” in *Encyclopedia of World Biography*, vol. 19(2004): 64-66; “Navigation Information” and “Swim Successes,” Catalina Channel Swimming Federation, swimcatalina.com, accessed Mar. 27, 2012 참조. 플로렌스 채드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다.
16. 제3니파이 9:18.
17. 모로나이서 10:31.
18. 모로나이서 10:30.
19. 모로나이서 10:31.
20.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자녀들의 마음은 돌이[켜질 것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24~27쪽 참조.
21. 교리와 성약 138:53~54.
22. 오바다 1:21; 교리와 성약 103:9;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72~473쪽 참조.
23. Russell M. Nelson, “Daughters of Zion,” *New Era Young Women Special Issue*, YW Nov. 1985, 9.
24. “높은 산 언덕 위”, *찬송가*, 2장.
25. 교리와 성약 115:5.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믿고, 순종하며, 견디십시오

복음 진리에 굳건하고 충실하게 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믿으십시오.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사 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책임 앞에서 마음이 견고해집니다. 그 책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성한 도움이 함께하길 간구합니다.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은 아직 이 필멸의 여정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늘 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영원한 복지에 큰 관심이 있는 분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지상 생활이 여러분의 발전에 꼭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신뢰를 표하는 가운데 작별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몸을 얻어 필멸의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면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상에서는 여러분을 기쁘게 맞이할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첫 몇 해는 소중하면서도 특별했습니다. 사탄에게는 여러분을 유혹할 힘이 없었는데, 여러분이 아직 책임질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은 곧 ‘혹독한 청소년기’라고도 불리는 나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멋진 청소년기’라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이 시기는 참으로 기회의

시간이자 성장의 시절이며, 지식 습득과 진리 추구로 대변되는 발전의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청소년기가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종 불안정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며, 또래 사이에서 들어갈 자리를 찾으려 애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은 더욱더 독립적으로 되는 시기이며, 어쩌면 부모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자유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으려 갈망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온 곳, 즉 다시 돌아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할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는 길에서 여러분을 끌어내리려고 사탄이 전력을 다해 유혹하는 가장 중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주변 세상은 종종 이렇게 험난한 여정을 헤쳐 나가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안전한 정박지에서 벗어나고, 평안의 항구를 떠나 표류하고 있습니다.

자유방임, 부도덕, 외설물, 마약, 또래 압력, 또 그보다 더 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의 바다에 던져졌으며, 잃어버린 기회, 상실한 축복, 산산조각이 난 꿈과 같은 뾰족한 압초에 부딪혀 침몰하고 있습니다.

안전으로 향하는 길이 있을까요?



위협적인 파괴를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등대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전에 언급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안개가 자욱하다 해도, 밤이 어둡고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며 선원이 길을 잃는다
 해도 주님의 등대가 구조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등대는
 인생에 몰아치는 폭풍우 사이에서 빛을
 발합니다. 또한, 이렇게 외칩니다. **“이곳이
 안전한 길입니다. 이곳이 본향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등대는 그 누구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빛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따른다면, 여러분은 하늘 본향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승리하여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이 그분께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님의 등대에서 보내는 세 가지
 핵심 신호인 믿으라, 순종하라, 견디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핵심 신호인 믿으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고,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영생을 얻겠다는 영광스러운
 목적으로 자신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복음 진리에 굳건하고
 충실하게 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믿으십시오.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젊은 친구 여러분, 매주 암송하는 청년
 주제가 나오는 말을 믿으십시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청년 주제가 명시된
 가치관에 따라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거기에
 쓰여 있듯이,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면, 가정과 가족을 강화하게
 되고,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며, 성전
 의식을 받고, 마침내는 승영의 축복을
 누리도록 준비될 것입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복음 진리가 있습니다. 이대로 따른다면,
 여러분은 이생과 다음 생에서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복음 진리를 배웠습니다. 부모님은
 사랑으로, 교사들은 보살핌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분들이 가르쳐 주신 진리
 덕에 여러분은 간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배운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기도로 인도를 구하며 매주 교회
 모임에 참석하면 간증은 영적 양분을 받아

계속 자라나겠지만, 계속 간증이 살아 있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사탄은
 간증을 없애려고 모든 능력을 동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걸쳐 간증에
 영양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환하게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간증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계속
 양분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사그라져서
 잉겔불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차갑게 식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요일 모임과 주중 저녁 활동 외에도
 세미나리에 참석할 수 있다면, 그것이 새벽
 세미나리든, 휴식반 세미나리든 간에 그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세미나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세미나리에서
 여러분이 얻는 것은 모두 다 여러분의
 태도와 배우려는 열의에 달려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 배우려는 태도를 보이십시오.
 저는 청소년 때 새벽 세미나리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에 얼마나 감사하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미나리는 제가 발전하고 간증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미나리는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인생에서 커다란 성공을
 이룬 훌륭한 분과 함께 어떤 이사회에

소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교회에 진실하고 충실한 것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세미나리 덕에 간증을 얻고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당시, 그분은 평생 교회 회원으로 살아온 자매를 아내로 맞았습니다만, 정작 본인은 어떤 교회에도 속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도, 그리고 아내가 그토록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참석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후에 그분은 두 딸아이를 새벽반 세미나리에 차로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수업 동안에 차에서 기다리다가 세미나리가 끝나면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루는 비가 내렸는데, 딸아이가 “아빠 들어오세요. 여기 복도에 앉으셔도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교실 문이 열려 있어서 수업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음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학기가 끝날 때까지 그분은 딸들과 함께 세미나리에 참석했고, 결국 회원이 되어 남은 생애를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으로 지냈습니다. 세미나리로 신앙을 키우고 강화하십시오.

간증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다른 관심사를 쫓느라 간증에 무관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강한 간증을 유지하실 것을 간청합니다. 불꽃이 밝게 빛을 발하는 것은 여러분이 맡은, 여러분이 혼자서 해내야 하는 책임입니다. 노력이 필요하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줄리 드 아제베두 행크스가 작사한 노래 가사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간증에 대해 말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와
고통이 구름처럼 에워싸도
생명 바쳐 그것을 지키리
은기와 빛이 필요하여라*

*폭풍우가 휘몰아쳐도
쏟아지는 비에 굳건히 맞서네
나는 계속 남아
불꽃을 지키려네.¹*

여러분이 믿기를, 그리고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계속 간증이 불꽃처럼 밝게 타오르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청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십시오. 부모님과 율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에 순종한다면 삶은 더 진취적이고 덜 복잡해질 것입니다. 어려움과 문제를 더 쉽게 감당해낼 것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주는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니, 기꺼이 하고자 하며 순종하는 자는 이 마지막 날에 시온의 땅의 좋은 것을 먹으리라.”²

인생은 딱 한 번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문제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은 유혹을 받게 될 것인데, 때로는 친구라 생각한 사람에게서도 유혹은 올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저와 대화를 나눈 어느 장미반 고문은 자신의 반원인 한 청년과 관련해서 겪은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진리의 길을 떠나 죄의 우회로를 걷도록 계속 유혹을 받았습니다. 몇몇 학교 친구들이 끊임없이 설득하는 바람에 그 청년은 끝내 그 우회로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에게는 밤에 청년 활동 모임을 간다고 말하기로 작전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계획대로 친구들과 데이트 상대들이 자신을 데리러 올 때까지만 활동 모임 장소에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후 파티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자신이 옳다고 아는 것을 완전히 어기는 일을 하려 했습니다.

그 고문은 자신이 맡은 모든 청년을 위해

영감을 받고자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특히 복음에 대한 결의가 확고하지 않은 듯 보이는 그 청년을 위해서 더더욱 기도했습니다. 그 교사는 그날 밤 미리 준비한 내용이 아닌, 청년들에게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교사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동안 그 청년은 친구들과 계획한 약속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시계를 자주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토론이 계속 진행되면서 청년은 감화되었고, 양심이 깨어나 결심을 새로이 하게 되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어 청년을 부르는 자동차 경적이 반복해서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무시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교사와 그리고 다른 청년들과 함께 계속 반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길에서 벗어나려는 유혹을 피했습니다. 사탄은 좌절했습니다. 그 청년은 다른 청년들이 모두 교실에서 나갈 때까지 남아 있다가 교사에게 가서 공과에 관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으며, 그 공과 덕분에 끔찍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었던 일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교사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나중에 저는 그날 밤 그 청년이 학교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여학생과 남학생이 섞인 그 무리와 함께하지 않기로 한 것 때문에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몇 달 동안 친구 없이 지내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그 청년이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청년은 매우 힘들고도 외로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굳건하게 남았고, 결국은 같은 표준을 따르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성전에서 결혼하여 아름다운 네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결정은 우리의 운명을 정합니다.



미니애폴리스, 미네소타 주, 미국

소중한 청년 여러분,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것이 이 질문에 맞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 결정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나에게 무엇을 안겨 줄까?'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 규범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닌 '나는 나에게 어떻게 생각할까'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따르십시오. 확인을 받을 때, 권세를 지닌 분이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신을 받으라."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리에 대해 간증하는 그 특별한 음성이 전하는 소리에 마음을, 더 나아가 여러분의 영혼을 여십시오. 선지자 이사야가 약속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³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자유방임주의가 주류를 차지합니다. 잡지와 텔레비전을 보면 많은 젊은이가 그렇게도 닳고 싶어하는 체육계 영웅이나 영화 속 스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공개적으로 악의적인 행동을 하고서도 어떤 나쁜 결과도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이를 정산하는 시기, 즉 회계장부를 마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어떤 신데렐라에게도 자정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면 다음 세상에서라도 말입니다. 심판의

날은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취한 것에 만족하십니까?

이 여정에서 실수한 분이 있다면, 약속하건대 돌아올 길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회개라고 부릅니다. 구주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그 축복된 은사를 주시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설사 과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진실합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⁴ "내가 다시는 그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⁵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선택의지라는 소중한 은사가 있습니다. 간절히 부탁하건대,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견디기* 바랍니다. 견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는 *용감하게 이겨 내는 것*이라는 정의가 마음에 듭니다. 믿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에도 자주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필멸의 삶을 떠날 때까지 견디려면 단연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걱정스러운 문제가 많습니다. 인생에서 부닥치는 여러 난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권했던 구체적인 제안을 여러분에게도 전합니다. 한 번에 하루씩 하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삶을 크게 보면 힘들지만 하나씩 처리하면 쉽습니다. 단 하루를 진실하게 살 수 있고, 그런 후 하루 더, 또 하루 더, 그렇게 하면 결국 온 생애 동안 우리는 영으로 인도를 받고 구주와 가까이 지내며 선과 의를 행하는 삶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니, 이는 끝까지 견디는 그에게 내가 영생을 주겠음이라."⁶

젊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목적에 따라 이 필멸의 삶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성취하려는 목적, 즉 하나님 아버지 왕국에서 얻게 되는 영생이라는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기에, 이런 목적으로, 이 지상에 보내진 하나님 아버지의 매우 소중한 딸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시기를 위해 예비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며, 견디기만 한다면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것들이 여러분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Julie de Azevedo Hanks, "Keeper of the Flame," *Treasure the Truth*(compact disc, 1997).
2. 교리와 성약 64:34.
3. 이사야 30:21.
4. 이사야 1:18.
5. 예레미야 31:34.
6. 제3니파이 15:9.

대회 말씀을 삶에 적용합시다

다음 활동과 질문을 활용하여 가족 토론을 시작하거나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하여 연차 대회에서 전한 가르침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아 래에 나와 있는 쪽수는 각 말씀이 수록된 첫 쪽을 나타냅니다.

어린이

- 디이터 에프 우흐트로드프 회장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려는 마음이 들 때 기억했으면 하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70쪽) 그 두 단어가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회장님께서 우리가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행동 몇 가지를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좀 더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 러셀 엠 넬슨 장로님은 우리 몸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77쪽) 그리고 로널드 에이 레스번드 장로님은 우리 몸이 불완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80쪽) 몸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나요? 자신의 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이런 은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기 위해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

- 일요일 오전 모임에서 선지자께서 언급하신 다음 3가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까?(90쪽)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생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분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읽어보고 이러한 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 진리를 나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 어떤 사람들은 후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이 하신 “희생”이라는 말씀을 읽고 다음 말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우리 이웃을 섬기겠다는 결심은 봉사하고 희생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가장 적절하게 표현됩니다.”(19쪽)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구주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 쿠엔틴 엘 쿡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신앙의 말씀에 귀를 막는다면 그 사람은 영의 속삭임을 절대



듣지 못[합니다].” 조율이 안된 악기가 어떤 소리를 낼지 생각해 보고 악기가 그러한 불협화음을 내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말씀에 귀를 막”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 이번 대회에서 몇 명의 연사가 일부만 회원인 가족, 한부모 가족, 여러 역경에 시달리는 가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연사들은 자신들의 가족들로부터 무엇을 배웠으며 고마워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 무엇을 사랑하며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 어떻게 기여하며 고양시킬 수 있을까요?

성인

-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부모로서 깨닫게 되는 위대한 발견 중 하나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니라 자녀에게서 더 많이 배우게 된다는 점입니다.”(6쪽)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들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부모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아는 어린이들로부터 배운 교훈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 친구, 자녀,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같은 교훈과 어떤 상황에서 그 교훈을 배웠는지에 대해 나누십시오.
- 엘 톱 페리 장로님은 우리가 경전의 가르침을 따를 때 악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94쪽) 경전의 가르침은 여러분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어떻게 도왔습니까?
- 말씀 중 일부는 성약, 특히 성전 성약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의 다음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 속에 비친 자신과 이야기하며 이렇게 물어봅시다. “성약에 따라 사는 나의 현 위치는 어디인가?”(34쪽)



여러분의 대답과 어떻게 하면 더 성약대로 살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성약을 맺고, 성약대로 살도록 권유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31쪽), 닐 엘 앤더슨 장로님(111쪽) 그리고 다른 연사들은 제자됨과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제자됨의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구주께 계속 나아오는 것에 관한 이 말씀 그리고 다른 말씀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임무는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86쪽)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의 말씀과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님의 말씀(13쪽)을 다시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부름, 속해 있는 단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가르칠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

연차 대회에서 인용된 경전

연 차 대회에서 연사들은 경전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자주 언급된 경전 구절을 공부하십시오.

- 요한복음 13:35
- 니파이후서 2:11
- 교리와 성약 18:10*; 68:25~28*; 88:118; 115:5; 121:37
- 모세서 1:39*

*세미나리 성구 익히기 구절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일화 색인

다음은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일화를 선별한 목록입니다. 이 내용은 개인 학습과 가정의 밤, 그리고 그 밖에 복음을 가르치는 여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각 말씀이 실린 첫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연사	일화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6) 슬픔에 잠긴 부모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 선교사 (6) 아버지가 교회에서 저활동 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부모에 의해 양육된 보이드 케이 패커
첼렐 에이 에스플린	(10) 남동생이 친절해지도록 기도한 첼렐 에이 에스플린의 손녀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	(13) 호놀룰루 태버내클에서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을 말씀을 들은 어린 도널드 엘 홀스트롬
폴 이 컬리커 장로	(16) 거절당한 선교사들이 서로를 격려했고 이 광경에 감동 받은 한 남성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19) 한 신회원에게 복음을 위해 그토록 기꺼이 희생하겠다고 물어본 고든 비 힝클리 회장 (19) 한 브라질 선교사의 16세 된 남동생이 가족을 부양하기로 함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48) 신권 소유자들이 왜 가정 복음 교육을 하지 않는지 물어본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의 아버지
리차드 시 에즐리 감독	(52) 스테이크 회장단에서 봉사할 때 한 저활동 자매에게 스테이크 선교사 부름을 준 리차드 시 에즐리 (52)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포로 구출을 위해 기도한 구조 대원들
에이드리언 오초아	(55) 다른 제사에게 교회에 돌아오라고 권유한 남아프리카의 어린 제사 (55) 친구를 침례 줄 수 있게 된 칠레의 한 어린 제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66) 제2차 세계 대전 중 부상 입은 동료 병사에게 축복을 준 해병대원 (66) 감독 시절, 매달 군인들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쓴 토마스 에스 몬슨 (90) 건강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결심한 한 자매 (90) 아내의 죽음으로 자신의 회의적인 시각이 바뀐 한 무신론자
엘 톰 페리 장로	(94) 비행기 옆 좌석에 앉은 승객과 복음을 나눈 한 교회 회원
오 빈센트 할레크 장로	(101) 자녀들을 위해 금식기도를 한 오 빈센트 할레크의 부모
래리 와이 월슨 장로	(103) 일요일에 축구를 하고서는 끔찍한 기분이 든 래리 와이 월슨의 딸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장로	(106) 친구와 룸메이트의 모범을 보고서 교회에 들어오게 된 한 젊은이
닐 엘 앤더슨 장로	(111) 암을 극복한 청년에게 돌려주려고 3년간 풍선을 보관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111) 아이티의 지진에서 구조된 세인트러스 가족의 세 자녀
앤 엠 딕	(117) 친구에게 나쁜 말을 쓰지 않도록 권유한 청년 (117)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말씀을 지킨 청년
일레인 에스 돌튼	(123) 짙은 안개에도 불구하고 수영을 완주한 플로렌스 채드윅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126) 딸과 함께 세미나리에 참석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여 개종한 아버지 (126) 상호 향상 모임을 참석했기 때문에 유혹을 극복한 청년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넷째 주 일요일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공과 시간에는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을 공부한다. 각 공과로 최근 연차 대회 말씀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사용하여 준비할 수 있다. (아래 표 참조) 스테이크 회장 또는 지방부 회장은 어느 말씀을 사용할 것인지 직접 선택하거나, 감독 또는 지부 회장에게 이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지도자들은 멜기세덱 신권 형제들과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같은 일요일에 같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넷째 주 일요일 공과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최근 연차 대회 특집호를 공부하고 공과 시간에 가져오도록 권유한다.

말씀을 활용한 공과 준비 제언

말씀(들)을 공부하고 가르칠 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기도한다. 다른 자료를 사용하여 공과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으나 대회 말씀은 승인된 교과 과정이다. 여러분의

책임은 사람들이 교회의 최근 연차 대회에서 가르침 받은 대로 복음을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도록 돕는 것이다.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반원들의 필요에 맞는 원리와 교리를 찾는다. 또한 그러한 진리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이야기, 참조 성구, 문구들을 말씀(들)에서 찾아본다.

원리와 교리를 가르칠 방법에 관해 개요를 작성한다. 개요에는 다음과 같이 반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 말씀(들)에서 원리와 교리를 찾아보게 하는 질문.
-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
- 깨달음, 생각, 경험, 간증을 나누게 하는 질문.
- 이런 원리와 교리를 생활에 적용하게 하는 질문. ■

공과를 가르칠 달

넷째 주 일요일 공과 자료

2012년 4월 ~ 2012년 10월

2012년 4월 연차 대회*에서 하신 말씀들

2012년 10월 ~ 2013년 4월

2012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하신 말씀들

*4월과 10월 넷째 주 일요일 공과는 예전의 대회 혹은 가장 최근의 대회에서 말씀(들)을 선정할 수 있다. 말씀은 conference.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이용 가능하다.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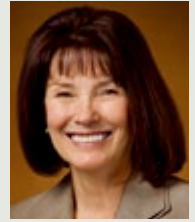
상호부조회



캐롤 엠 스티븐스
제1보좌



린다 케이 버튼
회장



린다 에스 리브스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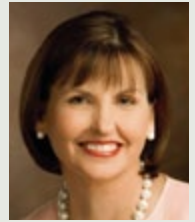
청녀



메리 앤 쿡
제1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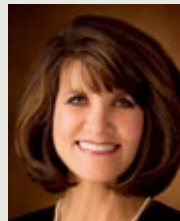


일레인 에스 돌튼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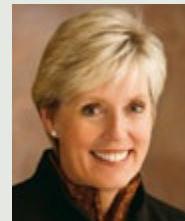


앤 엠 딘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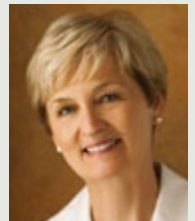
초등회



진 에이 스티븐스
제1보좌



로즈메리 엠 워슨
회장



체럴 에이 에스플린
제2보좌

청남



래리 엠 김슨
제1보좌



데이비드 엘 벡
회장



에이드리언 오초아
제2보좌

주일학교



데이비드 엠 맥킴
제1보좌



러셀 티 오스구토프
회장



매튜 오 리차드슨
제2보좌

제182차 연차 대회에서 칠십인, 감리 감독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바뀐다

2012년 3월 31일, 제182차 연차 대회 개최 모임에서 교회 회장인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모두가 한 지붕 아래로 모일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는 텔레비전, 라디오, 케이블, 위성 방송, 인터넷, 심지어는 이동 통신 기기를 통해 이 대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언어를 쓰고 여러 나라에 살지만, 하나의 신앙과 하나의 교리와 하나의 목적 아래 하나로 모였습니다.”

실제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3월 31일과 4월 1일에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는 연차 대회 모임에 참석했으며, 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텔레비전, 라디오, 위성, 인터넷 방송을 통해 대회를 시청하거나 청취했다. 전 세계 회원들과 비회원들은 94개 언어로 생방송 및 녹화 방송에 참석했거나 참석하게 된다.

연차 대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교회의 많은 회원들은 이런 현대 기술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 대회에 참여하도록 권유했다. 3월에 도입되어 여러 언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젯, 표어, 안내 그래픽은 각 연차 대회가 시작되기 전 주에 conference.lds.org에서 게시된다.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는 몇몇 교회 지도자들이 바뀌었다. 해임된 이들 중에는 감리 감독단과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도 포함된다.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는 칠십인 회장단에서 해임되었다. 지역 칠십인 37명도 해임되었다. 지지와 해임에 관한 전체 명단은 27쪽을 참조한다.

감리 감독단으로는 게리 이 스티븐슨이 감리 감독으로, 제럴드 코세가 제1보좌로, 던 엠 데이비스가 제2보좌로 부름 받았다. 새로운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으로는 린다 케이 버튼이 회장으로, 캐롤 엠 스티븐이 제1보좌로, 린다 에스 리브스가 제2보좌로 부름 받았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리차드 제이 메이너즈 장로가 칠십인 회장단에서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는 래리 에코 호크 장로, 로버트 시 게이 장로, 스코트 디 화이팅 장로가 부름 받았다.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제일 정원회로

부름 받은 이는 크레이그 에이 카든 장로와 스탠리 지 엘리스 장로이다.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과 보좌들은 16년 이상 감리 감독단에서 함께 봉사했다. 더 오랜 기간 동안 감리 감독으로 봉사한 이들은 있지만, 감리 감독단이 그토록 함께 오래 봉사한 적은 없었다.

새로 부름 받은 이들에 대한 약력은 135쪽에서부터 실려 있다. ■

연차 대회 말씀 본문과 오디오 및 동영상 자료는 conference.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연차 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몇몇 교회 지도자가 바뀌었다. 부름 받은 이들 중에는 감리 감독단과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도 포함된다. 리차드 제이 메이너즈 장로가 칠십인 회장단으로 부름 받았다. 지역 칠십인 40명도 부름 받았다.



리차드 제이 메이너즈 장로

칠십인 회장단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은 모든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칠십인 회장단으로 새로 부름 받은 리차드 제이 메이너즈 장로가 한 말이다. 그는 우루과이, 파라과이, 멕시코, 에콰도르, 페루, 필리핀을 포함하여 해외 여러 지역에서 임무를 맡아 봉사했던 일을 되돌아보았을 때 마음속에 떠올랐던 첫 번째 복음 원리가 바로 그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원리들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는 그들이 어디에 살든 또는 이 시험의 상태에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든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승영하는 영원한 축복을 얻게 됩니다.”

메이너즈 장로는 1950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에서 스탠 메이너즈와 베티 메이너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해외에서의 봉사는 1969년부터 1971년까지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는 아이다호 주에 있는 한 휴양지에서 일하는 동안 낸시 퍼링턴을 만나 1974년 8월에 유타 맨타이 성전에서 결혼했다. 이들은 네 자녀를 두었다.

메이너즈 장로는 같은 해에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선더버드 글로벌 경영대학원(Thunderbird School of Global Management)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공장자동화 전문 회사의 소유이자 최고경영자로 일했다.

메이너즈 장로는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멕시코 몬테레이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다. 그는 1997년에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았다. 그 이후로 그는 남아메리카 북서 지역, 남아메리카 서 지역, 필리핀에서 지역 회장단으로 봉사했다. 또한 교회 신권 집행 위원회에서 선교사부의 집행 보조 책임자로 그리고 가족 역사부의 집행 책임자로도 봉사했다.

그는 2012년 1월 20일에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를 이어서 칠십인 회장단에서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다.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는 교회 역사가 및 기록자로 부름 받았다. ■



크레이그 에이 카든 장로

칠십인 정원회

최근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제일 정원회로 부름 받은 크레이그 앨런 카든 장로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에 영의 영향력을 인정한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가 어린 시절에 영의 음성을 인식하고 느끼는 것을 알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교통은 그것을 부지런히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으며, 이 위대한 사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카든 장로는 이탈리아에서 선교사로 봉사한 후 1970년 11월에 애리조나 메사 성전에서 데보라 루이스 다나와 결혼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후, 카든 장로는 이탈리아 로마 선교부 회장이 되었다. 여덟 자녀 중 일곱 명이 이미 태어난 상태여서, 당시 자녀들의 나이는 생후 9개월에서 열한 살까지 이르렀다.

“그것만 봐도 카든 자매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하고 카든 장로가 말했다. “아내의 신앙, 사랑, 인내, 친절은 저와 우리 가족, 그리고 제 아내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었답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서 아프리카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한 카든 장로는 그 경험을 “저희가 끄찍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묘사한다.

카든 장로는 살아오면서 미국을 포함하여 국제 가족 및 청소년 단체들과 함께 박애주의 사업에 수많은 시간을 헌신했다.

카든 장로는 1948년 12월에 미국 애리조나 주 메사에서 윌포드 프렛 카든과 빌라테 앨런 카든 사이에서 태어났다. 애리조나 주립 대학교에서 회계학 학사 학위를 받은 그는 다수의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자영업을 했다. 그는 이후에 하버드 대학교 행정대학원(Harvard University's Kennedy School)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기 전에 그는 장로 정원회 회장, 스테이크 선교사, 선교부 회장, 감독, 스테이크 회장, 복음 교리반 교사, 종교 교육원 교사로 봉사했다.

“주님은 세계 곳곳에서 그분의 자녀들을 모으고 계십니다.”라고 카든 장로는 말했다. “개인이 처한 환경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분에게로 나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충분합니다.” ■



래리 에코 호크 장로

칠십인 정원회

래리 에코 호크 장로는 1972년에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장로가 북미 원주민들이 교육을 받아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한 구상을 말씀하는 것을 들은 이래로 자신의 삶을 “사람들의 삶을 향상하는” 데 바쳤다.

파니 부족에 속하는 에코 호크 장로는 1948년 8월에 미국 와이오밍 주 코디에서 어니스트 에코 호크와 제인 에코 호크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미국 뉴멕시코 주 파밍턴에서 성장했으며, 그곳에서 그와 그의 가족은 1962년에 후기 성도 선교사들에게서 복음을 배우고 침례를 받았다.

열일곱 살 때 야구공에 눈을 맞은 그는 자신이 시력을 잃지 않는다면 물문경을 읽겠노라고 주님께 약속드렸다. 다시 눈이 보이게 되자 그는 물문경을 매일 10쪽씩 거의 3개월 동안 읽었다.

“여태껏 경험한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영적 경험이었어요. 물문경이 참되다는 것을 성신이 증거해주었거든요.”라고 에코 호크 장로는 말했다. “그 경험 덕분에 제가 평생에 걸쳐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프로보에 있는 브리검 영 대학교 미식축구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체육과 동물학 학위를 받았다. 1970년에는 미국 해병대에서 2년간 복무를 마치고 명예롭게 제대했다. 1973년에는 법학 석사 학위로 유타 대학교를 졸업했다.

에코 호크 장로는 변호사, 주 의회 의원, 주 법무 장관, 브리검 영 대학교 법학 교수, 인디언 문제 담당 내무부 차관보를 역임했으며, 칠십인 제일 정원회 부름을 받아들이기 위해 내무부 차관보 직에서 사임하게 된다.

김볼 장로는 1968년 12월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에코 호크 장로와 그의 아내 테리 프리에스의 결혼을 집행했다. 에코 호크 장로는 교사, 감독, 고등평의원,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아내의 지지를 받았다. 그들은 여섯 자녀를 두었다. ■



스탠리 지 엘리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스탠리 개럴드 엘리스 장로는 어느 누구도 과학적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시험함으로써 그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하버드 대학교에서 알게 되었다. 대학교 1학년을 다니던 도중에 돈이 떨어진 그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직업을 구했다. 십일조를 내고도 나머지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긴 했지만 그는 주님을 “시험하여” 보기로 했다.(말라기 3:10 참조)

“십일조를 먼저 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라고 최근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서 제일 정원회로 부름 받은 엘리스 장로가 말했다. “그 다음 봉급을 받을 때까지 생활해낼 수 있었죠. 그런 일은 그 학기 내내 격주마다 일어났습니다. 저는 주님을 시험함으로써 그분이 실재하며 약속을 지키신다는 간증을 굳혔습니다.”

엘리스 장로는 1947년 1월에 미국 아이다호 주 벌리에서 스티븐 엘리스와 헤이즐 엘리스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그곳에 있는 농장과 목장에서 성장했다. 그는 하버드에서 1학년을 마친 후 1966년부터 1968년까지 브라질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귀환 후 1969년 6월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성전에서 캐스린 클로우퍼와 결혼했다. 두 사람 사이에 아홉 명의 자녀가 있다.

엘리스 장로는 하버드에서 행정학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한 후,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했다. 엘리스 장로는 세무 전략 분야에서 일했으며, 재무 설계 회사의 최고경영자가 되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로 부름 받기 전에는 북아메리카 남서 지역, 브라질 북 지역, 브라질 지역 회장단과 경계선 및 지도자 변경 위원회(Boundary and Leadership Change Committee)에서 봉사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브라질 상파울루 북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다. 또한 스테이크 회장,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고등평의원, 감독단 보좌, 장로 정원회 회장, 와드 및 스테이크 청년 회장을 역임했다. ■



로버트 시 게이 장로

칠십인 정원회

로버트 크리스토퍼 게이 장로는 자신이 맡은 교회 임무로 말씀할 때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바로 저희 삶에서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라고 게이 장로는 말했다. 그 자신과 아내 라이네트 닐슨 게이를 두고 한 말이었다. “우리는 영적,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면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짐은 들어 올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인생의 시련을 견디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평안, 은혜를 얻습니다.”

게이 장로는 자신과 게이 자매가 외국과 자국 가까이에서 펼친 인도주의적 봉사에서 가장 큰 만족을 찾는다. 예를 들자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가나 아크라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기 전과 후에 그와 게이 자매는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촌락과 기타 지역에서 일하며 학교와 진료소를 짓고, 읽고 쓰는 능력 및 소액 용자 프로그램 개발을 도왔다. 그들이 다른 동료들과 공동 설립한 단체들은 지구촌 곳곳에서 수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였다.

1951년 9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빌 게이와 메리 게이 사이에 태어난 그는 고등학교 친구에게서 역시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미래의 아내를 소개받았다. 이후에 두 사람은 그 친구가 교회에 들어오도록 도왔다. 그들은 1974년 4월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성전에서 결혼하여 일곱 자녀를 두었다.

게이 장로는 유타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그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다.

게이 장로는 25년 넘게 사모투자 업계에서 일하며 국제적으로 사업체에 투자하고 키웠다.

칠십인 제일 정원으로 부름 받을 당시에는 북아메리카 남동 지역에서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1971년부터 1973년까지 스페인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것 외에도 감독단 보좌, 고등평의원, 대제사 그룹 지도자, 복음 교리반 교사, 와드 선교 책임자, 와드 청남 회장으로 봉사했다. ■



스코트 디 화이팅 장로

칠십인 정원회

스코트 듀언 화이팅 장로는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여러 기회가 몇 가지 중요한 결정에 기초했다고 믿는다.

1961년 4월에 듀언 화이팅과 베벌리 화이팅 사이에서 태어난 화이팅 장로는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성장했다. 그의 첫 번째 중요한 결정은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었으며, 그런 다음에는 얼마 동안 봉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다. 그 시기의 여건상 화이팅 장로는 18개월과 2년 봉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6개월 더 봉사하기로 한 결정은 이후 제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일본 도쿄 북 선교부에서 봉사를 마친 그는 친구를 통해 미래의 아내인 제리 올슨을 만났다. 그녀와 결혼하기로 하는 선택은 또 다른 중대한 결정이었다. 그들은 1984년 4월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화이팅 장로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일본어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퍼시픽 대학교, 맥조지 법과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화이팅 장로가 내린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로부터 감독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였을 때였다. 벨라드 장로는 그에게 그 부름을 완수하겠냐고 물었다.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사도에게 약속했으며, 그가 이사를 하기만 한다면 연봉이 높은 직업을 가질 수 있었지만 화이팅 장로는 자신이 한 약속을 지켰다.

봉사를 하는 가운데 “저활동 회원들의 집으로 가서 그들이 하나님과 성약을 맺거나 새로이 하도록 돕는” 열정이 커졌다.

화이팅 부부에게는 다섯 자녀가 있다. 칠십인 제일 정원으로 부름 받기 전에는 하와이에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일했다. 화이팅 장로는 장로 정원회 회장, 감독, 고등평의원, 스테이크 청남 회장, 스테이크 회장, 지역 칠십인을 역임했다. ■



게리 이 스티븐슨
감독
감리 감독

게리 에반 스티븐슨 감독은 자신이 세계 곳곳에서 감독들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를 지켜보는 데 삶의 많은 부분을 보냈다고 말한다. 그는 아버지가 “청소년 시절에 저의 감독님이셨고, 아버지의 봉사는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라고 말했다.

스티븐슨 감독의 아버지는 그들 워드 지역에 사는 60명 이상의 미망인 중 한 명을 방문할 때 자주 그에게 함께 가자고 했다. 스티븐슨 감독은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적인 봉사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는 것에 관한 교훈을 배웠다. 그러한 교훈은 자신이 교회 감리 감독 부름을 수행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교회 감독들은 정말로 저의 영웅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매일 그들은 교회 회원들에게, 특히 어린이들과 청년, 청년들에게 그러한 영향을 미칩니다.”

1955년 8월에 에반 앤 스티븐슨과 베라 진 스티븐슨 사이에 태어난 스티븐슨 감독은 유타 캐쉬 밸리에서, 개척자 조상을 둔 가정에서 자랐다.

그는 청년 시절에 일본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였다. 그 부름은 스티븐슨 감독에게 복음을 나누는 일과 아시아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었으며, 그 사랑은 일평생 지속되었다.

선교부에서 귀환한 후에는 유타 주립대학교에 입학했다. 그곳에서 리사 진 히글리를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다. 두 사람은 1979년 4월에 아이다호 아이다호폴스 성전에서 결혼했다. 스티븐슨 부부는 아들 네 명을 두었다.

스티븐슨 감독은 경영학 학위를 받고 이후에 운동장비 제조사를 공동 창업하여 사장직을 맡아 일했다.

그는 스테이크 회장단, 감독, 일본 나고야 선교부 회장(2004~2007)을 포함하여 여러 교회 부름을 거쳤다. 2008년에는 칠십인 제일 정원으로 부름 받았으며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보좌 및 회장으로 봉사했다. ■



제럴드 코세
감독
감리 감독단 제1보좌

최 근에 감리 감독단 제1보좌로 부름 받은 제럴드 진 코세 감독은 어린 시절부터 늘 교회 봉사에서 행복을 찾았다. 프랑스 보르도에 있는 그의 작은 지부에서는 그 단위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교회 봉사는 훌륭한 일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청소년 시기에 아론 신권 정원회에서 봉사하는 것 외에도 열두 살 때에는 초등학교 피아노 반주자로, 열네 살 때에는 주일학교 회장단 보좌로, 열여섯 살 때에는 주일학교 회장으로 봉사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간증을 얻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지부 회장과 감독으로 여러 차례 봉사한 그의 아버지는 코세 감독이 긍정적 경험을 하는 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제가 십대였을 때 아버지는 가정 복음 교육이나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을 방문하는 데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라고 코세 감독은 말했다. “아버지를 지켜본 것이 신권 지도자가 될 준비를 하는 데 아마도 가장 좋은 학습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세 감독은 워드 서기, 장로 정원회 회장, 대체사 그룹 지도자, 감독단 보좌,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스테이크 회장, 지역 칠십인,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 일원으로 봉사했다.

코세 감독은 1963년 5월에 프랑스 보르도에서 진 코세와 마리-블랑쉬 코세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젊은 시절에 일 년간 프랑스 공군에서 복무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배속되었다.

그는 1987년에 에섹(ESSEC)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전략 컨설팅으로 직장 일을 시작했으며, 한 컨설팅 회사의 파리 및 런던 사무소에서 6년간 그 일을 했다. 이후에는 유럽에 있는 주요 소매 회사에서 일했으며, 2008년에 칠십인 제일 정원으로 부름 받기 직전에는 프랑스에서 가장 큰 급식업체의 총지배인과 이사로 일했다.

그와 발레리 루시엔 바빈은 1986년 8월에 스위스 베른 성전에서 결혼했다. 자녀는 다섯 명이다. ■



딘 엠 데이비스 감독

감리 감독단 제2보좌

교 회 회장이 딘 데이비스 감독에게 성전 예비 부지가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가면 얼마나 걸리는가 등과 같은 세세한 질문을 하면 데이비스 형제는 단순한 사실을 열거하지 않는다. 그는 직접 그 길을 걸어본 경험으로 안다.

“어떻게 그렇게 하죠?”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그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세세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주의를 기울이고 전념하는 것은 감리 감독단 제2보좌로 첫 부름 받은 딘 마이런 데이비스 감독이 인생을 살아온 방식이다.

1951년 9월에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올리버 데이비스와 마이라 데이비스 사이에 태어난 데이비스 감독은 사랑과 일이 원칙인 가정에서 자랐다. 그가 뭔가를 원한다면 별어서 그것을 얻어야 했다. 어머니에게 아무리 졸라도 바라던 장난감을 얻지 못하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두루 생각했다. 그는 구식 잔디 깎는 기계로 이웃집에서 무성하게 자란 잔디밭을 밀고 다니느라 몸이 빠근했던 경험과 그 결과로 얻은 만족감을 여전히 기억한다.

1970년부터 1972년까지 우루과이/파라과이 선교부에서 봉사한 그는 귀환하여 1973년 6월에 청소년 초반 때부터 친구로 지내온 달라 제임스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데이비스 감독은 1976년에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에 스탠퍼드 대학교와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고급 경영자 교육을 받았다.

그와 아내와 다섯 자녀가 여러 해에 걸쳐 여섯 주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는 부동산업계에서 서서히 경력을 쌓았다. 그는 스테이크 회장,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다섯 차례의 고등평의원, 감독단, 여러 와드 부름에서 봉사했다. 또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선교부 회장으로도 봉사했다. 가장 최근의 부름을 받을 당시에는 교회의 특별 프로젝트 부서에서 관리 책임자로 일했다.

그가 경험한 교훈 중에는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있다. ■



린다 케이 버튼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심 대 시절 린다 크자 버튼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교회 모임을 하던 중에 갑자기 깨달았다. “저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고 버튼 자매는 회상했다. “제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또한 깨달았죠.” 그 간증이 이제 그녀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는 데 밑받침이 될 것이다.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마저리 시 크자와 모리스 에이 크자 사이에 태어난 버튼 자매는 열세 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뉴질랜드 남 선교부를 감리해야 했기에 그녀의 가족은 유타를 떠났다. 여섯 자녀 중 둘째인 버튼 자매는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 학교에 다니며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십대 후기 성도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녀는 다양한 문화와 전통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특히 주님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안고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왔다.

버튼 자매는 유타 대학교를 다니던 중 크레이그 피 버튼을 만나 1973년 8월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이 부부는 자녀 낳기를 미루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그렇게 해서 여섯 자녀 중 첫 번째 자녀가 약 일 년 후에 태어났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협력하면서 남편이 부동산 일을 하는 동안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봤다. 이 부부는 초반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우린 주님의 도움으로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라고 그녀가 설명했다.

이 가족은 간소한 휴가를 보내며 함께 있는 것에 만족해 했다. 버튼 자매는 청년, 초등학교, 주일학교, 본부 초등학교 및 상호부조회 위원회에서 봉사했다. 그녀는 남편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 서울 서 선교부를 감리하는 동안 남편과 함께 봉사했다. 선교부 임지에 있으면서 버튼 자매는 자신이 뉴질랜드에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랑이 언어와 문화를 초월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한국에서 한 친구로부터 배운 것을 새로운 부름에서 다시 적용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매님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이다. ■



캐롤 엠 스티븐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캐롤 맨젤 스티븐은 성스럽고 거룩한 것들을 늘 중시했다. 그런 존중은 그녀의 어머니가 복음으로 개종한 후 가족이 성전에서 인봉되던 어린 소녀 때부터 시작되었다.

“일어나는 일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하고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로 새로 부름 받은 스티븐 자매가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특별했다는 것만은 알았어요. 성전이 성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알 정도의 나이는 되었으니까요.”

1957년 3월에 칼 엘 맨젤과 포리스트 맨젤 사이에 태어난 스티븐 자매는 아홉 자녀 중 셋째였으며, 미국 유타 주 옥든에서 성장했다. 그녀는 부모님이 봉사과 회생, 가족과 교회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보여주는 모범을 잘 기억하고 있다.

“부모님에게 복음은 모든 것이었으며, 그리스도적인 봉사가 어떤 것인지를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저희에게 봉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로 어떻게 봉사하는지를 가르쳐주셨지요.”

그녀의 부모는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자녀들을 포함시켰다. 그런 시간에 그들은 서로에 대한 우정을 키웠다. 이런 우정은 그녀와 그녀의 남편인 마틴 “마티” 스티븐이 여섯 자녀들과 함께 쌓으려고 노력해온 것이기도 하다.

그녀와 마티는 유타 주 옥든에 있는 웨버 주립대학교에 다니는 동안 만났으며, 그녀는 이 대학에서 유아교육학을 공부했다. 그들은 1976년 4월에 유타 로건 성전에서 결혼했다. 스티븐 자매는 자신과 남편이 각기 다른 부름을 받아 서로를 지지하며 여러 해 동안 훌륭한 팀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부름에는 스테이크 및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 보좌, 교사; 와드 청년 회장; 와드 초등학교 보좌, 교사, 컵 스카우트 지도자; 세미나리 교사; 교회 봉사 선교사 등이 있다.

“그토록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는 많은 기쁨과 행복을 얻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우리는 봉사하면서 자녀와 손자 손녀까지 포함시켰지요. 그 덕분에 우리는 함께 봉사하면서 탄탄한 가족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



린다 에스 리브즈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린다 세필드 리브즈는 청소년 시절 어머니가 역경을 겪으면서 용감하게 개종하여 하나님께로 향하고 외할아버지에게서 가르침 받은 대로 탁월함을 추구하려는 모습에서 교훈을 얻었다.

“저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생 초반부터 강한 간증을 얻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에 영적으로 빠르게 성숙해졌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리브즈 자매는 1951년 8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엘버트 줄리 세필드와 바바라 웰치 세필드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열세 살이었을 때 청년 야영을 하던 중 별이 총총히 박힌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버지, 거기 계신가요?”라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단순한 기도를 드렸던 것을 기억한다.

“저는 주님의 영광, 그분의 존재와 실재성에 대한 지식, 저에 대한 그분의 사랑으로 둘러싸였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리브즈 자매는 파사데나에 있는 자신의 와드에서 멜빈 캠프 리브즈를 만났다. 그가 선교 사업을 마친 후 그들은 브리검 영 대학교를 다니면서 데이트를 했다. 그들은 1973년 6월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성전에서 결혼하여 열세 명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되었다.

리브즈 자매는 시련 가운데서도 속죄에 대한 간증을 잃지 않았다. 특히, 열일곱 살 된 딸 에밀리 미셸이 2005년에 차 사고로 사망했을 때조차도 그러했다.

“역경은 위대한 교사이죠.”라고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역경을 겪으면서 단련되고 미래에 왕국과 가정, 지역 사회에서 봉사하고 주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리브즈 자매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으로 부름 받기 전, 남편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선교부를 감리했을 때 남편과 함께 봉사했다. 그녀는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 와드 청년 회장, 초등학교 성가대원, 주일학교 교사를 역임했다.

리브즈 자매는 1974년에 특수교육학 학사 학위를 받고 브리검 영 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녀는 미술, 음악, 사진, 가족 역사, 선교 사업 등에 큰 열정을 보인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를, 특히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

1971년도까지의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가 대회 자료실에 추가되다

헤더 휘틀 위클리
교회 소식과 기사

교회에서는 회원들이 과거 및 현재의 사랑하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주신 권고를 더 잘 접하도록 돕기 위한 노력으로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를 LDS.org의 연차 대회 영역에 추가하고 있다.

1971년 4월부터 현재까지 모든 연차 대회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는 2012년 6월까지 영어 온라인 자료실에 실리게 된다. 이전에는 1971년도에 이르기까지 대회 말씀 본문만 이용할 수 있었으며, 영어 비디오는 2002년도까지만 가능했다. 교회에서는 또한 2008년도까지의 대회 말씀이 담긴 오디오 및 비디오 형식을 2012년 6월까지 70개가 넘는 언어로 제공하게 된다.

“교회의 대다수 회원들은 LDS.org의 연차 대회 영역에서 최근 대회 말씀을 읽고, 보고, 청취하는데, 다수의 회원들은 또한

과거 대회 말씀에 접속하는 데도 관심을 보입니다.”라고 칠십인의 페트릭 키아론 장로는 말했다. “이 일의 목적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 회원들이 대회 말씀을 더 잘 접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또한 음악도 대회 자료실에 추가하고 있다. 현재, 회원들은 LDS.org에서 각 대회 영역 상단에 있는 음악 보이기를 클릭하면 2008년도까지의 물론 태버나클 합창단이 부른 노래를 들을 수 있다. 새로운 음악 자료실(GCmusic.lds.org)에서는 다수의 자료실과 대회를 오가며 검색할 수 있다.

자료실을 LDS.org뿐만 아니라 Gospel Library 앱과 같은 교회 모바일 앱, 그리고 로쿠와 유튜브 상의 물론 채널을 포함하여 기타 매체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 ■



2008년도까지의 모든 대회 모임의 음악은 이제 GCmusic.lds.org에서 듣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보조 조직 훈련 모임 영어 및 스페인어 온라인

교회 본부의 네 개 보조 조직 회장단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의무를 배우도록 돕고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 훈련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하기 위해 3월 하순에 스테이크 및 와드 보조 조직 지도자들을 위한 훈련 모임을 열었다. (청남 지도자를 위한 훈련 모임은 5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실황이든 이용자 요구 방식이든 웹캐스트가 다섯 개의 보조 조직 모두를 위해 영어 및 스페인어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것이다. 3월에 열린 네 개의 훈련 모임 요약은 그 내용을 접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이곳에 실었다.

초등회

초등회의 목적은 어린이들이 개종으로 이르는 길을 따라가도록 돕는 데 있다고 본부 초등회 회장 로즈메리 엠 워숍 자매는 3월 28일과 29일에 열린 초등회 지도자를 위한 보조 조직 훈련 모임에서 말했다.

“우리는 [초등회 어린이들이] 느끼고 사랑하고 행하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어린이들이 간증을 갖기를 바랍니다. …… 간증은 선언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개종은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개종의 씨앗을 갖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워숍 자매와 보좌인 진 에이 스티븐스 자매와 첼러 에이 에스플린 자매는 와드 및 스테이크 초등회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그러한 개종의 씨앗을 심는 부모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워숍 자매는 매우 어린

나이에 시작되는 개종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상적으로는 부모가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후 부모는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녀는 “우리가 시간을 내어 자녀를 가르치기만 한다면” 그들은 개종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부모와 초등학교 지도자가 아이들에게 “세상의 목적”을 가르치지만 않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본부 초등학교 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은 복음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 것과 LDS.org에 나오는 초등학교 지도자들용 자료에 관해 발표했다.

상호부조회

“여러분은 위대한 사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연차 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부름에서 해임된 줄리 비 벡 자매는 3월 27일과 28일에 열린 보조 조직 훈련 모임에서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 우리는 매우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벡 자매는 상호부조회의 목적, 여성이



가정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 가르치기(특히 교회의 새로운 자매들), 위원회 일, 지도력 원리 등 여러 주제에 관해 말했다.

기본에 충실하라고 벡 자매는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며, 주님께서 초점을 맞추도록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아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계시를 이행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내내 계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및 위원회 위원들은 그 모든 가르침에서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와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에서 답을 찾았다.

주일학교

LDS.org의 새로운 특징인 지도자 훈련 자료실은 3월 28일에 열린 주일학교 보조 조직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잘 활용되었다.

이 자료실에 있는 여러 영상 자료 일부는 본부 주일학교 회장인 러셀 티 오스구토프 형제가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주요 주제로 설명한 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영되었다.

- 와드 또는 스테이크 주일학교 지도자의 역할.
- 사람들이 와드 및 스테이크 내 모든 조직에서 가르치는 일을 향상하는 데 있어서 주일학교 회장단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돕는 방법.
- 회장단이 좀 더 효과적으로 협의하는 방법.
- 교사를 지도하고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

“여러분은 지도자 훈련 자료실이 다른 보조 조직들과 주일학교 직원들에게 그들의 책임을 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1보좌인 데이비드 엠

맥콩키 장로는 말했다. “자료실은 교회의 모든 보조 조직, 칠십인 일원들,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들이 준비한 것입니다. 이 일은 여러 해에 걸쳐 진행해온 것이며, 여러 대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료실은 LDS.org 홈페이지에서 메뉴를 클릭한 뒤, 봉사 아래에 있는 지도자 훈련 자료실을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청녀

“표준은 바뀌지 않았으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라고 본부 청녀 회장인 일레인 에스 돌튼 자매는 3월 27일과 28일에 열린 청녀 보조 조직 훈련 모임에서 말했다. 그녀는 지도자들에게 정결한 삶을 사는 훌륭한 모범이 되어 “세상을 바꾸라”고 격려했다.

“여러분의 부름은 무작위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여러분이 이 청녀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여성이 되고 복음대로 생활하는 기쁨을 가르침으로써 …… 여러분이 보고, 입고, 웃는 방식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우리는 정숙해야 합니다.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범과 큰 사랑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본부 청녀 회장단 보좌인 메이 앤 쿡 자매와 앤 엠 딥 자매는 “월계반이 이끄는”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두 보좌는 올해에 100주년을 기념하는 청녀 야영을 월계반이 이끌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예로 들었다. 그러나 청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책임을 분배할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고 말했다.

발표자들은 또한 지도자들이 아이디어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 기사, 비디오, 교재,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개정판 등 여러 자료에 주의를 집중시켰다. ■

Church News에서 제공

장애 전문가를 위한 새로운 정보가 LDS.org에 추가되다

멜리사 메릴
교회 소식 및 행사

미국 인디애나 주의 줄리 브링크는 청각 장애가 있는 딸을 키우며 수년간 자신의 스테이크에서 미국 수화 통역자로 봉사했다. 미국 애리조나 주의 일레인 앨리슨은 오랫동안 공립학교 교사로 일하며 장애가 있는 학생들과 직간접으로 교류했다. 그녀에게는 또한 다운증후군이 있는 조카와 다발성경화증과 루게릭병을 앓는 친한 친구들도 있다.

브링크 자매도 앨리슨 자매도 자신을 장애 부문에서 “전문가”로 여기지 않지만

그들은 모두 스테이크 장애 전문가로 봉사하고 있다. 이 부름을 위해 LDS.org의 ‘교회에서 봉사함’ 영역에 새로운 정보가 10개 언어로 추가되었다. (이 부름은 실제로 스테이크 또는 와드에 있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양쪽 모두에 있을 수 있다.)

와드 또는 스테이크 장애 전문가 부름은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에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긴 하지만, 일부 지도자들은 이 부름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한다.

“와드 지도자들이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특별한 필요를 인식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라고 교회 장애 서비스 관리자인 크리스토퍼 필립스가 말했다. “장애 전문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많지만, 이 부름이 있는지를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LDS.org에 10개 언어로 새로 추가된 정보는 스테이크 장애 전문가로 부름 받은 이들이 장애가 있는 교회 회원들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교회에서 봉사함’이라는 이 새로운 온라인 영역에는 이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낱말이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 직분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장애 관련 문제를 안고 있는 지도자와 교사, 가족들을 도울 수 있도록 아이디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LDS.org에 10개 언어로 게시된 정보는 다음과 같이 전문가들이 와드 및 스테이크 지도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 와드 또는 스테이크 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파악하고 친해진다.
- 장애가 있는 회원들을 모임과 활동에 포함시킨다.
- 부모, 지도자, 그 밖의 사람들에게 장애 관련 질문과 염려에 대해 답해준다.
- 장애가 있는 회원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기회들을 찾는다.
- (보살피는 도움을 포함하여) 가족들의 특별한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적절하다면 그러한 필요 사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사회, 와드, 스테이크 자료를 찾는다.

장애 전문가만이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보다는 그들의 역할은 다른 지도자들이 장애인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더 잘 봉사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장애 전문가는 또한 “장애가 있는 개인과 부모와 와드 회원들과 지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정보를 나누도록 돕습니다.” ■

장애 전문가에 관한 이 기사를 더 읽고 싶다면 news.lds.org에 접속한다.

국제 미술 전시회 수상자가 발표되고, 전시회 열리다

20 12년 3월 16일 금요일, 제9차 국제 미술 경연 전시회 개막식에 전 세계 화가들이 후기 성도를 주제로 하는 미술품에 대한 상을 받기 위해 모여들었다.

“탁월한” 작품을 내놓은 20명의 화가에게 공로상이 수여되었으며, 다른 15명의 화가들은 구매상을 받았는데, 이것은 이 경연대회를 후원하는 교회 역사 박물관이 그 작품을 소장품으로 취득했음을 뜻한다.

칠십인이자 교회 역사가 및 기록자인 말린 케이 켄슨 장로는 개막식에 참석하여 시상을 하기 전에 간략하게 말씀했다.

미술 전시회는 2012년 3월 16일에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역사 박물관에서 열렸으며, 2012년 10월 14일까지 계속된다.

올해 경연에는 “그의 놀라운 일을 알게 하라”(교리와 성약 65:4)라는 주제로 전 세계에서 조각, 퀼트 및 기타 직물, 페이퍼아트, 회화 등 다양한 매체로 된 작품 1,149점이 출품되었다. 이 박물관에서는 출품작 중 198점을 전시하게 된다.

이 박물관에서 일하는 미술 및 문화유물 큐레이터인 리타 알 라이트에 따르면, 출품작은 예술적인 우수함과 주제 일치성에 따라 심사된다. 작품은 주님의 놀라운 일에 대한 간증을 전하는 다양한 매체와 문화 전통을 반영하며 종종 묘사를 하고 교훈을 주기 위해 상징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그녀는 말했다.

예를 들어 구매상을 받은 우크라이나 태생 발렌티나 무시이엔코의 *우크라이나 키예프 성전은 성전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상징을 색지에 재창조한 것이다.*

공로상 수상자인 캐나다 앨버타 출신의



내가 그들의 말을 보낼 것임이니(교사 아담), 엘스페스 케이틀린 영, 미국



여자 가장, 브랜든 대니얼 허티, 캐나다

브랜든 대니얼은 가족 역사와 세대간 연결을 표현하기 위해 증조할머니(여자 가장)의 유화 초상화를 사용한다.

콜롬비아 보고타의 알렉산드라 고메즈 차베스는 이 경연대회가 간증을 전하는 통로라고 말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공로상 수상작인 *생수*를 창작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전시회가 열리기 직전에 세상을 떠났다.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간증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들은 이 작품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어머니가 물주전자를 가지고 딸에게 복음을 가르치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전시회 입장료는 무료이며, 관람자는 가족들을 데려오라는 권유를 받는다. 관람자는 마음에 드는 작품에 투표할 수 있으며, 여섯 개의 최고인기상은 관람자의 투표에 근거해 9월에 주어지게 된다.

이 경연대회에 영향을 미친 열한 명의 화가들과 가진 인터뷰를 곧 교회 역사 웹사이트에서 영어로 볼 수 있게 된다. 박물관에서는 비디오도 상영될 것이다.

교회 역사 박물관은 또한 history.lds.org/artcompetition에서 온라인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

전시회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history.lds.org에 접속하거나 801-240-4615로 전화한다. ■

기사 모집

남 성: 청남은 부모뿐 아니라 지도자에게서도 긍정적인 모범을 필요로 합니다. 때때로 훌륭한 청남 지도자, 주일학교 교사, 또는 스카우트 지도자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소년이었을 때 여러분 와드에는 여러분과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모범이 되어줌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에 관해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을 500자 이내로 적어 “Good Example”이라는 제목으로 2012년 5월 31일까지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주십시오. ■